



©유선영

초상권 2010

# 하늘아도리에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39호

# -learning

## 인터넷 성경학교 학습과정

### ‘이러닝학습’이란?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이러닝학습’은 인터넷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 ‘이러닝학습’을 통한 성경 공부는

- ①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 어디에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하느님 말씀을 접하여 보다 편리하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한 번 듣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학기 중에는 계속 반복해서 듣고 복습할 수 있습니다.
- ③ 학습도우미인 튜터의 개인적 동반을 받으며 성경 공부에 필요한 도움과 삶의 목상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 ④ 강사(신부님, 수녀님)의 강의와 요약 정리된 강의자료를 통해 단계별로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닝학습’은 성경 말씀을 보다 가까이 접하며 생활에 기쁨과 활력을 얻고, 주님과 더욱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 교과과정

- 1학년(구약입문)
- 2학년(신약입문)
- 3,4학년(구약중급)
- 5,6학년(신약중급) - 개설 준비

### 학습안내

- 학기제로 운영(매 학년 1학기, 2학기)
- 한 학기 13회 동영상 강의와 강의자료, 성경퀴즈
- 중간고사, 기말고사
- 학습도우미인 ‘튜터’의 1:1 동반
- 매 학기 2회 ‘특강’

### 입학안내

- 원서교부 · 접수: 매년 11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홈페이지 다운로드, 전국 바오로딸, 성바오로 서원)
- Tel: 02) 944-0840~0842, 0844
- 홈페이지: <http://uus.pauline.or.kr>
- e-mail: [e-learning@pauline.or.kr](mailto:e-learning@pauline.or.kr)
- 맛보기: 교육원 홈페이지 → 과정안내 → 온라인학습 과정 → 과정 소개란에 ‘이러닝학습 맛보기’
- QR 코드





## 물음표와 느낌표의 만남



오경은(헬레나) 수녀

최근에 인터러뱅(Interrobang)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음표(?)와 느낌표(!)가 하나로 합쳐진 인터러뱅은 1962년 미국 광고대행사 사장인 마틴 스펙터가 만든 새로운 개념의 문장부호로써 아이디어 창출과 혁신의 상징이자, 세상을 바꾸는 모든 변화의 필수조건을 의미하는 21세기 혁신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부호가 기존의 관념과 질서에 끝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시작과 창조적 사고로 해결 방향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인터러뱅을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많은 의문점, 물음표(?)로 시작하게 됩니다만, 공부를 해가면서 성경 말씀이 점점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올 때 “아! 그렇구나.” 하는 느낌표(!)로 이어지게 되고, 성경 공부의 참맛과 기쁨을 알게 되며,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되니까요. 이처럼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물음표와 느낌표를 함께 만나게 할 때, 보나벤투라 성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행복의 충만인 성경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동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 또는 그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그를, 그 일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겠지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앎

이 없다면 사랑은 결코 싹트지 않습니다. 관심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대상은 비로소 나의 일부가 되며,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느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느님과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막상 성경 공부를 시작해 놓고도 많은 분들이 공부가 어렵다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를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닫혀 있는 문과 마주치게 되고 쉽게 오류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로니모 성인은 결코 홀로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동안에 닫힌 문에 마주치게 되면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지기가 당신에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라고 오리게네스 교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저희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의 문을 자주 두드리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신다면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마태 7:7) 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감탄할 수 있는 느낌표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기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중에 포기하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지하 깊은 곳의 맑은 생명수인 하느님 말씀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자 닫힌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인 저희 교육원의 역할을 다시금 의식합니다. 이미 약속드렸던 대로 입문 과정은 물론 2013년에는 구약중급 과정에서도 이러닝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인터넷 세상에서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보다 더 편리하고 쉬운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계속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말씀과 성체 앞으로 매일 나아갑니다.

특별히 올해 10월 11일부터 내년 11월 24일까지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어, 우리들의 신앙이 날로 더 많이 성숙되기를 바라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 삶의 모든 날에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사시고 말씀하시도록,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주님의 말씀 124항),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삶에서 물음표와 마침표가 만나는 인터러벵,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공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말씀과 삶-성경 필사를 마치고

[갈라티아서를 필사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묵상한 내용을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켜 적어보십시오.]

## 하느님의 은총을

###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송호정(안젤라)·2학년

이번에 필사한 성경 본문은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입니다. 조용히 앉아 필사하던 중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2.21ㄱ)라는 구절에서 잠시 손을 멈추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바오로 사도의 ‘의지’와 ‘뿌리 깊은 신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것은 제가 꿈꾸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라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위해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왔습니

다. 그리고 기도 중에 늘 주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부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라고.

바오로 사도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실천하셨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것임을 공표하셨습니다. 저에게 있어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을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나 자신이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단계가 이루어지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인 내가 타인들에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복음선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이 사회의 기초이듯 성가정의 모습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도 이때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자 서둘러 유아세례를 받게 했고, 아이들은 가브리엘라와 안토니오라는 세례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숙제를 끝낸 듯이 만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부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켜봐 주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

엘라를 위해 기도를 하나 더 올렸습니다. 가브리엘라는 현재 언어 발달 지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7세인데, 한국어도 영어도 또래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저어기에 언어 지체가 평생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학교 적응도 그런 대로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로서 그리고 고질적인 병인 남과의 비교 때문에 많이 속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언어 문제로 하느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편이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집에서 성당이 멀다는 이유로 (홍콩 한인성당과 저희 집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저희 부부가 미사 참례하는 데만 급급해 아이들은 집에 두고 저희 부부만 근처 성당 영어 미사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개신교 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가톨릭계 학교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비가 비싸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 어렵듯이 알기 시작하자 제가 교감을 나누었던 그

하느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한인성당에 가서 미사를 봉헌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인성당에는 어린이 미사가 따로 있고, 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 스카우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의 신앙을 이끌어 줄 저에게 가까운 성당의 영어 미사는 아직 너무 어려운 게 사실이며, 외국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 미사는 아이의 정체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있어 게으른 엄마가 되지 말자는 의지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다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그동안 가장 중요한 것, 하느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후회가 저를 바로잡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두 주일 가기 싫다, 힘들다는 아이를 데리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성당 안에서 딸아이는 열심히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의미도 모르는 성가들을 따라 부르면서 저에게 귓속말로 “연희 잘했어?” 하고 물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유치부 학기가 시작되므로 등록시키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 자라면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저와 남편이 그러했듯이 오랜 시간 냉

담할 수도 있겠지요. 신앙에 대한 회의, 의구심, 고민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올 것이라는 것,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이가 아직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서도 부모의 손을 붙잡고 주일마다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던 기억과 습관이 전제되어야 하겠지요.

저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당연히 하고 있는 일을 뒤늦게 깨달고는 ‘이제 시작하렵니다.’라며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냉담 후 신앙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듯이 무지함 뒤에 깨달음이 더 견고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하고자 하는 일, 가고자 하는 일에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필리피서를 필사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묵상한 내용을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켜 적어보십시오.]

## 당신 자신을 낮추신 주님처럼

구영미(요한 미카엘라)·2학년

“본당 수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서원을 하고 본당 소임을 받은 뒤 가족 방문을 갔을 때, 지금껏 신자로서 살아왔던 삶과 수도자로서 본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를 것이라는 걱정으로 아버지 신부님께 던진 질문이었다.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라. 모든 이 안에 내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주셨던 답이다. 겸손한 자만이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첫 본당 소임을 두 달 만에 막을 내렸지만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필리 2,3)라는 말씀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내 기억 속에 반향되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한 청빈의 서원을 충실히 살게 하는지를 깨달은 것은 뜻밖에도 존재적으로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프랑스  
에서였다.

총원이 프랑스 리옹에 있는 수녀원이  
기에, 한번쯤은 원천으로의 회귀가 필  
요했고, 또 무엇보다 국제 수도회여서  
공용어인 프랑스어를 익혀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숙제였다. 마침 첫 소임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중단되면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프랑스로 가서 언어를 배우  
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새 소임으  
로 주어졌다. 영어조차 제대로 할 수 없  
는 실력에 불어라니! 떨리는 마음을 안  
고 한국 땅을 떠나면서 다시 떠올린 말  
이 아버지 신부님께서 내게 주신 필리피  
서의 말씀이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  
는 지금 첫 모국어 배우는 어린이처  
럼 하나하나의 알파벳과 단어들을 새  
로 배워가야 한다는 것, 모든 이가 나의  
스승이라는 것, 나는 지금 어른이 아니  
라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되뇌고 또 되뇌었다. 그리하  
여 지나가는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는  
단어 하나에 기쁘고, 어제까지 알아들  
지 못하던 문장 하나를 깨우치는 것에  
세상을 다 얻은 듯이 행복해하고, 내가  
하는 작은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는 사

람들의 반응에 함께 감사하면서 매일매  
일 열심히 살았다.

그런 어느 날 노인 수녀님과 산책하는  
동안 우리 수녀원에 묵으면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  
졌다. 우리 수녀님이 “이 수녀는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너무 행복  
하게 지낸다. 얼마나 상냥하고 다정다  
감한지 모른다.”며 내 칭찬을 해주셨다.  
그러자 상대 학생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  
며 “어떻게 언어가 안 되는데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는가?” 내게 물었다. 그때  
내 입에서 나간 한마디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다.”였다. 그 잠깐의 대화  
는 학생의 가웃거리리는 고갯짓으로 끝이  
나고 나는 또 내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  
을 살아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내가 알  
아듣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늘어  
나게 되면서 내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  
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  
게 되었다. 처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  
정할 때는 기쁘게 받아들였던 가르침  
도, 내 계획과 욕심이 생기게 되면서 나  
를 부르는 목소리가 나를 방해하고 불  
편하게 하는 사건과 사람들로 바뀐 것  
이다. 나를 가르쳐 주는, 내 존재가 필  
요한 자리여서 불러주는 것임에도, 내

가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게 되면서 나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한 불만, 내가 더 노력해서 나아져야 하는데 시간을 빼앗긴다는 느낌, 내 계획이 무산되는 것들에 대한 불평들이 점점 삶을 갉아 먹어갔다.

다행히 몇 달의 시간이 지나 아비뇽이라는 새로운 소임지로 이동되고 새로운 일들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내가 가졌던 불만들이 잠들게 되었다. 다시 내 머리 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잊고 있던 신부님의 그 말씀이 새로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내 어리석음의 한 단면을 떠올렸다. 그렇구나!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면서 더 이상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었다. '내 계획'이라는 것이 내 행동의 지침이 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로 불린 본래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렸다. 내가 가장 낮은 자로 있지 않을 때, 내가 점점 더 커질 때 더 이상 내 삶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느님의 부유함을 고집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가난을 살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확연히 깨달았다. 저녁 성무일도를 드릴 때 읽게 되는 필리피서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가난을 통해 참으로 겸손한 자만이 하느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매일 또다시 나를 되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지만, 내가 이미 한번 맛보았던 그 가난한 삶의 기쁨을 내 안에서 새로이 되새김하면서 살고 싶다. 그 뒤에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결과는 하느님께 맡기고... 

[세상 창조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 1-4장을 필사하시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및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묵상하신 내용을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켜 적어보십시오.]

## 소중한 나의 이웃

권수영(스콜라스티카) · 3학년

직장에 다니는 나는 병점으로 이사를 와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밥 먹고 잠이 들면 또다시 나가야 하는 아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일

엔 가족과 함께 성당에 갔다가 장보고 돌아오면 하루가 ‘획!’ 하고 지나갔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이었다.

아이들이 아픈 날이 많았다. 큰아이는 비염을 심하게 앓아서 자주 병원에 가야 했다. 갈수록 단위가 늘어가는 학생제를 먹고 아이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애간장이 녹아내렸다. 아픈 아이를 업고 출근해 사무실 한쪽에 뉘어놓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아픈 아이를 바라봐야 했던 날도 있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너무도 버거운 과제였다.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면 좋으려면 몸이 편찮으신 양가 부모님 들께는 아이를 봐주실 여력이 없었다.

성당에 가면 눈물만 나왔다. 더욱이 나는 학업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과제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곤 했다. ‘왜 나에게는 살뜰히 나의 아이를 봐주실 분이 계시지 않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일까?’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 아이들을 친절히 대해야 하는데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아이들이 버거워 아이들한테도 짜증을 냈다. 남편은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불만스러워했다. 나는 가사를 함께 분담하지 않는

남편에게 마음이 상해 있었고, 남편은 정리가 안 된 집에서 사는 일이 스트레스였다.

그러다 보니 자주 다투었다. 별것 아닌 문제로 감정이 상해서 울고, 남편과 다투는 사이 아이들은 조용히 놀다 마루에서 잠드는 날도 여러 날이 되었다. 그럴 때면 남편에 대한 원망과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나는 아이들을 마음 편히 맡길 곳이 없어 참 힘든데 가정생활까지 엉망이 되어 점점 지쳐갔다.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기도를 해도 눈물만 나오지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다.

그때 8주간 동안 성령 세미나를 한다는 포스터를 보았다. 지친 나의 마음을 내려놓을 무엇인가를 잡고 싶었다. 무엇이든 좋으니 주님께 의지해야 했다. 그때 무슨 은사를 청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주님께서 나의 짐을 털어가 주시라고만 했다. 성령 세미나를 받으면서 직장인 반모임을 알게 되어 반모임에 나갔다. 반모임을 하면서 나의 고민과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반모임이 인연이 되어 지금 아이들을 봐주시는 분도 만나게 되었다. 마음이 무척 예쁘시고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와서 편하게 지낸다. 아플 때는 병원에도 데려가시고, 맛있는 간식을 해놓고 아이들을 맞아주시는 덕분에 나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아이들도 한결 편해지고 밝아졌다.

부침개를 부쳐도 나누어 먹을 이웃이 없던 나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자매처럼 가깝게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다. 성경 공부도 소중한 이웃이 함께하자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싶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주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이 운명적인 포상에 더욱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이웃을 통해 상처를 받거나 서운할 때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자 노력해 본다. 단련의 시간, 소소한 고통을 통해 주님께서는 큰 선물을 주신다.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삶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배려이기에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주님, 소중한 이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인 탈출기 12-14장을 필사하시고, 내가 신앙을 갖기 전과 후 또는 성경 공부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진 점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적어보십시오.]

##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박명진(아가다) · 3학년

저는 1990년, 36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결혼을 하기 위해 선도 보고 소개도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회사 일에 매달려 보기도 했습니다만 뭔가 부족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 중에 하느님께서 저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처음 몇 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드디어 사단이 났고, 1998년에 이곳 일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의 광야생활이 끝난 뒤 남편(일본인)과 결혼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만하고 우월감에 차 있던 저를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어둠 속에 있던 저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어로 드리는 미사에서 복음 내용

이나 신부님의 강론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자기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한국 신부님이 계신 곳으로 미사를 드리러 갔고(차로 왕복 4시간), 2007년에 저희 성당으로 부임하셨지만, 한국어 미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뿐입니다. 한국과는 다른 환경(언어의 어려움, 한국처럼 평신도를 위한 피정이나 신심단체가 없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통해 지식을 얻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고 자신의 나쁜 습관(게으름, 시간 낭비)을 고쳐가며 삶에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신자로서 의무적인 미사 참례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해야겠다는 생각과 드러내 보이기 위한,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사랑을 담은 마음으로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의 사고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불평해 왔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

을 찾게 되었으며, '제 입을 통하여 가시 돋친 말이 나가지 않게 조심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힘든 순간이 오지만 전보다는 훨씬 인내하는 힘이 생겼고, 미사 참례와 기도로써 힘을 얻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식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신자는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하다가 그만둔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안정된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성껏 완수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남편이 교리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의 큰 축복에 감사드리며 '남편을 모든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어 당신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영세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고통도 은총이었으며 하느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함께해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드릴 일이며 이를 깨우쳐 알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느님! 하느님은 제가 기도드리기  
전부터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게 남은  
시간을 하느님께서 써주시기를 간청합  
니다. 아멘.” 

## 희망의 빛이신 말씀

효고 히토미(바울라)·3학년

나의 그리스도교 신앙은 ‘성경’에서부  
터 시작되었다. 일본의 한 시골 동네가  
나의 고향이다. 전형적인 일본 시골집이  
기에 나의 고향 집도 종교는 불교이고,  
집에는 불단(佛壇)도 있다. 그러한 집에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이 한 권 있었다.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읽으신 그 성경에  
는 빨강 색연필로 밑줄 친 구절이 많이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내가 가져왔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문제로 의무교육  
(한국과 같이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을 끝내  
신 후 기술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셨  
는데, 개신교 교회에 다니신 적이 있었  
다고 한다. 젊은 시절에 고생하신 아버  
지에게 ‘말씀’이 안식처였는지 모르겠지  
만 어린 나에게는 ‘신기한 책’이었다.

그 후 나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  
학교에 입학할 때에 용돈으로 신약성경

(시편도 수록된 것)을 샀다. 대학교 4학년  
부활절 때 개신교 교회에서 신자가 되  
었고, 2008년 12월에 시댁이 믿는 천주  
교로 개종했다. 개신교 신자 시절에 ‘말  
씀’이 나의 삶을 도와준 때가 자주 있었  
다. 그 경험은 현재 내가 ‘타향살이’를  
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  
한복음 1장 1절~4절 그리고 14절~이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  
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  
람들의 빛이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  
다.”

일본에서 개신교 신자가 되기 전에 천  
주교를 접할 기회가 있었다. 미사에도  
몇 번이나 참례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  
에는 일종의 거부감을 품었다. 그 이유  
는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미사의 내용(=  
전례) 하나하나에 관한 의미를 몰랐다

는 점도 있었다. 20년 이상 지난 후, 성당에서 교리를 공부하면서 미사에 관한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개종 후 1년 동안은 천주교에 전례시기마다 있는 일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간이었다. 1년이 지나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성경 공부'였다. 개신교 신자 시절의 경험, 자발적 학습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약속을 했다. 하나는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제출 마감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것이었다. 도중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히며 구약입문과 신약입문 과정을 마쳤다.

기도와 함께 공부하는 사이에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어려운 사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왔다. 얼마나 기쁜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에 앞으로도 기도가 필요하다.

매달 작성해야 하는 문제집, 읽어야

할 성경 본문, 기타 공부에 필요한 책을 찾아 읽는 것이 나에게 참으로 은총이 되었다. 친정에서 가져 온 '아버지의 성경'처럼 내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무엇인가 뜻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를 실감하고 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효고 씨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군요." 사실은 나 자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할 수가 있다.

'말씀은 나의 몸속에 희망의 빛으로서 늘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빛을 끄지 않도록 공부를 계속하겠다. 🍃

## 신앙이 이끌어 낸 희망

손경숙(디나) · 3학년

신앙 곧 믿음은 누구나 품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대상의 차이가 있을 뿐. 갓난아기에게는 자신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절대적 존재일 것이고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이 그것

일 것이며, 사랑에 빠진 자 역시 사랑이 믿음의 절대 대상일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 제각기 자신만의 믿음의 대상을 품고 살아간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하느님인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쉽고 빠르게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신앙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신을 평가받기 위한 학교 졸업장처럼 이용하기도 한다.

내게 있어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후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1980년대 30대 초반일 때 세례를 받았다. 어머니의 권유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세례를 받았고 열심히 살았다. 당시를 돌이켜 보면 세례 후 특별히 삶의 태도나 형태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삶의 갈피마다 사소하거나 때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고 인내와 절제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30대 후반까지 인내나 절제는 타고난 천성이라 여겼고 더욱이 성장과정에서 부모님이 덤으로 주신 근면과 성실한 자세, 긍정적 태도를 바탕으로 삶의 고비를 잘 넘기며 지내왔다. 성당에 열심히 나가 기도하며 내·외적 평화를

지켜내는 노력을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30대 후반을 넘기면서 두 가지 삶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하나는 내가 실명 위기에 놓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아온 언니가 병마와 싸우다 결국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 위기를 거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지금까지 내 천성이나 노력의 결과라고 여긴 것들,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의 딸로 태어난 것, 사랑과 우애 깊은 형제자매, 참으로 좋은 주변의 많은 친구들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깨달음이었다. 세상의 풍파 앞에서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삶의 암흑 속에서 헤맬 때 불기둥이 되어주신 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란 글에서처럼 내가 외롭고 지친 몸으로 걸어갈 때 나를 업고 함께 걸어주신 분을 만났다.

그러나 그 큰 깨달음과 새로운 삶을 얻은 후 이십 년간 나는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은 모습으로만 살지 못했다.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어느새 잊고 오만하게 굴었으며 만나는 사람들을 선하고 바르게 대하지도 못했다. 나를 우선시하는 욕심 안에서 사는 순간도 많았다. 그래서 괴로웠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증 같은 것

때문에도 괴로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면 너 무도 부족한 나, 허약하고 모자라서 늘 죄짓는 나, 그래서 힘든 나를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물을 말이다.

내게 있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내적 성장이다.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생명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장의 계단을 밟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가까운 이들 중 병마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실 병마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는 충분히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병마나 죽음의 두려움에서 탈출하여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한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시는 분 안에서.

[호세아서 1-3장과 12-14장을 필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사랑해 주신다는 체험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꼈는지에 대해 묵상하신 내용을 적어보십시오.]

##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김성희(슬란지아)·4학년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시편 139,13-14ㄱ)

벌써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줄곧 주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의 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시간은 제가 알아차린 시간이었고, 무지에서 깨어나 앎으로 바뀐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에 두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몰랐던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  
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였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생각들이 제게 얼마나 어  
렵습니까?  
그것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웅장합니  
까?”(시편 139,16-17)

제가 13년 전이라고 했지만 생각해 보  
면, 그보다 훨씬 오래 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신교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다녔어도 교회에 대해서 아  
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  
로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  
지만 언젠가는 가게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하고 서울에 올라와 살다가 21살에 찾  
아간 곳이 천호동 성당이었습니다. 신  
앙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교  
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  
니다. 웬지 교회에 열심히 다녀보고 싶  
은 생각이 들어 찾아갔습니다. 그 동네  
는 변화가에 유흥가와 가게들이 많았  
지만 찾아갈 만한 개신교회가 없었습니  
다. 눈에 띈 곳이 성당이었는데 분위기  
가 어색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교리를  
배우는 6개월 동안 열심히 성당에 다녔

습니다. 결석도 하지 않았고 청년 성가  
대에 새벽 미사까지 다니며 열심히 했  
는데 세례 받고는 그만 세상에 빠져 냉  
담자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새벽 미사에  
다닐 때 특별한 느낌을 받아 수도성소  
에 대해 잠깐 생각하기도 했지만 곧 필  
적 뛰며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하고 싶은 것을 다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신앙을 만나  
23살에 결혼을 하고 세 아이 낳고 살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것이 제  
힘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어려  
움을 당하면 당연한 것으로 잘 받아들  
이며 살아가는 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던 해부터 죽을 고비를 넘겼고,  
고등학교 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우  
울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빛에 쫓겨 서울로 도망치듯 오셨기 때문  
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와서 야간  
대학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어야 했  
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을 만났는데 양  
쪽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신앙은  
화가를 지망하는 순수한 대학생이었습  
니다. 군대를 막 제대하고 4학년에 복학  
한 학생 신분이었고 저는 나이는 어렸지

만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일찍 결혼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였고, 제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참으로 암담했을 텐데 아무런 문제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이란 것을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결혼하면서 모든 일이 잘되어 가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내 집도 마련했고 아이들도 태어났으며 남편은 더욱 발전하여 대학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이 아닌 작더라도 내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IMF 바람이 불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권고받던 차라 잘되었다 싶어 15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습니다. 문득 세례를 받고 너무 오랫동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동안 저는 가족들과 재미있게 사느라 저의 집 가까이에 성당이 있는지조차 몰랐고, 가끔 남편 따라 절에 가고, 작명소에 가서 아이들 이름까지 짓고 미래를

점검해보기도 하면서 제가 잘해서 잘되는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잘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난, 그때가 1998년도 2월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세상에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심을 보여주시며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비참한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땀 흘리시는 예수님을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는 나 말고 다른 신을 알아서는 안 된다.

나밖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

바로 내가 저 광야에서,

저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내가 먹여주자 그들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자 마음이 우쭐해져

나를 잊어버렸다.”(호세 13,4-6)

그 후 저와 저의 집안에 많은 일이 일

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 제 정신이 아니어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시부모님마저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년도 채 안 되어 세 차례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세 아 이와 저만 암담한 현실 앞에 남겨졌습니다.

이런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몹시 안타까워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면 적어도 주일미사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나의 주님’이라 불렀던 것은 아닌가?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셨건만 다른 바알을 숭상하며 ‘나의 하느님’이

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무지의 힘이 이렇게 컸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나 주님께서서는 나의 남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남편, 나의 사랑이 되어주셨고,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13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에겐 큰 불행이었지만 주님께서서는 그 큰 슬픔을 무사히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그 무엇보다 값진 기쁨입니다. 🍃



## 삶을 향하여

[오늘날 나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유배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할 참 회개란 어떤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십시오.]

### 내면의 나와 마주하기

이은경(로사리아)·1학년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과 좋지 않은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지른 죄와 역겨운 짓 때문에 자신이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겨라.”(에제 36,31-32)

찬찬히 곱씹어 생각해 보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은 운이 좋지 않아서라거나 세상살이가 팍팍해서 만든 아닐 것이다. 결국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인식의 문제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 지금, 당장의

자기밖에 보지 못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로부터 비롯된 크고 작은 일에 대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 그리고 상황 탓으로 모든 걸 돌리기 일쑤다. 참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나 자신에 대해 꼼꼼이 생각해 보고 내 안의 나와 마주해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내면 깊숙이, 마음의 끝자리까지 진지하게 나를 돌아봐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도 없고, 성찰도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일 뿐이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나면 뭔가 정결해지는 들지 않을까. 그 뒤로 밀려드는 부끄러움과 씩씩한 후회가 인간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계속해서 보잘것 없는 못난 인간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을까. 얼마 전부터 나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의 주님! 제 잘못을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잘못을 깨닫기 전에 인간적 욕심이 앞서 주님께 청원기도만 했다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워졌다. 정작 하느님이 원하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일을 마치 주님이 내 청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공손히 다가가야겠다.

##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김유진(크리스티나) · 1학년

오랜 세월 산 것은 아니지만 살수록 '이 세상은 참으로 살 만하다.'는 말보다 '세상 살기 정말 어렵다.' 또는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을 더 자주 듣게 된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 부익부 빈익빈 등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로 인해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도 이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나눔을 실천하는 삶보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부터 잘살고자 성공이나 부와 명예를 좇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인다. 내 삶의 주인이 '하느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며 사회적 인습만을 따르는 순간 유배생활이 시작된다고 본다.

원래 '회개'라는 히브리말의 어원은 '거슬러 올라가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설정하다.'라고 한다.(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어원을 들으니 회개는 단순히 개인적 삶의 반성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다. 우리의 유배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나 자신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건인 '하느님 사랑'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각박하다고만 느껴지는 현실의 유배생활을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들의 온갖 판단과 미움을 두려워하는 유배생활에서 벗어나려면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나의 고집이나 욕심에 사로잡혀 돌 같이 완고해진 마음보다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유연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살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길을 닦는 고통의 십자가도 자연스럽게 끌어안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 겸손한 마음

안조영(다니엘) · 1학년

지금 나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질병들, 곧 이기심, 질투,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는 것 등

자신 안에 갇혀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 상태가 또 다른 이름의 유배생활이 아닌가 싶다.

지금의 문화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재촉하고 있다. 성의 문란, 낙태와 이혼, 그로 인한 가정 파괴, 물질 숭배, 기술과학의 신격화 등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느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나의 인생하고는 무관한 하느님이라고. 이러한 가운데 참 회개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일은 나 자신의 죄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할 참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겸손되이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열고 내 안에서 참 회개의 열정이 일어나도록 불가능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

성령님, 제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

다운 그 일에 도구로 쓰이게 하소서. 아멘.

## 텔레비전 덜 보기

김지희(스텔라)·1학년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조종하고 빠지게 만들어 하느님을 멀리하게 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유배생활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 영적 삶에 도움을 주는 책을 본다거나 평화방송을 선택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겨라.”(에제 36,32) 하신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주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지 못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지냈는데, 이런 나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회개라고 생각한다.

## 환경 십계명 실천하기

이재선(안나) · 1학년

얼마 전 황창현 신부님의 환경 에세이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지, 또 내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활 습관을 조금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싱크대 옆에 환경 십계명을 적어 놓고 설거지할 때마다 읽어봅니다. 수도물 아껴 쓰기, 세제 적게 사용하기, 휴지 아껴 쓰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배웠기에 의식 없이 사용하다가 환경 십계명을 보면서 다시 의식하곤 합니다.

요즘 눈이 많이 불편합니다. 2년 전부터 안구건조증으로 눈이 불편해 유명하다는 병원에 다 가보았지만 고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안구건조증이 왔을까 생각해 보니 알겠더군요. 매사 기다릴 줄 모르는 급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이든 빨리 해야 한다는 부담감, 아이들 학습이나 집안 살림에서 ‘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로 인해 항상 긴장

해 있고, 자신을 쉬게 해주지 않았습다. 기도도 숙제처럼 여기고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중에 항상 기도하는 오빠에게는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고 했더니, 저보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 생활 습관을 모두 바꾸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욕심·걱정·불안·부모로서의 의무에서 힘을 빼기 위해 주님의 은총을 청하고 있습니다.

[정신적·물질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 손님을 맞이하듯이

김미자(루치아) · 2학년

저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병원에서 동생을 간병하고 있습니다. 이곳 환자 중의 80~90% 이상이 정신과 또는 신경과 치료를 병행하는데 그들의 증상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고 같이 웃고 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6인실에 보호자까지 같이 지내게 되

면 10명이 넘는 인원이 24시간 같은 방에서 부대끼며 살게 됩니다. 텔레비전 채널 때문에, 냉장고 사용 때문에, 침대 자리 확보 때문에 매일 매일 참으로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유동식 환자의 보호자들은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 냉동실에 얼려놓았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여야 하기에 밥과 반찬이 냉장고 한구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서로 갈등이 생겨 말다툼을 하게 되면 “퇴원하면 되니까 며칠만 참아야지.”, “이 병원에 다시 오나 봐라.” 하지만 장기 입원 환자 가족들은 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일 년 365일 동안 손님을 맞이하고 떠나보내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반갑게 맞이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라도 참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는 잘 가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때 옆 침대 환자들이 떨어주는 밥을 모았다가 집에 갈 수 없는 보호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장기 환자 보호자들한테는 밥이 보약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아침기도, 저녁기도를 바치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자주 화살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코헬렛의 체험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코헬렛의 체험과 비슷한 나의 체험 하나를 적어보십시오.]

## 모든 것은 하느님 손 안에

문정인(체칠리아) · 4학년

코헬 3,1-15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그러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3,1)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계획에 나를 맡겨야 함을 알지만 나의 약한 인간 조건으로 자주 잊어버리게 된다. 고통과 시련 안에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우를 자주 범하는 것이다. 하느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 계획이 온전한 것이고 내 결정이 최선의 선택임을 확인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느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런 나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일을 하신다. 하느님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나 중심주의’로 움직여지고 있을 때, 나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고 내 결정이 실수로 드

러나 버릴 때, 그래서 실패한 기분에 휩싸이고 좌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꿈꿈 앓게 될 때, 그때 하느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고, 나의 교만과 그분의 겸손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의 이 모든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받아주시는 하느님,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믿으며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나와 하느님의 관계는 이렇게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나는 나의 죄와 약함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느님을 체

험했다. 모든 계획과 모든 사건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나는 더욱 더 인식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3,117) 나에게 대한 계획도 그러하실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선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귀한 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더 깊이 뿌리내리며 살아가는 것, 그 안에 나의 참 행복이 있다.

#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과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에 대한 고찰

김용석(자선 토마스) 수사

## 목 차

국문 개요	26
I. 서론	27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29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9
II. 본론	31
제1장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	31
제1절 십자가 신학의 원천	32
제2절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실적 의미	33
제3절 사도 바오로가 보는 그리스도	36
제4절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 고백	39
제5절 십자가의 복음선포	45
제2장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	51
제1절 생애	52
제2절 스승 예수 신심	53
제3절 사도의 모후 신심	62
제4절 성 바오로 신심	65
제3장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과 복자 알베리오네 스승 예수 영성의 종합	67
제1절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의 특징	67
제2절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의 특징	70
제3절 십자가 신학과 스승 예수 영성의 관련성	74
III. 결론	78
〈참고문헌〉	81

\* 김용석 수사님은 1998년 통신성서 공부를 시작한 후 수도성소를 받아 성바오로수도회에 입회했고, 2012년에 부제서품을 받았다.

## 국문 개요

오늘날 진정한 복음선포가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가라는 물음과 직결된다. 이 물음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예수님이 계셔도 구원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소홀히 하고 성전을 간소화하는 실용주의적 사고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의식구조가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느님 체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신비롭고 거룩하신 분을 향한 경외심을 무너뜨린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은 하느님 인식에 명료함을 더해주고,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은 하느님 체험에 지속성을 더해준다.

사도 바오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체험을 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신학적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나누어짐과 일체됨에 있다. 그분의 신성은 세상 창조주로서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그분의 인성은 유대인으로서 메시아 대망을 성취하신 분이셨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 그가 체험한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며 참 사람으로서 그 자신에게 온

\* 지면 관계상 각주를 생략합니다.

전히 수용되신 하느님이시다. 그 일련의 수용은 전승 - 고난 - 그리스도 - 고백 - 선포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오로의 하느님 체험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속적인 양성의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 체험의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가 아니라 하느님 체험 후 지속적으로 양성되어가는 '그리스도화'에 있다. 사도 바오로는 그 지속의 과정을 고난으로 채워 넣었다.

복자 알베리오네도 스승 예수 영성의 성부를 닮는 여정에서 지성의 성화로 이미 '강생'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여기서 성부 하느님 앞에서 인간인 자신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정화의 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겸손 - 봉사 - 양육 - 결심 - 묵상 - 회심 - 자기진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도록 한다. 이 성부를 닮는 여정은 인간의 회심이 전제되며 이에 따른 하느님의 자비로 '재창조'에 도달한다. 하지만 복자 알베리오네는 계속해서 성자와 성령을 닮는 여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속적인 면학과 신심업, 그리고 이웃사랑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적인 양성이 된다.

그런데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있어서 하느님 체험은 전적으로 말씀과 교도권에 근원한다. 이 원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래서 복

자 알베리오네에게 말씀으로 지성의 성화를, 교도권과의 일치로 친교를 살아가는 것은 세례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화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신앙과 삶의 괴리를 극복해 준다.

## I. 서론

현대는 물질·경제적 삶이 윤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공황과 정서적 공허로 인하여 영혼의 메마름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 영혼의 메마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경의 가르침과 성사적 표징들을 한낱 휴지조각처럼 가볍게 치부(置簿)해 버리는 경향을 낳았다. 특히 사회홍보수단의 지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경박스럽고 산만한 믿음으로 변질되었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서슴없이 신심의 깊이를 매몰해 버렸다. 이에 더해 상업적으로 제작된 사회홍보수단의 이상 속에 자신을 투사하여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찾을 기회는 점점 더 희박해지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그리스도 상실과 자아 상실은 점차 신앙인들의 궁극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을 시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느님을 상실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 인간 실존을 가능케 하는 길로서 신앙을 다시금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소중함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 체험’을 원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난감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체험을 하기에 앞서 어떤 확실한 출발점을 찾는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

사도 바오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 십자가는 인류 역사 속에서 근본적으로 첫째 자리였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의 개인적인 십자가 체험 속에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적으로서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박해했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회심한(사도 9장) 이후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1코린 1,2-3) 이 체험을 시작으로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시작된다. 하지만 여기서 그리스도 체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현실적인 ‘고통 체험’과 상통한다. 이 고통 체험은 하느님 안에서 고통의 부재라는 개념을 타파한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살기 위하여 패배하셨다는 것은 현대의 논리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보기에 약점인 것 같은 방법과 도구들을 선용하신다. 그리

스도의 고통의 십자가는 한편으로 인간의 약함을 드러내고, 다른 편으로는 하느님의 참된 힘, 곧 조건 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이 완전한 무상의 사랑인 참된 지혜가 십자가로 드러난다. 이것을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자신의 선포여행의 모든 여정 안에서 증언하였다. 사도 바오로는 그 고통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통에만 국한시키지 않았고 인간-그리스도-하느님이라는 고통의 노선을 연결 지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의 관계, 그리스도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깝게 체감된다. 또한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체험의 중요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스도'를 인간이요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에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 하였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의 복음선포에는 몇 가지 독특함이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또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당대 여느 사도들과 같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데 서간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즉 그 시대에 주로 통용되던 서간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파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그 사회에서 가장 긴요하게 사용되는 홍보수단을 복음을 전하는 데 활용했다는 점은 오늘날 복음선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홍보

수단이 급격히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두고 그 시대에 민감한 사회홍보수단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기를 열망한 또 다른 인물이 오늘날에는 없을까? 있다면 누구일까?

복자 알베리오네는 그의 전 생애를 스승 예수를 닮기 위해서 투신했다. 그가 닮고자 노력했던 스승 예수님은 사도 바오로가 죽기까지 따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결코 다르지 않다. 오늘날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도 바오로 시대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닮는 것에 버금가는 고난을 감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정신과 의지와 마음을 다하여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은 이 시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복자 알베리오네 또한 사회홍보수단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다. 그는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회홍보수단을 사용하여 복음이 선포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가톨릭 조직을 구상했는데 곧 성 바오로의 정신을 지닌 수도회가 탄생했다. 성바오로수도회를 창립한 복자 알베리오네는 회원들이 스승 예수의 영성을 지니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랐다.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은 길·진리·생명이신 스승 예수님을 살고 전하는 것이다. 여기서 복자 알베리오네가 말하는

‘스승 예수를 산다.’는 것은 알베리오네 영성의 핵심이다. 물론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라는 말은 요한복음 저자의 성경 본문(13,14; 14,6)을 따르지만 그 스승을 닮아가는 여정에 있어서는 사도 바오로가 살았던 방식(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을 수용한다.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그리스도를 스승 예수로 살고 전한다는 것은 스승 예수님이 내 안에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인간 종속적인 수용 차원을 넘어선다. 우주적으로 온 세상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한 인간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자 알베리오네는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에서 스승 예수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승 예수 신심’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주도권은 인간이 아니라 스승 예수님에게 있다.

## 1.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렇다면 어떻게 스승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관해 필자는 먼저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나와 이웃을 하나로 모아들이는 사랑의 구심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가르침’(1코린 1,18-28)에 있다고 역설한 사도 바오로의 첫째 삶은 어디까지나 십

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에서 스승 예수 신심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를 묻는 것이다. 그는 수도회를 창립할 때 ‘성 바오로’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의 영성에 있어서는 ‘스승 예수 신심’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성바오로수도회를 창립한 분은 자신이 아니라 사도 바오로가 유일한 창립자라고 가르쳤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필자는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마르 16,15)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신학과 영성을 찾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작업은 우선 사도 바오로와 복자 알베리오네의 개별적 연구와 두 인물의 종합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1장은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을 다루겠다.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을 전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그닐카(Joachim Gnilka)의 『바울로』 *Paulus von Tarsus Apostel und Zeuge*, Freiburg im Breisgau 1996는 기본 텍스트가 되며, 각 장의 주제에 따라 던(James D.G. Dunn)의 『바울 신학』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Wm. B. Eerdmans Publishing 1998에 수록된 자료들을 검토 인용할 것이다.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의 연구 범위는 가급적이면 바

오로 친서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전개 하되 복음 선포여행을 다룸에 있어서는 사도행전의 여행 경로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의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사도 바오로가 회심한 이후부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마스쿠스 사건 이후 첫 복음선포를 시작하던 시기부터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전개 방식은 전승, 고난, 그리스도, 고백, 선포의 다섯 가지 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전승'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전한 십자가 복음을 누구로부터 전수받았는지를 알아보겠다. 둘째 사도 바오로가 이해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갖는 현실적인 의미를 성부의 시각으로, 성자의 시각으로, 또한 사도 바오로의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그리스도'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론은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넷째 '고백'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그의 서간 전체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선포'에서는 사도 바오로의 3차례에 걸친 선포여행을 예수님의 십자가길을 따른 여정의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2장은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으로서 '스승 예수', '사도의 모후', '성 바오로' 신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신심 중에서 스승 예수 신심은 나머지 두 가지 신심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의 핵심이자 전체가

될 '스승 예수 신심'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의 정신을 이어받은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의 연구 범위는 그의 저서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에서 드러난 '스승 예수를 닮음'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어떻게 사도 바오로의 신학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범위에 국한시켜 진술할 것이다.

작업 과정을 열거하자면 복자 알베리오네의 간략한 생애를 살펴보고 그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그가 수용한 스승 예수 신심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어서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신심을 '성부를 닮는 여정', '성자를 닮는 여정', '성령을 닮는 여정'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런 다음 사도의 모후 신심과 성 바오로 신심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끝으로 제3장에서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과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을 종합하도록 하겠다. 두 인물의 종합 작업은 각각의 해당 주제별 네 가지 측면에 의거하여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과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의 상호 연결점을 찾도록 시도하겠다.

## II. 본 론

### 제1장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

그리스도 신앙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 노선을 따라 전개되어 왔다. 그 중 하나는 ‘강생신학(降生神學)’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신학’이다. 전자는 ‘존재’에 관해 말하고 후자는 ‘사건’에 관하여 말한다. 강생신학은 인간이 신으로 존재하며 아울러 신이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삼는다. 그런데 인간과 신의 합일, 신의 인화(人化)라는 사건 앞에서 이에 따른 모든 사건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과 인간의 합일은 인간 구원의 궁극적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반면 십자가 신학은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주님이며 희망으로 보여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 말한다. 강생신학에 비해 십자가 신학은 동적·현실적이며 세계 비판적인 그리스도 사상으로 이끈다. 이때 십자가 신학의 가장 근원적인 비판력은 인간의 자부(自負)와 자신(自信)을 깨뜨리며 우리를 신 문제 전체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한편 그로 인해 ‘그리스도교가 궁극적으로 어떤 신에 근원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느님인가?’ 하는 물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최근까지 이러한 십자가 신학은 주로 J. Moltmann을 비롯하여 E. Jünger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십자가

신학의 선구자로 확인되는 인물은 마땅히 사도 바오로이다.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은 그의 서간 전반에 걸쳐 투영되는데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끔찍한 죽음과 관련된 십자가 사건을 구원사건과 연결시켰고, 아울러 초대 교회의 신학을 표현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theologia crucis)으로 발전시켰다. 어휘 사용 횟수만 보더라도 사도 바오로가 십자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십자가’ 혹은 이와 관련된 단어는 바오로 서간 가운데 명사(σταυρός)로 10번 나타나고, 동사의 형태로도 10번 사용된다. 즉 네 복음서의 수난 이야기와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제외하면 ‘십자가’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사도 바오로와 바오로 서간에 유보된 셈이다.

실제로 사도 바오로는 십자가라는 개념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과정과 이에 더해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신 하느님의 구원사건을 나타내는 신학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은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을 결정짓는 핵심 주제로서 자리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우리말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에게서는 ‘달궂지 않은 주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은

우리의 신학적 맥락 안에서 여전히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보다 영광과 축복에 더 목말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영광과 축복보다 고난이 더 직접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 십자가 신학은 어디에 근원하는가?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가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며, 자신의 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사도는 어떻게 하였는가? 이 질문들은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론을 이해하는 다양한 내용에 직결되어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을 형성한다.

### 제절 십자가 신학의 원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하느님의 구속 사건으로 인식하고, 죄인으로 선고되었던 인간을 그리스도로 증거함으로써 십자가 신학으로 발전시킨 최초의 인물은 사도 바오로라고 말할 수 있다. 초대 교회 가운데 십자가 신학에 관한 진술을 한 최초의 증인이 다름 아닌 사도 바오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을 증거하고 또 무엇을 증인

이 된다는 것은 역사적 토대를 필요로 한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은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을 지키는 일에 특히 열심했다(갈라 1,14)고 말한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부터 전승과 친숙했고, 또 그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 공동체에 말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교 전승이 아니라 유대교 전승이었다. 그리스도교 전승은 코린토 전서에만 명시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코린토 공동체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관해서 사도 바오로는 주님의 성찬인 코린토 전서 11장과 신앙 고백문의 핵심인 15장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전승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는 주님께에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11,23)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15,3)

여기서 ‘전해 받다’(παράλαμβάνω)와 ‘전해 주다’(παράδιδωμι)는 사도 바오로가 전승의 맥락 안에 수용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낱말들이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교회 설립 당시 자기에게 전해 내려온 복음에 관한 전승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코린토 전서 11장과 15장 사이에는 다른 점도 있는데 코린토 전서 15장에서 ‘전해 받다’와 ‘전해 주다’의 순서가 바뀐 것이다. 하지만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 전승

을 가장 중심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핵심적 의미는 바뀌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식적 표현들은 랍비-유다교의 전승적 표현들에 의지하고 있다고도 본다. 하지만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갈라 1,11-12) 하는 것은 염두에 둘 만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는 전승의 사용에 있어서 만큼은 여타 사도들과 함께 동등하다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여하튼 주님의 성찬 전승(1코린 15장)에 관해 사도 바오로는 그것을 주님께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으로 전승 텍스트를 현양되신 주님께 직접 전해 받았다고 암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전승으로 말미암아 지상 예수님에게로 고양됨을 말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전승을 주님께 받았다는 사도 바오로의 말에서, 객관적으로 전해져 온 것을 사도로 하여금 권위 있게 해석하도록 해주시는 현양되신 분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전승의 범위에 있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나, 인용되고 있는 전승의 내용은 대체로 3절 후반부터 5절까지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사도 바오로는 이 본문의 3절 후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라고만 고백하지 십자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도 바오로는 이 전승들을 수용하여 자신의 십자가 신학의 토대 위에 세웠고 복음선포의 증언 양식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의 원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기원한다.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근본적으로 첫째 자리였고, 그의 신학에서 초점이자 ‘그리스도적 믿음의 근원’인 것이다.

## 제2절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실적 의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 초대 교회 그리스도론의 중심적인 문제였다면, 그 속에는 양성론(兩性論)의 두 본성이 양립하였다. 그 당시의 신학적 사고는 하느님 자신을 예수님의 고난 및 죽음과 동일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하여 초대 그리스도론은 가현설(假顯說)의 경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견해인 철학적인 하느님의 개념으로부터 양성론은 형성되었다. 즉 하느님의 존재는 불후(不朽)하고, 변함이 없으며, 나누어질 수 없고, 고통을 받을 수 없으며, 영원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존재는 무상하고, 변화하며, 나누어질 수 있으며,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사멸적이게 된

다. 이와 같은 구도로 초대 그리스도교의 고통 문제는 제기되었고, 수난 당하신 그리스도가 지닌 두 본성(신성과 인성)의 통일 차원에서 그리스도론은 양성론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은 예수님의 고난을 성부께로 부연(敷衍)시켜 수용하는 차원에서 독특함을 지닌다.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1장 24절에서 *παρέδωκεν*을 부정적, 소극적 의미로 쓴 것은 신앙 없는 인간들이 하느님을 저버리는 사실을 제시하면서이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παρέδωκεν*이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도입한다. 즉 예수님이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건을 예수님의 생애라는 역사적 맥락에다 두지 않고 신앙이라는 종말론적 맥락에다 맞추어 넣었다.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로마 8,32)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성부께 버림받았다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사도 바오로는 성부께서 ‘신앙이 없는’ 인간들이 하느님을 저버림으로써 하느님께 버림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성자를 ‘내어주심’(hand over 넘겨주심: *παρέδωκεν*), 또는 종말론적 유기(遺棄: Eschatological abandonment)를 미리 포착한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이 ‘당신의 친아들을 내어주셨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성자가 버림받은 사건을 성부께로 연장

한다. 또한 갈라 2,20의 *παρέδωκεν*을 주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주어(主語)로 사용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말한다. 즉 성자도 자신을 내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오로는 두분의 뜻이 본래는 완전히 별개의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처지를 놓고 성자의 *παρέδωκεν*의 사건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성자가 받은 고난이 성부에게까지 부연(敷衍)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편에서 볼 때, 성부께서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괴로움 속에서 당신 성자의 죽음을 ‘겪으신’ 것이다. 즉 성자는 성부께 ‘버림받으셨고’, 성부께서는 당신이 아들을 버리신다는 그 괴로움을 아들로부터 받으셨다.

성부와 마찬가지로 성자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분명히 인간의 죄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1코린 15,3) 여기서 ‘때문에’(ὕπερ)는 이중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를 ‘대신하여’로 대속(代贖)사상을 감지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죄를 기워 ‘갚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속량(贖良)사상을 감지할 수 있다. 즉 이 주제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죽음’(1코린 15,22)으로 환

기시킨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2코린 5,14) 이를 통해서 사도 바오로가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 공헌하는 것 없이 거저 주어지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열려 있고(로마 3,24),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수행하기 전에 주어지는 것이다.(로마 5,6)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질문이란 관점 아래서 본다면 십자가로부터 참된 인간은 언제나 죄인이고 가장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한 무한 거리를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극복할 수 없는 한 지체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죄는 그리스도의 현실적 고난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효력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 바오로도 스스로 고난과 모욕을 참고 견뎠다. 왜 그랬을까? 사도 바오로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당연한 결과였지만 예수님 처럼 대리속죄로서의 죽음 안에서 인간의 죄를 보상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지도 않았다. 사도 바오로가 고난을 받았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1코린 1,17-) 사도가 전한 복음은 연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고난은 내세에서가 아니라 현세의 특징(1코린 15,30-32)임을 말해 주려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이 자신을 초월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데 효력을 내고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신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찬양을 자기의 힘으로 모두 유지할 수 있다는 인간의 환상을 폭로하는 것으로써 그들에게 걸림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받았던 고난의 또 다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간을 살리셨듯이 사도 바오로는 자신에게는 “죽음이 약동하고 여러분에게서는 생명이 약동한다.”(2코린 4,12)고 말한다. 즉 예수님께서 생명을 인간들에게 전하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오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도 바오로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파생된 사랑의 당연한 결과가 된다.

결국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사건을 다루는 고난을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달하는 인류 구원의 수단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사도 바오로 자신에게도 부가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의 당연한 결과였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신

학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현실적 고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예수님의 최후의 결정적인 사건을 둘러싼 순간 이외에는 예수님의 생애 및 전교활동에 관하여 거의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 것이다.

### 제3절 사도 바오로가 보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즉 사도 바오로가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여기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사도 바오로의 예수님 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하느님의 모습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인간의 모습이다. 사도 바오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그분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성적 차원에서 정립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은총의 체험의 결과이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간 존재의 완전한 모델을 발견했기에 인간 구원에 결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차원을 설명한다.

#### 1.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하느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느님이시라고 명시적으로 나타나는(사도 바오로의 직접적인 구

절)은 단 두 곳이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로마 9,5),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티토 2,13) 물론 티토서에 관해서는 친서인지 혹은 사도 바오로의 표현을 그대로 전해 주는 것인지의 문제가 남겠지만 초대 교회가 사도를 알고 전해 주었듯이 여기서는 교회가 전해 주는 사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로마서 9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느님으로 정의된다. 앞 구절(8,38-9,5)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하느님 사랑의 원천인 만물의 권세가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며, 육으로는 이스라엘 조상에게서 태어났지만 하느님과 같은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θεός는 정관사 ὁ가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신약성경(BGT, BYZ)에서 정관사 ὁ가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θεός는 다섯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하느님(ὁ θεός)을 지칭한다. 이 하느님(ὁ θεός)은 성경본문에서 창조자이신 하느님(마르 13,19), 예수 그리스도를 파견하신 하느님(요한 17,3),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로마 15,6)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이란 단어 앞에 고유한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부른 구절이 그의 서간에 두 곳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그의 친서로 구분하는 로마서에서 단 한 차례만이 언급되고 있는 것에 관해 학자들의 견해는 문학비평주의적으로 해석하기를 선

호한다. 특히 케제만(E. Käsemann)은 일반적인 헬라계 그리스도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선재하는 천상적 존재(필리 2,6의 하느님과 동등함 *ἰσα θεῶ*)로는 가능하지만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하느님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는데 무게를 실는다. 그리고 던(J. Dunn)의 경우도 케제만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사실적인 차원이 아닌 문체 비판의 관점에서 유추한 해석이기에 종합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객관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는 바리사이였을 때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나 여전히 유일신을 믿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유일신 사상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이다. 사도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이 유일신 사상이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처럼 다른 두 위격을 배제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세 위격이 한 하느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그리스도교적 유일신 사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느님이시라고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사도가 그의 서간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하느님과 같은 신분임을 암시적으로 밝힌 흔적들이 많이 있다. 그날카에 의하면 필리 2,6-11의 찬가에서 사도 바오로는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느

님으로서 창조에 함께했다고 본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본문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고양되신 예수님에게 주님이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그래서 이 이름은 다른 어떤 이름도 능가하는 이름이 되었고 마침내 이것은 하느님의 이름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다.’(6절)고 할 때 그 ‘모습’은 인간처럼 단지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신이신 하느님의 상태와 동등한 신분임을 말하는 것이다. 또 이와 비슷한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오로는 다음과 같은 신앙정식을 개진한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1코린 8,6) 즉 한 분이신 하느님께 대한 유일신 신앙고백과 나란히 사도 바오로는 세상 창조에 함께하신 예수님은 인간이 육안이나 어떤 감각 기능으로 알아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으로서, 이를테면 하느님으로부터 보편적 권능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사도 바오로의 이러한 신학적 정식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필리 2,8)하신 ‘하느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 2.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인간의 모습

사도 바오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곧 아드님에 대한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갈라 4,4)고 말한다.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으로 출생하셨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아드님이란 말은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것은 로마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로마 1,3-4) “할례 받은 이들의 종이 되셨습니다.”(로마 15,8) 여기서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유대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사실이다. 유대인만큼 비타협적인 유대교의 유일신론으로 하느님과 인간을 철저히 분리해서 이해한 민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유대인이었다고 단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을 성취하셨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과의 연속성만이 아니라 인류(아담) 전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도 바오로에게 예수님의 인간성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

상태를 조명해 주는 성경의 창조 기사(창세 1,26-27; 2,7,18-25)의 내용에 의해 규정된다. 창조 기사에 따르면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다. 그런데 신약성경의 저자 가운데 사도 바오로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1코린 15,45-49)이란 용어로 설명하고 첫 인간 아담(창세 2-3장)과 마지막 아담을 대립적인 관계로 비교한다.(로마 5,12-21) 즉 아담과 그리스도는 둘다 시초자이고 주도자이다. 사도 바오로는 전자는 죽음에 빠진 인류의 모델이 되고, 후자는 의와 생명을 위해 해방된 인류의 구원자로서 서로 비교하고 동시에 상반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본문에 의하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유사점’에 비해 ‘대립되는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코린토 전서 15장에서 인간 창조에 관해 언급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명백히 대립되는 비교를 통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죽은 이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코린토 교회의 교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부활을 부정하면서 십자가도 거부하도록 교우들을 선동하는 이들에 맞서 사도 바오로는 인간 현세 실존의 덧없고, 무력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처지를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마지막 아담’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립적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오로가 말하려는 것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개인을 넘어서, 민

죽을 넘어서 인류의 우주적 화해를 도출해 내기 위한 온전한 인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그리스도론적 윤곽을 잡아보자면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모든 이들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속죄와 화해의 종말론적 완수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이미 인용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듯이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의 주된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인간이시며 주님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오로가 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화해자로서 요약된다. 즉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하느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 인간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 제4절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 고백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 십자가 신학의 토대로서 사도 바오로의 신학적 사변이 어디

에서 그 원천이 되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인류 구원자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론 안에 정립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론 안에 함의된 그리스도 고백을 그의 몇몇 서간의 주요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 본문들을 통해서 왜 사도 바오로가 그토록 십자가 신학을 강조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1. 그리스도의 복음(1코린 15,3ㄴ-5)

사도 바오로의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짧은 세 단락(1코린 15,3ㄴ-4)으로 요약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그날카에 의하면 1코린 15,3ㄴ-4의 신앙 정식은 매우 오래되었고 본래 두 개의 신앙 고백으로 각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독립된 신조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신앙 정식의 가장 오래된 형태에는 아직 그리스도론적 존칭이 들어 있지 않았고, 단순히 ‘그분’이라고만 기술된다. 하지만 나중에 이러한 신앙정식은 그리스도 칭호 외에 ‘주님’(Kyrios)으로 결합된다.

사도 바오로는 이 복음을 코린토 공동체

에 무엇보다 먼저 선포했고(3절-), 공동체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위의 내용을 문장으로 나눈다면 ‘그리고’(καί)라는 말에 의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이 복음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됨을 알 수 있다. 그날카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바탕하여 신학적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들을 위해 대신 일어났고, 그분의 부활은 사흘날에 이루어져야 하니, 사흘날은 하느님이 구원하려 개입하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카는 사도 바오로가 받아들여서 전한 복음을 ‘그리스도’의 칭호로 요약한다. 그 이유를 사도 바오로가 의식적으로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데서 찾는다. 사도 바오로가 그의 서간에서 많은 부분 그리스도 칭호를 의식적으로 도입하고 그 메시아적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데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칭호는 사도 바오로가 전한 복음의 중심 칭호로 자리매김한다. 더 나아가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 칭호의 사용은 코린토 전서 15장 3절 이외에도 그분의 구원 업적을 언급하는 구절들과 그가 쓴 편지의 거의 모든 인사말에서 그리스도 칭호를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오로의 이러한 그리스도 칭호를 고수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그리

스도(메시아)에게 사로잡히고 불리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 후손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공동체에서는 주님(퀴리오스) 칭호가 그리스도 칭호보다 한층 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 2.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필리 2,6-11)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영난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찬가’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고양되신 예수님에게 ‘주님’이라는 칭호를 내리셨다. 그런데 그리스도론적으로 이 ‘주님’이라는 칭호에는 몇 가지 강조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하느님에 의해 받

생하는 높임이 그분의 낮춤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으로서 제시된다. 여기서 최상급과 동등하게 쓰인 ὑπερφουῶν(높이 올리우다)은 70인역에서는 하느님(YHWH)에게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ὑπέρ는 ἐχαρίσατο(선사하셨다)와 더불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으로 수여된다. 그리스도에게 수여된 이 은혜(χάρις)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모든 것 위에 솟아 오른 그분의 주권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그분의 이름은 '주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이라는 칭호는 구약성경의 인 용과 더불어 구약의 하느님 이름과 대등하게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주님'(Kyrios)이라는 칭호가 이미 유대인들의 분파들 속에서는 하느님(YHWH)을 지칭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70인역에서는 오직 히브리어 YHWH만이 Kyrios로 번역되었다. 던은 로마 10,9-13에 근거하여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론에서 하느님(YHWH)을 가리키는 Kyrios가 일부에서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제 주 예수님은 주 하느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던은 필리피인들에게 보낸 서간의 찬가(2,6-11)는 하느님께만 드려야 하는 찬미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그닐카는 이 찬가를 '내림'과 '올림'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 찬가에 따르

면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느님께서는 그분에게 어느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내리셨다. 그래서 고양되신 예수님은 주님으로서 하느님의 지위를 얻었다. 그리고 그분은 삼라만상을 평정하고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또한 그닐카는 이 찬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며 다른 어떤 이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 찬가의 관심이 하느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집중하기보다 그곳으로부터 활동해 들어오는 사건에 주안점을 두고 해석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ἐν μορφῇ θεοῦ(하느님의 모습, 현존방식)으로 계셨다는 서술에 관해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찬가의 의도를 단지 μορφῇ θεοῦ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 모습의 외관상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려 한다면 이는 찬가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그닐카는 벵(J. Behm)이 70인역의 μορφῇ 이해를 필리 2,6에 전가시켜서 여기서도 신적 존재양식의 가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며 이에 더하여 이 가시적인 신적 존재양식의 모습을 세론화하여 μορφῇ를 해석함으로써 δόξα와 동일시켰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닐카는 Barth의 해석에 지지하

면서 ἐν μορφῇ θεοῦ는 나타남에서 볼 때, 그리고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때 ‘하느님’임을 의미한다고 밝힌다. 이는 그리스도의 천상적 존재는 그것이 단순히 하느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μορφῇ에 의해 규정되고 각인되어 있다는 바로 그 점에서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특별히 표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존재는 모습일 수 없으며, 지위나 신분일 수도 없다. 그것은 존재를 그 본질로부터 규정하는 현존방식으로서 본성에 보다 가까우나 본성과는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계속해서 그닐카는 이 문제의 숙고는 선재자 자신보다는 선재자로부터 오는 구속사건에 주안점을 두고 해석해 간다. 그닐카는 많은 주석자들이 οὐχ ἀρπαγμὸν ἠγήσατο(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에서 내적인 싸움, 즉 천상의 그리스도의 시험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려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ἀρπαγμὸς가 선재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든 또는 앞으로 획득해야 할 노획물을 뜻하는 것이든 달리 말하자면 ‘획득한 것’(res rapta)과 관계하느냐 혹은 ‘획득해야 할 것’(res rapienda)과 관계하느냐의 문제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닐카는 res rapienda의 대상인 εἶναι ἴσα θεῷ(하느님과 같음, 동등함)도 이미 선재자의 상태인 μορφῇ θεοῦ보다 더 높은 그 무엇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 3.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 1,3-4)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의 정식에서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말할 때에 핵심은 메시아 사상에 중점을 둔다. 특히 부활을 통해 왕으로 책봉되신 메시아는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다. 즉 유대교 메시아 대망은 현세적 메시아의 출현에만 집중하였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을 현세적 차원에서 육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3절) 또한 부활에만 집중하지 않는데 이는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죽음은 아들과 아버지의 이 절대적 상호관계 안에서 아들이 자기 지배권을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고 그분께 몸소 굴복하시어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완세적, 종말적으로 단 한 번 서로 마주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현세적 차원에서 육에 따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아 자격이 있는 하느님의 아들로 책봉된 것이다.

#### 4.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필리 2,6-7)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영느 사람처럼 나타나

그닐카는 이 구절들은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람됨에 관해 아주 명백히 표현하는 유일한 구절로 받아들인다. 그닐카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모습 안에(ἐν μορφῇ θεοῦ) 있었고 하느님과 같았으나 자신을 비웠다고 말하는 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선재할 때에 하느님 지위에 있었다거나 하느님 영광에 싸여 있었다는 이상의 내용이 언명되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핵심에 관하여 접근하는데 이 구절에서 그닐카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 또는 하느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실존의 현실이 지나치게 들어 높여져 있는 것,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 통제 가능한 외적 표양은 예수님이 인간임을 뚜렷이 말해 준다고 보는 근거들이 된다.

그닐카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에 관하여 7절의 처음 세 문구는 인간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 문구들은 인간으로 현존함을 묘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첫째 문구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하느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문구에 ‘자신을 비우시어’(7-7)라는 불명료한 표현을 대입시켜서 여러 가지 해석을 유발시켰다고 말한다. 이들은 ‘자신을 비우시어’가 갖는 단지 외관의 변화만을 가정할 때 이 표현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는 사변을 간과하고 있음을 망각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는 단지 이 ‘자신을 비움’에 의해서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종의 모습을 취하신’ 것이다. 6절 전체에서 하느님의 현존방식을 말했다면 여기서서는 종의 현존방식을 말하고 있다. 즉 결정적인 신성(神性) 대신 결정적인 종됨이 나타나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곧장 인간됨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종됨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의인의 길’이 아니고 스스로 인간됨이라는 종된 처지를 감수하는 선재자의 길이다. 즉 현 맥락에서는 δούλος가 ἄνθρωπος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현존이 ‘종의 처지’로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의미할 때 하느님의 온전한 인간됨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학자들이 셋째 문구에서 전해오는 새로운 의미로 인간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복수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이 찬가가 말하려는 것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ὁμοίωμα : 같이)이 아니라 상관된 모습, 유사한 모습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이 인간들의 행렬에 자신을 편입시켰으며 인간들의 역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γενόμενος(되어감)의 계기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날카는 ὁμοίωμα를 ‘똑같은 모습’으로 해석할 때 이 찬가의 의미를 더욱 잘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이 찬가 전반부의 핵심은 하느님의 육화(肉化)에 있기 때문이다.

## 5. 다시 오실 구원자

### 주 예수 그리스도(필리 3,20-21)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날카에 의하면 여기서 사도 바오로는 두 가지 사상을 전해 주고자 한다. 첫째는 종말과 결부된 종국적인 구원사상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멸하며 슬쩍 피해가는

십자가에 대한 적대자들의 자세와 대조적으로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늘의 것을 향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강조점은 구원자(σωτήρ)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심판하러 내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늘에서 올 것으로 기대되는 구원자는 지상적인 몸의 형태로 창조된 인간 실존이 하느님의 불멸의 세계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에서 완전하신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재창조 사상이다. 여기서 사도 바오로가 제시하는 재창조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아 있는 자들의 변화를 기술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다. 그날카는 사도 바오로가 두 부류 중 어떤 부류도 종말에 도래할 구원에서 제외시키고 싶지 않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대자들은 이해가 달랐다. 그들은 이미 지상의 삶에서도 τελειότης(완전함)를 증개하고 수여할 수 있는 길의 도상에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완전함은 영지주의와 밀의 종교들에서 그 역할을 지속했으며 그리스도를 과거의 위대한 신인(θεῖος ἄνθρωπος: 神人)들의 표상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신인들은 신성(神性)과의 접촉에 의해서 자신이 신적 능력에 참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능력의 가시적 증개자가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무시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이었고 부활은 미래에 도래할 사건으로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미래성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에 속하는 부활을 부정했기 때문에 거부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적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은 역사적인 예수님과 영이신 그리스도와의 동일성을 거부하며 이로써 계시의 역사적 현실을 거부하는 가현설적 그리스도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μορφή θανάτου*(죽음의 모습)에 의해 규정된 존재방식과 *μορφή δόξης*(영광의 모습)에 의해 규정된 존재방식을 허물고, 지상의 존재방식과 천상의 존재방식을 갈라놓는 경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주를 포괄하고 시공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힘이 있는 분이시다.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것의 주도자이기 때문이다.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종말에 최종적인 구원을 이룬다는 것과 이 구원이 몸의 실존의 재창조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이 만물을 그에게 굴복시킨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제5절 십자가의 복음선포

지금까지 십자가의 이해와 관련된 신학을 복음적 시각으로 다루었다면 이번 장에서는 그 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전개된 선포여행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사도 바오로는 십자가로 구원될 세상을 향해 땅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기를 열망하였다. 하지만 사도 바오로의 복음선포여행은 3차 선포여행을 끝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사도 바오로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오로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그의 1·2·3차 선교여행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도 바오로의 생애는 한 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오롯이 받아들인 고난의 삶이었다.(2코린 4,8-10) 사도는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포자'이자 인생을 바꾸어 놓은 뜻밖의 체험(다마스쿠스 사건)으로 일관된 것을 실천하는 '선교사'였고, 예수님 사후 첫 20년 동안 유대교 바깥에서 그리스도교 체험을 확장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 1. 박해자에서 사도로

스테파노가 순교한 뒤 사도 바오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를 박해했는지는 밝

하지 않지만 “나는 …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1코린 15,9),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습니다.”(갈라 1,13)고 하느님의 공동체와 교회에 관해 서술하는 것은 짚어볼 만하다.

특히 스테파노의 이야기는 사도 바오로의 박해활동의 도입부에 위치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두 체제를 형성하는 히브리인과 그리스인들의 불협화음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스테파노와 자유인들, 키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킬리키아인들, 아시아인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간에 벌어진 위태로운 논쟁을 전해 준다.(사도 6,9) 이 논쟁으로 스테파노는 돌에 맞아 순교한다.(7,54-60) 이에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져간 그리스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온전한 자격 있는 구성원으로 자기들 공동체에 받아들였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사람들이나 전승이라는 방법을 통해 전해 받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았다고 전한다. 흔히 생각하기에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쿠스 사건 이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사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사도 바오로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필리 3,14) 가능했기에 내적 투쟁을 겪지 않고는 성취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소명에 한결같이 수 있었던 것을 사도는 언제나 은총으로 체험했다. 자신이 은총에 의존하고 있고 은총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국 사도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다마스쿠스 사건은 사도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확립시켜 주었고 이후 자신만의 복음 선포를 전개하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 2. 사도로서 복음선포

예루살렘에서 스테파노의 순교 이후, 사도행전 9장의 지리적 보고에 의하면 다마스쿠스-예루살렘-타르수스로 이어지는 사도 바오로의 소명 사건이 전개된다. 그 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안티오키아로 건너갔다.(사도 11,19-30) 그들은 안티오키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던 중 이방인들에게도 선교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키프로스 사람과 키레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에 파견하여 선교에 성과를 보게 되고, 바르나바는 타르수스에 있던 사도 바오로를 데려왔다. 그 후 1년간 사도는 안티오키아 교회에 머물렀다.

### 1) 첫 복음선포

사도 바오로는 다마스쿠스에서 하느님께 꿈쩍없이 사로잡히고 복속되었으나, 그것

은 그리되도록 자신을 내어준 것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정복당했지만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께 정복당하도록 내어 맡겼다. “그러나 내게 이롭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필리 3,7-9) 후자는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이끌어 낸 결론과 관련된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다마스쿠스 사건을 마치 자신의 결단에 기인한 일인 것처럼 묘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오로 친서에서는 다마스쿠스 사건에 관해서 암시만 할 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사도 소명에 관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 ‘하느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1코린 1,1; 2코린 1,1), ‘이방인들의 사도’(로마 11,13), ‘사람들에게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갈라 1,1)라고 언급할 때 다마스쿠스 사건이 암시될 뿐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오로의 소명사화는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일 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곧바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사도행전은 이 첫 번째 복음선포 시기와 관련하여 사도 바오로의 안티오키아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입과 바르

나바와 함께한 소아시아 지역으로의 첫 번째 선교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반면, 갈라티아서 1-2장에서 다마스쿠스 사건 직후 아라비아로 갔다고 소개한다. 여기서 사도 바오로는 자전적 진술의 의도 없이 신학적 논증으로 전개시키는데, 요약하자면 사도는 다마스쿠스 사건 이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떠났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으며, 3년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갈라 1,17-18) 이 진술을 통해서 사도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지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러한 사도로서의 소명의식은 갈라티아서 1장 12절과 16절에서 두드러지는데 계시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의 중점사항은 사도 바오로의 복음의 근거 계시에 있다. 사도는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을 사람들에게서 또는 전승이라는 방법을 통해 전해 받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았다.(갈라 1,11-12)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도록 그분을 바오로에게 계시하셨다.(갈라 1,16) 첫째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부각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오로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가운데 사도는 자신이 선포해야 할 복음을 받았다. 둘째 경우에는 하느님의 행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당신 아들을 계시하시고 또 그로써 복음을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이 두 대목을 나란히 놓고 읽는다면 계시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진의를 하느님께서 친히 밝혀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2) 제1차 선포여행의 복음선포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이후 사도 바오로는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다.(갈라 1,21)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 바오로는 지중해 연안의 카이사리아를 거쳐 타르수스로 옮겨갔다.(사도 9,30) 계속해서 사도행전 13-14장은 그 후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키프로스와 소아시아 남부 지역으로 선교여행에 나선다고 전한다.(사도 14,23-24) 여러 지역 중에서도 특히 리스트라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팔매를 당한 사건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리스트라 선포는 설화를 비롯하여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치유설화(8-11절)는 잘 알려진 치유기적 설화들처럼 고통을 서술함으로써 시작한다. 그 고통은 ‘발을 쓰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절었으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세 가지로 기술된다. 이 기적설화와 3장 2절 이하의 베드로의 기적설화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켈러(Zeller)를 비롯하여 몇몇 학자들은 베드로의 기적설화의 짝으로 이 설화를 만들었다고 추론한다. 그러나 사

도 바오로의 기적설화는 그 선포적 경향성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것이 아니다. 사도의 치유설화는 먼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선행되며, 이러한 믿음은 사도의 선포에 의해 일깨워진다. 그러니까 병자가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언급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치유의 기적은 오직 그 설교가 그것을 위한 전제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베드로의 치유설화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특이할 만한 것은 리스트라 선포(사도 14,8-20)에서의 설교 장소가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가령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성문 앞이라든지 회당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유대인이 전제되지 않으며 청중은 이방인들로 좁혀진다. 그렇다면 이 설화는 사도 바오로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최초의 설교로, 회당이나 또 회당이 이방인 임시 청중들에게 전해 준 것과 관련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다. 기존의 베드로의 설교나 13장의 유대인 앞에서의 장황한 설교와는 다르게 설교내용이 빠져 있다. 단지 “얕은뱅이가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14,8)라고만 언급한다. 그것은 바오로가 이방인 설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사도 바오로는 이방인 설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다신교(우상)에서 출발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살아 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한다.(15-17절)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언명하고 이어서 구원자(σωτήρ)와 구원(σωτηρί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리하여 1차 선교여행을 마친 그들은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제자들과 오래 머물렀고”(사도 14,28) 그 후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리기까지 14년(갈라 2,1-2)이란 세월이 흘렀다.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사도 바오로에게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신의 복음이 권위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것이었다. 예루살렘의 주요 인사들은 이 회의에서 베드로를 할례 받은 이들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하느님께서 사도 바오로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도록(갈라 2,7-8)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도회의 이후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로 갔다. 얼마 뒤 케파가 합류하였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자 케파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의 식사를 그만두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분열되었다. 사도 바오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케파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케파에게 정면으로 맞섰다.(갈라 2,11-14) 그 후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계속 안티오키아에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 3) 제2차 선교여행의 복음선포

두 번째 선교여행의 출발로서 사도 바오로는 선교사로 유럽 땅에 처음으로 복음선포의 시작을 알리는 발을 들여놓았다. “필리피 신자 여러분, 복음선포를 시작할 무렵 … 교회가 하나도 없었음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필리 4,15) 이렇게 복음선포의 시작은 사도가 그리스 선교를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알려준다. 여기서 티아티라 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 리디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사도 바오로의 복음선포는 필리피에서와 마찬가지로 테살로니카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케리그마 외에 임박한 그리스도의 내림에 대한 선포도 포함하고 있었다.(1 테살 1,10; 4,15; 5,23; 필리 1,10; 4,5)

이렇게 사도 바오로는 필리피·테살로니카·아테네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선포에 임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자신의 거창한 비전을 펼쳐 보일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실패로 인한 상실감도 컸을 것이다. 그것은 사도 바오로를 아테네에서 코린토로 떠나게 하는 빌미가 되었다. 그런데 코린토 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처형되신 분밖에 다른 어떤 것도 알리지 않기로 작정했다. 코린토에서의 사도 바오로의 복음선포는 언제나 십자가의 선포였다. 십자가가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었지만(1코린 1,23) 코린토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왜냐하면 그곳에

는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 약한 것을 …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1코린 1,26-27)하셨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오로는 눈치 보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간적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되었음을 알렸다. 과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확신했다.(1코린 2,1-5) 그리고 코린토 교회가 탄생했다. 뜻밖에도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사도 바오로가 세운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로 발전했다.(1코린 1,26-29)

사도 바오로는 한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켄크레애를 거쳐 에페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에페소를 떠나 카이사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인사한 다음 안티오키아로 갔다.

#### 4) 제3차 선포여행의 복음선포

사도 바오로는 마지막 선교여행이 될 세 번째 선포여행을 시작하여 에페소에 도착한다.(사도 18,23-24) 사도가 에페소에서 힘써 몰두했던 한 가지 일은 마케도니아·아카이아·갈라티아에 이미 설립된 교회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거둔 선교상의 성공은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었

다. 이 시련과 고통은 몇몇 서간에서 서로 연결점을 제공해 준다. “나는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페소에서 이를테면 맹수와 싸웠다고 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1코린 15,31-32) 그리고 “...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분은 바로 것처럼 엄청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2코린 1,8-10) 끝으로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필리 1,21) 여기서 사도 바오로의 엄청난 환난과 옥살이가 암시되는데 어찌면 이 일로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를 떠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가 3차 선포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에페소를 그냥 지나치고 밀레토스로 곧장 내려갔기 때문이다.(사도 20,15-16) 하지만 에페소 체류는 사도의 활동 가운데 가장 성과가 많은 시기였다. 옥살이를 하는 동안 필리피서와 필레몬서를 썼다. 특이할 만한 것은 사도 바오로의 투옥이 그를 따르던 협력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기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들이 있어 사도 바오로가 괴로워하면서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사실이다.(필리 1,16-18)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 어쨌든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더해 필레몬서에서 에파프라스를 언급하는 대목이 특이하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간혀 있는 에파프라스”(필레 23절) 라고 명명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서 에파프라스에 대한 언급은 복음이 이미 에페소로부터 내륙지역으로 퍼져 나갔음을 말해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투옥 중에 문안인사를 하고 있는 사도 바오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사도 바오로만이 아니라 에파프라스를 포함한 그의 협력자들이 복음선포 활동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에서 석방되자마자 곧 그곳을 떠났다. 사도는 작별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향한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는 즉시 코린토로 가지 않고 한동안 마케도니아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코린토 후서 1-9장에 해당하는 편지 한 통을 썼다. 그리고 그리스로 가서 석 달 가량 지낸다.(사도 20,1-3)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를 집필한다. 사도 바오로는 엄청난 환난과 고초를 겪어야 했지만 이 지역에 복음을 뿌리내리게 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선교활동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사도 바오로의 1·2·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복음선포는 십자가를 향한 열정적인 순례였다는 점이다. 사도 바오로는 십자가와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었고, 치유될 수 있었고, 풍성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순례의 여정은 역경과 시련이 산재한 고통 받는 인간의 모습으로 일관된 선교적 삶을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사도 바오로에게 복음선포란 부활의 영광에 앞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 제2장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

바오로가족은 모든 기도의 도입을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성 바오로 사도님,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한다. 이 기도는 스승 예수 신심을 드러내는 바오로가족 영성의 핵심으로서 하나의 유일한 방법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복자 알베리오네가 스승 예수 신심을 위시하여 사도의 모후와 성 바오로를 함께 포함시키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질문을 풀어나가고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구이도의 *Gesu, Maestro* 『스승 예수』를 기본 텍스트로 하고, *Centro Promozione e Formazione* 『바오로 교리』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인용하고 참조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스승 예수 영성이 지니는 의미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 제1절 생애

복자 알베리오네(1884-1971)의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조명되어야 할 몇몇 시기만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출생 시 매우 허약했으므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산로렌조(San Lorenzo)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몸에 늘 고통의 가시(假視)적 징표를 달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곡형(曲形)으로 굳어져간 척추였다. 이에 더해 사목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시기부터 두드러졌던 그의 고행은 그를 더욱 큰 고통에 머물게 했다. 복자 알베리오네가 16세 되던 해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던 시기였다. 그때 알베리오네는 1900년 12월 31일 자정의 성체조배를 준비하는 신학생으로서 알바(alba) 주교좌 성당에서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타메시”(Tametsi futura prospicientibus)의 내용에 따라 깨어 기도하였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차후 그의 영성이 녹아 들어갈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무엇인가에 투신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알베리오네의 미래 사도직에 대한 직관은 기도 안에서 성숙해져 갔고 교회의 웃어른들과 영적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차츰 그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시기가 찾아왔다. 복자 알베리오네가 30세 되던 해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

발하였는데, 그때에 그는 알바에서 작은 노동자 인쇄학교를 시작했다. 그 인쇄학교의 학생들은 모두가 전쟁으로 인하여 밖으로 내몰린 소년들이었다. 알베리오네는 이러한 어리고 미숙한 소년들과 더불어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으며 그들을 양성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과 인내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사목자로서의 열정과 창의력은 소년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성인들까지 매료시켰다. 하지만 그는 명성을 피하고 고독을 즐기는 사람으로 늘 머물렀다. 그러다가 40세 되던 해에 복자 알베리오네는 막중한 일과 과로한 활동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다. 그는 폐결핵을 앓았는데 의사들은 절망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육체적인 병으로 인하여 알베리오네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을 도로 가져가시도록’ 마음먹고 임종을 맞이하는 비장한 마음으로 요양소로 향했다. 그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이 시기는 초창기 몇 개의 수도회를 설립하여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는데 회원들 간의 불목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모두를 사랑하라. 관대한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항구하라. 더 훌륭한 인물들을 얻을 것이다.”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의 병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 그 후에도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그 소리는 가시처럼 그의 마음을 꿰뚫렸고 그에 따른 ‘두려운 마음은 언제까지고 그

를 따라다니는 십자가였다. 이렇게 복자 알베리오네는 기적적으로 치유된 이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복자 알베리오네를 소개하는 서적들을 살펴보면 학자로서 또는 영성가로서의 약력은 눈에 띄지 않고 수도회 설립과 그에 따른 건축·기계·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가로서의 행적이 주를 이뤄 열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많은 회원들과 더불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에만 전념하고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기도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일궈낸 사도적 산물인 바오로가족을 비롯하여 그에 딸린 사업적 수완들을 세워주고 지탱해 주는 원천이 분명히 있었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스승 예수·사도의 모후·성 바오로 신심을 통해서 회원들의 영성을 채워주었다. 이러한 세 가지 신심은 사실은 하나의 신심이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영성생활의 커다란 비밀은 천상 스승을 닮는 데에 있다면서 바오로가족은 단 하나의 영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일, 즉 천상 스승에 의해 살아가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도의 모후의 보호 아래, 성 바오로의 정신으로, 길·진리·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하게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십시오.”

## 제2절 스승 예수 신심

지금부터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의 첫 관문인 스승 예수 신심을 살펴볼 것이다. 그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간략히 알아보자.

### 1. 기원

‘스승 예수 신심’의 기원은 복자 알베리오네의 신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당시 16세였던 알베리오네는 성체조배 중에 결정적인 빛을 받았으며 자신의 전 생애에 있어서 영성, 사도직을 가름하는 지침을 얻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 74세 되던 해 어느 날 한 기사에서 복자 알베리오네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한 세기가 닫히는 성년인 1900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새 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레오 13세 교황은 회칙 “타메시”(Tametsi futura prospicientibus)를 발표하여 전 그리스도인에게 인류에게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교적, 종교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백성들은 경탄하며 회칙에 귀 기울였으며 길·진리·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칙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이 회칙에서 교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구원에 필수

적인 세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그 내용은 인류의 지성에 대해서는 진리로, 의지에 대해서는 도덕의 안내자로, 마음에 대해서는 참된 생명과 절대적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을 지적해 주고 있었다. 이후 이 정신은 복자 알베리오네와 그를 따르는 회원들의 생활에 파고들었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구원에 필수적인 이 세 가지(정신·의지·마음) 원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진리·생명이신 '스승'으로 받아들여 교황 레오13세의 이 회칙을 거룩한 유산으로 수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자 알베리오네는 스승 예수 신심을 성 바오로에게서 발견한다. 이는 성 바오로의 전체성과 맞아 떨어진다. 성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성 바오로의 전체성에 관하여 복자 알베리오네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여러 영성(베네딕토회, 프란치스코회, 이나시오회, 살레시오회,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노회 등)을 공부해 보니 각 수도회마다 훌륭한 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항상 천상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각 수도회마다 어느 한 면만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어떤 회는 진리를 더 부각시켰고, 어떤 회는 사랑을 더 부각시켰으며, 어떤 회는 생명을

더 부각시켰고, 어떤 회는 두 가지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성 바오로를 공부하다 보면 천상 스승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살고 있으며, 이미 길·진리·생명이라고 정의된 대로 우리에게 전체적인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 안에는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도취되고 점유됩니다. 이 신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며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모든 신심이 쏠리게 됩니다.

이렇게 복자 알베리오네가 교황 레오13세와 성 바오로를 통해서 스승 예수 신심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분이 오늘날 우리의 유일하신 스승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될 수 있을까?

## 2. 영감 받은 성경본문

복자 알베리오네가 스승 예수 신심과 관련하여 영감받은 성경구절은 요한복음의 두 곳(13,14; 14,6)이다. 먼저 첫 번째 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13,14) 하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여기서 예수님은 스승과 주라는 신분

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너희의 스승은 한 분뿐이다.”(마태 23,87)고 말씀하신 것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부와 같이 주님이시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유일한 스승이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하느님 신분을 강조하면서 당신 제자들이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 본문은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여기서 “나는 … 이다.”라는 자아 계시적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다.(요한 8,24,58; 13,19) 그리고 이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느님의 바로 그 이름이다.(탈출 3,10-14)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여 말씀하신 길·진리·생명은 중개자·계시자·구원자라는 세 가지의 특수기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성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위격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생명과 사랑을 완전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유일하신 스승이시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는 단일하고 유일한 스승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가? 왜 그리스도 그분만이 인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생명과 역사의 중심이신가? 또 어떻게 역사의 아주 먼 거리에 생존했던 그리스도만이 오늘

에 와서도 스승이고 길·진리·생명일 수가 있는가?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있을 수가 있는가?

이에 관하여 부르노 포르테(Bruno Forte)는 복자 알베리오네의 길·진리·생명이신 스승 예수 영성의 기원에 관한 신학적 고찰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성과 그리스도의 동시대성을 언급한다. 길·진리·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동시대성은 이 메시지를 역사의 현재 속에서 현실화하고 실현하며, 또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체험되고 길·진리·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일은 길이신 스승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의지’를 정착시키고, 진리이신 스승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정신’을 정착시키고,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우리의 ‘감정’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포르테는 이러한 질문은 오히려 복자 알베리오네의 질문이었으며 그가 생애에 걸쳐 150번이나 인용했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라고 고백한 성 바오로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은 길·진리·생명이신 스승을 온전히 닮는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어떻게 우주적으로 온 세상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을까? 이는 곧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기도 한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3. 스승을 닮는 여정

복자 알베리오네는 천상 스승을 닮기 위해서 우선 고전적 전통영성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삼중의 길’ 곧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일치의 길이다. ‘정화의 길’은 우리를 올바른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고, ‘조명의 길’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준다. 그리고 ‘일치의 길’은 성령의 활동 안에서 수도자·사제·성인이 되게 한다. 그런데 G. 구이도에 따르면 복자 알베리오네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E. Dubois의 영성 노선을 수용하여 성성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자 한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성삼위와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성성의 여정으로 몰입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화의 길’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몸소 동반해 주시고, ‘조명의 길’은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이며, ‘일치의 길’은 지혜이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 구이도는 복자 알베리오네가 받아들인 이 삼중의 여정은 기존의 전통영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이해한다. 왜냐하면 E. Dubois의 영성 노선은 내밀한 관계를 전제한 영성 신학의 근원적인 변화였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우리를 스승이신 아드님을

닮는 길로 안내한다는 차원에서 성부의 시선으로 관상하고, 성령에 의해 실현되는 성성의 길과 더불어 전통적 영성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가르침으로 알고 이해한 것이라고 비교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자 알베리오네가 제시한 스승을 닮는 세 가지 단계를 G. 구이도가 제시하는 시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 1) 성부를 닮는 여정

성부를 닮는 여정의 원리는 인간의 회심과 성부의 자비에 의한 재창조이다. 여기서 인간의 회심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시작된다. 그것은 자신을 알고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추구이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인용문과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하느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하느님은 필연적 존재이십니다. 하느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홀로 주님이신 분”, 순수 영이시며 지극히 위대하신 분, 지식 자체이시며 힘, 전능을 지니신 영원하신 분이며 영광을 충만히 입으신 분, 가장 완전한 존재 자체이십니다.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 스스로 가장 행복하신 분입니다. ... 나의 하느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어서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은 거울에 비쳐 보듯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무(無)이다. 너는 아무 것도 아니다. 너는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 ... 영혼과 육신으로 된 존재, 존재와 활동이 불완전한 존재이다.

이렇게 인간에 관하여 한계를 지닌 피조물, 나약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 스승을 닮기 위한 첫째 단계이다. 그리고 둘째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곧 겸손한 마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은 인간의 원천, 자신의 존재 이유의 가르침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준다. 그리고 셋째 단계에서는 피조물을 선용하여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피조물의 목적은 인간에게 봉사하는데 있다며, 인간은 이 지상 생활에서 하느님께 봉사하는데 피조물을 선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삼중 질서 안에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천국으로 방향지어졌기 때문이다. 넷째 단계는 우리의 생각이 하느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요롭게 양육되는 것이다. 이는 곧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선물로 수용됨을 의미한다. 그럴 때 우리의 지성은 하느님의 지성으로 풍요롭게 된다. 복자 알베리오네가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인식

이 바로 그분에 대한 사랑 실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이는 스승을 닮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다섯째는 구체적인 결심이다. 이 구체적인 결심은 성부를 닮는 여정에서 인간이 회심에 접근하기 위한 '죄의 뉘우침'의 상태이다. 구이도는 복자 알베리오네의 영성에 있어서 '정화 단계'의 바탕이 되어주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회심이라고 말한다. 여섯째는 죽음의 목상이다. 이 죽음에 대한 목상은 회심에 나아가도록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일곱째는 회심의 단계이다. 이 회심의 단계는 하느님께 돌아가는 여정이다. 이 여정은 하느님의 자비를 불러들인다. 여기서 복자 알베리오네가 말하는 성부를 닮는 여정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즉 우리 인간의 근원적 회심의 여정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 편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인간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복자 알베리오네는 이 회심의 여정을 한마디로 '자비'라고 요약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단계는 자기 진단이다. 여기서는 양심성찰을 통해서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다. 영혼의 상태를 진단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하느님을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의식하는 것이다. 이 의식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더욱 섬세하게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하여 복자 알베리오네가 말하는 성부를 닮는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도록' 하는 첫째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서두에서 언급한 성부를 닮는 여정의 원리로서 인간의 회심과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재창조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육화하시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여기서 성부를 닮는 여정의 결실이자 핵심에 이르르게 되는데 이를 통해 영원한 시선으로 전면적인 회심을 살며 '강생신비와 일치'하게 된다.

## 2) 성자를 닮는 여정

성자를 닮는 여정의 원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길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살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화'하시는 것이다. 이 육화의 단계는 스승을 닮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주제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그분을 닮아야 하는 영원한 목적을 위한 결정적인 단계이다. 그리하여 이 육화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씀이 제자들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하며 스승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히 사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변화와 성장이 '계속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길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1)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지성이 가장 먼저 성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인간의 내적 기능인 지성·의지·마음을 이야기할 때 맨 처음 지성을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 성녀들의 삶에서 성성, 거룩함은 첫째 계명을 충실히 따르는 데 있습니다. 정신, 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것은 먼저 자연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천상적인 계명이나 규범은 우리의 이성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난 다음 그것을 갈망하고 선택합니다.

여기서 복자 알베리오네는 이러한 지성의 성화를 위해서 면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면학의 근간을 이루는 주제는 다른 아닌 성경이다. 그리고 복음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봉독해야 하며 모두에게 맨 처음 읽혀져야 하고 알아들어야 할 책이라고 가르친다.

우리 삶에서 구원의 말씀, 그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생각, 삶 그리고 사도적 활동을 조명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성 바오로의

정신에 따라 복음의 모든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자 알베리오네에 의하면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배움으로써 지속되어야 한다. 성경은 ‘첫째가는 면학’이지만 교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진리가 보다 폭넓게 심화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복자 알베리오네는 하느님에 관한 면학은 교리서에서 시작되며 이 교리서는 하느님에 관해 매우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 준다고 한다. 즉 일치, 성삼위, 육화, 구원, 교회, 은총들을 설명해 주는 신학은 다름 아니라 보다 깊이 세분화한 교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교리 면학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관해서 복자 알베리오네가 제시한 것은 교의신학과 윤리신학의 연마(研磨)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이 문학, 예술, 교회 규율, 신문학, 신학, 철학, 역사, 성서(학)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근대주의의 급격한 확장으로 심각한 사회적 동요와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에 관하여 복자 알베리오네는 절대적인 면학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이러한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이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부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벼운 내용을 심각하게 말할 것이고, 의혹이 드는 것을 확실한 것인 양 말

하게 됩니다. 항상 고백자에게 모호함, 불안감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마 청중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형성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스승께서 우리의 지성을 조명해 주시고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시도록 면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길이신 예수님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있어서 길이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작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알베리오네는 예수님의 사생활, 공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희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고통의 길을 본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사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구간의 구유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에게 자신을 양성하도록 의탁하신 모범을 본받다. 즉 이것이 스승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된다. 그리고 공생활에 있어서는 하느님의 뜻에 충만한 응답을 드리기 위한 깊은 내면의 생활을 추구하신 스승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 내면생활은 언제나 올바른 지향으로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만을 위한 절제의 덕을 실천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특히 복자 알베리오네는 스승 예수님의 순명, 기도, 희생, 가정적, 인간적인 여러 덕행에 충

실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심업'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심업'을 이해한 사람은 그것이 '삶' 자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인 사람은 이를 곡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처럼 신심업이란 것이 형식적이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신심업을 잘못 이해하면서 마치 교회를 거스르는 마귀의 짓이라고 험담하기도 합니다. 혹은 신비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영적 망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깊은 내면의 작업입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며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묵상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서 심화시켜야 할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 더 '그리스도적인' 것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다. 왜냐하면 스승 그리스도께서도 성부의 심중에서 나오셨고(요한 1,1-18 참조),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심오한 일치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삼위의 삶에 참여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생활과 공생활을 통해서 스승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느님과 심오한 일치가 형성된다. 그런데 스승 예수님의 신적인 심오한 일치는 주어진 삶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그분의 공생활, 침묵의 숨은 생

활,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내적·외적 삶 모두와 천상의 아버지와의 관계, 거룩한 성경과의 관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만사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신 것을 본받으라고 가르친다.

### (3) 생명이신 예수님

육화하신 스승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숙고는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생명이신 예수님은 은총의 주관자이시다. 이 은총의 효과를 복자 알베리오네는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것은 성화은총·조력은총·치유은총이다. 알베리오네는 이 은총의 효과 중에서 특히 치유은총을 강조하였다. 이 치유은총은 복자 알베리오네의 '성령님께 바치는 기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기도는 인간 내면의 삼중 기능인 지성·감정·의지의 병든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병든 삼중 기능들이 치유의 은총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성령님께 바치는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적는다.

성령님, 성령강림의 모후의 전구로 비오니, 저의 경솔함, 무지, 망각, 고집, 편견, 오류, 진리의 배척으로 흐려진 지성을 치유해 주시어, 모든 것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심어주소서.

무관심, 불신, 나쁜 경향, 욕정, 감각, 애착 등의 감정에서 치유해 주시어, 모든 것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감성과 경향을 심어주소서.  
 무기력, 경망스러움, 항구하지 못함, 태만, 완고함, 악습에 물든 저의 의지를 치유해 주시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과 그분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도록 제 안에 새로운 사랑을 심어주소서.  
 통달의 은혜로 지성을, 슬기의 은혜로 지혜를, 의견의 은혜로 현명함을, 효경의 은혜로 정의를, 지식의 은혜로 지식을, 군셈의 은혜로 영적 힘을, 경외심의 은혜로 절제를 주시어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의지·마음의 모든 기능을 치유시켜 주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자 알베리오네는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은총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내면의 심오한 비밀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든 탄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수행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스승을 닮는 둘째 단계인 성자를 닮는 여정의 '육화'의 과정 전체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3) 성령을 닮는 여정

셋째 단계의 성령을 닮는 여정의 원리는

스승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성령께 기도하는 데 있다. 여기서 온 마음을 다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관하여 구이도는 복자 알베리오네의 관점을 여섯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복자 알베리오네는 각 신분에 따른 성덕의 의무를 강조한다. 즉 성령으로부터 개개인은 은총의 삶을 충만히 실현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자의 신분에 따른 의무를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수도자는 사제와 평신도를 강력하게 부추겨야 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한다.

둘째는 인간적·신적 삶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인간적·신적 삶은 우리 안에 스승 예수님께서 육화하시는 삶을 말한다. 이는 거룩한 성사를 통하여 은총 안에서 성령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므로 우리의 인간적·신적 삶에는 그분 안에서의 삶을 감사와 존중으로 성장시켜 나아가야 할 의무가 따른다고 말한다.

셋째는 일치어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소속을 확인할 필요를 언급한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면서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다.

넷째는 성자를 닮아가는 여정에서 신앙에 삼덕의 실천을 강조한다. 즉 믿음은 모든 의로운 삶의 바탕이자 또한 모든 덕행을 적극적으로 사는 데 바탕이 된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모든 성사생활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믿음은 기도와 많은 선행의 실천으로 성장되며 성장된 믿음은 더욱 깊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살도록 부추긴다고 말한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한다. 왜냐하면 희망은 하느님이 우리 영혼 속에 넣어주신 초자연적 덕이므로 우리는 천국을 희망할 수 있으며, 또한 그곳에 가는 길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은 하느님이 우리 영혼에 부여하신 세 번째 대신 덕이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두 개의 불꽃으로 타오른다. 하나는 직접 하느님을 향해 타오르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해 타오르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하느님과 이웃 안에서 이미 타오르고 있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복자 알베리오네는 하느님과 이웃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덕을 기뻐하고, 아직 소유하지 못한 덕에 대한 갈망이 사랑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 사랑은 천국으로 향하되 이 지상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성사의 은총을 활용하기를 권고한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성사는 오감(五感)으로 느낄 수 있는 표징으로 성화의 여러 수단 중 으뜸가는 수단들이라고 말한다. 특히 미사성제와 영성체·고해성사·성체조배를 더욱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께

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성령은 성자께서 내려주신 은총을 거룩하게 사용하도록 우리 개개인을 일깨우며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을 닮은 여정에 포함된 성부·성자·성령을 닮는 여정의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완성된다. 예수님의 삶도 성령 안에서, 교회의 삶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영적·초자연적 삶도 성령 안에서 통교와 친교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성장하며 완성된다. 마침내 성령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영적 성장이 충만히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스승 예수님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승 예수님의 정신 안에서 우리의 면학활동을, 스승 예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의 인격 수양을, 스승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감성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제3절 사도의 모후 신심

바오로가족의 영성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사도의 모후의 눈길 아래 성 바오로의 정신으로 길·진리·생명이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고 전한다.”이다.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의 둘째 신심인 사도의 모후 신심은 육화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는 역할을 한다.

## 1. 마리아 신심의 기원

복자 알베리오네는 그의 어머니 테레사 알로코(Allocco Teresa Rosa)의 무릎에서 마리아를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태어나는 대로 꽃의 여왕이신 마리아께 봉헌하였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머니는 우리의 어린 손을 잡아 함장시키고서는 '성모송'을 염하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다 다른 데에 한눈팔 때에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기도문을 외우곤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어머니는 성당에서 성모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기도하는 일은 이미 어려서부터 네 살 내지 다섯 살 때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복자 알베리오네의 마리아 신심은 세 군데의 성전(聖殿)과 연결되어 있다. 첫째는 브라의 꽃의 성모 성전(Santuario della Madonna dei Fiori di Bra)인데, 이곳에서 알베리오네는 어머니에 의해 성모님께 봉헌되었다. 둘째는 알바의 모레타 성모 성전(Santuario della Madonna della Moretta in Alba)이다. 이곳은 신학생 시절과 사제직의 첫 몇 해 동안 기도의 장소였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에서 삶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선택

을 했다. 그 결정적인 선택으로 교회 내에서 특별선교 임무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셋째는 사도의 모후 성당(Santuario Regina Apostolorum)이다. 이 성당은 제2차 세계대전 시초에 사도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발한 서약의 열매로써 복자 알베리오네가 건립한 성당이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이 성당 건립으로 바오로가족의 각 회원들이 성모 마리아를 사도의 모후로 알아모시도록 하여 그들 안에 사도의 모후의 신심을 깊이 심어주게 한 것이다.

## 2. 사도의 모후이신 마리아 신심

복자 알베리오네가 마리아를 사도로 또 사도의 모후로 알려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이유는 마리아야말로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길러서 자기 품에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즉 마리아를 사도의 모후로 알아모시는 일이야말로 바오로가족의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하느님 말씀에서 '사도직'의 의미를 탐구하다가 마리아 안에서 각 성소의 사도적 특별 의향(인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성)을 발견한 것이다. 복자 알베리오네의 사도직의 관점은 형제들 안에서 '전체적인 그리스도'(Totus Christus)를 발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즉 마리아께서는 사도직의 표현 그 자체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낳아주셨다.

이처럼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있어서 사도가 된다는 일은 예수님을 살고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당신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실 수가 있었다. 사도직에 봉사하고 있는 바오로가족 역시 먼저 자기 안에 예수님을 탄생시키지 않고서는 남에게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가 없으며 이런 점에 있어서 사도와 모성은 상통된다. 그리고 복자 알베리오네는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시되 예수님 전부를 내어주셨다고 보았다. 여기서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을 내어줌'에서 그치지 않으며, 신비체를 형성하시고 배양하신다. 그래서 복자 알베리오네는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살고 전해 주는 사도들의 전형이라고 가르친다.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십니다. 온갖 선의, 총체적인 선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인들의 사도적 신심들은 분할된 사도직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마리아께서는 전체적인 사도직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는 공간·시간·개인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사도이십니다. 모든 사도직 안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지역 내에서 활동할 뿐이지만 마리아께서는 항상 언제든지 내어주시

며, 어디에서든지 내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라.' 이것은 마리아의 성소이시며 사명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께서는 세상에 예수님을 내어주는 데만 머물지 않았다. 예수님을 내어주도록 불리움 받은 사람의 근본 모델이 되는 여왕이시다. 그래서 최대로 완전한 수준이시며, 사도직 영역에 들어오는 그룹 및 사람의 온갖 사도적 사명의 고무자 및 보호자가 되신다. 마리아의 모성적인 '보살핌'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명을 지속하고 있는 사도들(사제, 수도자, 봉헌된 평신도)을 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람들에게는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도들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조력자·위로자·에너지의 활력자가 되신다. 따라서 복자 알베리오네는 사도의 모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원천으로 돌아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락방에서 드러난 것처럼,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신심은 사도의 모후에의 신심입니다. 이 신심은 역사의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약간 쇠퇴해지고 그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도의 모후이신 마리아의 주변에 사도들을 모으는 달콤한 직무를 완수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을 일깨우고 성소를 자극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원천에서

우리는 사도의 모후이신 마리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자 알베리오네는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을 살고 전하는 사도들의 모후를 발견했다. 이제 마리아는 사도직에 임하는 이들의 근본 모델로서 어떠한 사도직이든 보호하는 이, 사도를 일으키고 지탱하는 이, 최고의 사도직을 실천하는 이들의 모후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마리아의 임무를 통해 복자 알베리오네는 마리아적 역동성(dinamica mariana) 안에서 이 신심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 제4절 성 바오로 신심

### 1. 성 바오로 신심의 원천

복자 알베리오네는 성 바오로를 수도회의 수호자 및 창시자로 받들며 공경하는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성 바오로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덜 체계적인 것 같다. 하지만 그의 글 도처에서 조금씩은 성 바오로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조반니 로아타(Giovanni Roatt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의 글들 속에서 바오로 서간의 350여 인용구(명료한 것, 불명료한 것 포함해서), 사도행전의 약 150여 인용구, 사도 바오로와 성

바오로수도회 회원들과의 관계에 관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짙은 500가지 이상의 암시적인 문구를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에서 어떤 일관성 있는 통일성을 찾고 이 바오로적 '지층'의 생동적인 의미를 전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복자 알베리오네가 어디서든지 아주 훌륭하게 매번 올바르게 성 바오로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자 알베리오네를 파악할 때 나는 '바오로적 정신'을 가지고, 성 바오로의 영감을 받아 생각하고, 기도하고, 쓰고, 지향하고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복자 알베리오네의 바오로 사상과 활동의 커다란 원천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복자 알베리오네가 성 바오로를 수도회의 수호자 및 창시자로 받들며 공경하라고 한 것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복자 알베리오네의 성 바오로 신심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 2. 성 바오로 신심의 특성

성 바오로 신심은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적 특성을 지닌다. 이것은 성 바오로가 그의 제자들을 위해 수고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고난목록(2코린 11,16-33)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에 대해 복자 알베리오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 바오로는 참으로 많은 애정을 자신의 첫 제자들을 위해 쏟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그 주변에서 피어났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인들이 그때에 피어났으며, 지금도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안에서 성 바오로의 보호는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수년간의 험난한 걸음으로 세상을 누볐으며, 특히 초세기 동안 그러한 빛을 전한 성 바오로의 발자취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성 바오로의 이러한 역사적 특성에 기인하여 복자 알베리오네는 바오로가족은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인 성 바오로께 감사의 표시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는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성 바오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로마타에 의하면 많은 회원들이 성 바오로를 잘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복자 알베리오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직접 성 바오로에게 가십시오! 직접 성 바오로에게 배우십시오!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찾아가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서우십니까? 무서워도 좋으니 직접 찾아가서 바오로의 서간을 직접 읽으십시오. 그 속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 바오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 바오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복자 알베리오네는 이 밖에도 공동체적 신심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한 해를 성 바오로에게 봉헌하고 또 ‘매달 첫째 월요일’을 봉헌하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인간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성 바오로가 그의 삶 모두를 투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성 바오로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심오한 요청들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본받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갈라 2,20)와 ‘내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필리 1,21)라고 고백한 성 바오로에게 반한 복자 알베리오네는 이제는 성 바오로를 아는 지식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살아 있는 성 바오로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바오로회원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한다.

성바오로수도회의 정신은 성 바오로가 우리에게 소개한 대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첫째, 성 바오로를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성 바오로가 어떻게 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배우도록 하십시오.

오, 둘째, 성 바오로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여 성 바오로처럼 길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 위에서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 성 바오로에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성 바오로처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의 핵심들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스승 예수·사도의 모후·성 바오로 신심을 통하여 복자 알베리오네가 말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기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선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1장에서 살펴본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과 2장에서 살펴본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을 3장에서 종합해 보도록 하자.

### 3장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과 복자 알베리오네 스승 예수 영성의 종합

#### 제1절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의 특징

##### 1. 십자가 신학의 원천

먼저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의 원천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오로는 주님에게서 직접 받았다.(1코린 11,23; 갈라 1,12)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 전승 텍스트를 인간적인 의미의 수용(1코린 15,3)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전해져 온 그리스도 전승들을 사도 바오로의 관점이 아니라 그것을 권위 있게 해석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사도 바오로의 복음에 관한 핵심진술(로마 3,21-26)과 유사한 세 가지 방식으로 도출된 것이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언급(1,1; 3,21-22) 부분이고, 둘째는 성경에 의한 확증(1,2; 3,21) 부분이며, 셋째는 이미 확립된 그리스도 전승의 사용(1,3-4; 3,25-26) 부분이다. 여기서 셋째 부분은 사도 바오로의 가장 논쟁적인 서간인 갈라티아서에서 그의 명시적인 주장들과 모순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갈라 1,11-12)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전승이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받은 전승과 일치한다고 확언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 바오로가 전해 받아

서 전해 주었고 또 그의 서간들에 반영된 내용들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신원과 신앙의 토대를 ‘새로운 피조물’(2코린 5,17; 갈라 6,15)로 해석한다.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은 사도 바오로가 로마 3,21에서 십자가의 복음 핵심을 설명할 때 그 첫머리에서 말하는 ‘그러나 이제’라는 말과 연결된다. 그래서 이 ‘이제’는 사도 바오로에게 언제까지나 종말론적인 현재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의 첫 머리에서 ‘계시’(1,17,18; 3,21)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통하여 설명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도 바오로의 신학을 변화시키고 계속 지탱하게 해준 종말론적 새로움에 관한 인식을 부정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시’는 그 후 사도 바오로에게 모든 성경을 읽는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 2. 십자가 신학의 그리스도론적 특성

사도 바오로가 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느님’이시며, 참으로 인간이다. 성자께서 참 하느님이신 이유를 사도 바오로는 로마 9,5에서 언급하였다. 이를 두고 학자들 간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느님이시라고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로마 10,9-13과 필리 2,6-11 그리고 갈라 1,1.11-12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이 제시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신성을 지니고 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신가라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사도 바오로는 성자께서는 참으로 인간이시라고 말한다. 사도 바오로에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것은 사도 바오로가 갈라 4,4과 로마1,3-4 그리고 15,8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이다. 즉 유대인으로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개인만이 아니라 한 민족을 넘어 온 인류의 구원에 직접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마지막 아담(1코린 15,45-49)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괴리’를 극복하고 화해를 도출하기 위한 온전한 인간성을 드러내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3. 그리스도 수난에 참여

사도 바오로가 제시하는 고난은 ‘죄’와

‘죽음’을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 ‘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사도 바오로의 논의의 주류는 로마 5,12-8,2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도 바오로는 죽음이란 인류에게 부여된 종국이 아니며 단지 죄의 결과로 본다.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은 육체를 피할 수 없기에 죽음도 피할 수 없고, 죄를 피할 수 없기에 결국 죽음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도 바오로는 죽음이러는 고통은 현실이며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처절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고통을 종말론적 긴장을 이루는 특징으로 이해했다. 2코린 4,16-5,5의 서술에서 사도 바오로가 고통을 종말론적 긴장에 붙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아직’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본문에 나오는 ‘환난’에 관한 사도 바오로의 말에 의해 확증된다. 특히 갈라 2,20과 6,14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과거의 유일 회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구절들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인간과 함께 부활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갈라 2,19)고 말한다. 즉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여전히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사도 바오로가 말하려는 것은 고통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통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고난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오로의 고난의 참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고통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현실적인 고통의 중요성을 발견하도록 해준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로마 8,32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성부께로 연장하여 성자가 버림받음(παρέδωκεν) 사건을 성부께로 부연시켰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성부께 버림받았다는 역사적 사건을 죄로 인하여 하느님께 버림받은 인간들을 위하여 성자를 내어주신(παρέδωκεν) 사건으로 바꿔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고난이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로 확장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부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괴로움 속에서 성자의 고난을 겪으신 것이다. 또한 성부께 버림받으신 성자의 사건으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다(παρέδωκεν)는 그 고통을 성부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성자의 고난이 성부 하느님께 연장되고 성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베푸시는데 성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절정에 달한다

고 말할 수 있다.

#### 4.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선포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은 그리스도 고백으로 일관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코린 15,3-5에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필리 2,6-11에서는 참 ‘하느님’으로 고백했으며, 로마 1,3-4에서는 현세와 내세를 총괄하시는 ‘메시아’로 고백했고, 필리 2,6-7에서는 참 ‘사람’으로 고백했으며, 필리 3,20-21에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총괄하시는 ‘구원자’로 고백했다.

이러한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 고백 선포는 그를 한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 끝까지 그가 고백한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이에 관하여 S. Barton은 사도 바오로는 복음선포를 다섯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시한다. 즉 첫째 파견된 자의 비유, 둘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셋째 집짓는 자의 비유, 넷째 돌보는 자의 비유, 다섯째 거룩한 사제의 비유로 설명한다. 첫째 파견된 자의 비유에서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신임장은 메시아의 삶을 재현하는 대표로서 십자가를 따르는 것에 둔다. 둘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사도 바오로는 뿌려진 복음의 씨앗의 변화를 보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선포를 통해서 볼 수 있다(마르

4,1-20; 요한 4,34-38)고 말한다. 셋째 집짓는 자의 비유에서 사도 바오로의 사도직 범위는 초기 개종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포함한다. 그것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확립된 믿음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건립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돌보는 자의 비유에서 사도 바오로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부드럽게 대한다.(1테살 2,6-8) 바오로 서간은 이런 종류의 관계형 언어로서 친밀감이 가득하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가정을 유지할 목가적인 작품을 얻으려는 사도 바오로의 선교적 사명을 보여주고 있다.(갈라 6,10; 로마 8,14-17; 에페 2,19) 다섯째 거룩한 사제의 비유에서 사도 바오로는 창조의 위대한 드라마의 한 부분으로서 그의 선교 사도직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이고,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느님이 사람들을 당신에게 경배하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참 하느님이요 참 인간으로 전하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다 감내하는 선교적 특징을 지닌다.

### 제2절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의 특징

#### 1. 스승 예수 영성의 기원

복자 알베리오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것’(갈라 2,20)이었다. 사도 바오로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실현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것은 그의 생애에서 몇몇 특별한 시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첫 시기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Tametsi futura prospicientibus*)의 정신을 토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구원에 필수적인 세 가지 원칙을 발견한 때였다. 그때에 그는 세 가지 원칙인 정신·의지·마음의 원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길·진리·생명이신 ‘스승’으로 받아들이듯이 이 회칙의 정신을 온전히 수용한 것이다. 두 번째 시기는 ‘스승 예수 신심’을 성 바오로에게서 발견한 때이다.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성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살고 소개해 준 선구자였다.

A. 다미노(Andrea Damino)는 복자 알베리오네가 제시하는 그의 영성은 몇 가지 직접적인 원천에 의해 조합되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아돌프 탕크레(Adolphe Tanqueray)의 『수덕·신비 신학의 개요 *Précis de Théologie Ascétique et Mystique*』의 전통적인 세 가지 길인 ‘정화의 길’, ‘조명의 길’, ‘일치의 길’이다. 여기서 탕크레가 제시한 것은 완덕에 이르기 위해 과거의 잘못에서 영혼을 정화하고(정화의 길),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그리스도교적 덕행으로 무장해야 하며(조명의 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오로지 하느님과 긴밀한 일치(일치의 길)만을 바라는 것이

다. 그러나 복자 알베리오네가 저술한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를 살펴보면 탕크레의 내용과 현격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탕크레는 ‘조명의 길’(빛의 길)에서 대신덕을 다루고 있는데 복자 알베리오네는 대신덕을 ‘일치의 길’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탕크레의 ‘완덕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조명의 길’에 다르게 배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자 알베리오네가 어떻게 이 주제들을 독자적이고 고유하게 다루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탕크레의 전개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둘째는 F. 키에사(Francesco Chiesa)의 저서 『삶의 열쇠 *La Chiave della Vita*』에서 여러 가지 개념 확립에 도움을 받았다. 특히 이 책에서 초자연적 상태로 고양된 인간은 현세에서 단련하여 미래를 완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사중구조로 제시하는데 지성은 ‘믿음의 생활’로 준비하고, 의지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탁하는 생활’로 준비하며, 마음은 ‘기도 생활과 실천적 삶’으로 준비해야 하며, 육신은 ‘극기의 생활’로 준비해야 한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이 사중구조에 맞추어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를 전체적으로 진술한다. 셋째는 키에사(Francesco Chiesa)의 또 다른 저서인 『수덕생활 입문』이라는 책인데 여기서는 영적인 삶의 단계에 핵심적 주제

들인 '은총', '성령', '종말'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 넷째는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다.

## 2. 스승 예수 영성의 특성

그런데 사도 바오로처럼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있어서는 뚜렷한 그리스도론을 제시하기 어렵다. 단지 그는 스승 예수님을 닮는 세 가지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론적 윤곽을 제시할 뿐이다. 이는 사도 바오로처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융합 차원에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지성에 중점을 두고 스승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리스도론적 의미를 살렸다는 점에서 사도 바오로와 구별된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부를 닮는 여정'으로서 '정화의 시기'에서 출발한다. 이 여정의 원리는 성부의 자비하심에 의한 인간의 재창조에 있다. 이 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우리의 지성을 하느님의 지성으로 풍요롭게 하는 단계이다. 왜냐하면 한 인간 인격의 존귀함은 한 인격의 지성에 의해 좌우되기에 '하느님에 대한 인식'으로 채워진 지성은 곧 성부를 닮는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재창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재창조'는 '우리 안에 하느님이 강생하시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강생하시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의 주도적인 자비하심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리스도화'의 첫 단계인 '지성

의 성화'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성자를 닮는 여정'으로 '조명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사는 원리인 지성·의지·마음의 원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길·진리·생명으로 온전히 사는 단계이다. 먼저 '지성의 성화'에서는 '성경 면학'과 '교리 면학'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면학을 통해서 진리이신 스승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조명해 준다. 다음은 예수님의 인격성 안에서 우리 '의지의 성화'이다. 여기서는 구원의 희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고통의 길'을 본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닮게 된다.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님과 만남을 통한 '마음의 성화'이다. 이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이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부와의 내밀한 관계로 인한 내면의 심오한 비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성취된다.

셋째는 '성령을 닮는 여정'으로 '일치의 시기'이다. 즉 스승을 닮는 여정인 성부·성자·성령 여정의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완성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신심'은 성삼위의 구조와 함께 '참 인간',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전인적인 성화'의 과정으로서 일치의 성령에 관해 말한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리고 우리 안에 스승 예수님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승 예수님의 정신(지성) 안에서 우리의 면학활동을 지속하고, 스승 예수님의 의지 안에서 우리의 인격수양을 완수하고, 스승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3. 스승 예수를 닮는 이의 고통

인간이 맞게 되는 죽음은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1테살 5,2),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마태 24,44) 갑자기 들이치는 폭풍우처럼 찾아온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준비는 죽음 너머에 대해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사랑의 생활을 하도록 부추긴다.

복자 알베리오네의 고통관(苦痛觀)은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인간은 세 가지 모습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말한다. 첫째는 죽음 앞에 선 인간으로서 죽음의 불확실성 때문에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둘째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인간으로서 죄는 하늘을 달아 버리게 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초래하게 한다. 셋째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짧은 시간이다.

그런데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있어서 고난은 사도 바오로처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전해 받은 ‘고난의 삶’이 아니다. 또한 복자 알베리오네는 사도 바오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사랑’ 때문에 받은 온갖 수모와 비난, 박해를 직접적으로 받지도 않았다.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있어서 고난은 ‘성부를 닮는 여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부 하느님 앞에서 인간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 봄으로서 발생하는 회심의 고난이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이 회심의 고난을 스승 예수님을 닮는 여정의 한 수단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복자 알베리오네는 가장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리스도인·수도자·사제가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양심을 지닌(양심성찰) 인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복자 알베리오네는 육신을 극복하는 어려움도 호소한다. 특히 그는 허약한 체질과 곡형(曲形)으로 굳어져간 척추 때문에 늘 자신의 몸에 가시적 징표를 달고 살았다. 하지만 선천적인 병약함과 허약한 신체조건조차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원의를 잠재우지 못했다. 그를 지탱시켜 주고 열정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그리스도 내 안에서 온전히 형성되어야 한다.’(갈라 4,19)는 바오로적 정신이다.

### 4. 스승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는 선포

복자 알베리오네는 복음선포의 모델을 사도의 모후이신 마리아와 성 바오로에게서 찾았다. 사도들의 모후라는 의미를 복자 알베리오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

는 마리아적 역동성 안에서 발견했다. 마리아적 역동성은 모든 사도들 안에서 모든 사도들이 완수한 것을 지금도 완수하고 있다는 차원, 모든 사도들을 형성하고 부양한다는 차원, 세상의 그리스도화는 마리아로부터 발생한다는 차원, 일반 사도직 외에도 인간의 모든 특별한 신심(기도·표양·교통·말·활동)의 사도직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의 모후이신 마리아는 인류에게 사도직에 임하는 모든 이들의 근본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자 알베리오네가 이해한 사도의 모후는 예수님을 살고, 예수님을 탄생시켜서, 예수님을 당신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기르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도적 사명의 보호자라고 보았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이러한 모범적 삶을 일상에서 받아들이고 살 수 있었기에 기도의 모범이시며 사도들의 보호자이신 사도의 모후의 눈길 아래에서 성 바오로의 정신으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선포 사도직에 투신할 수 있었다.

### 제3절 십자가 신학과 스승 예수 영성의 관련성

첫째,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 전승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에 의하지 않고 직접 받았다(1코린 11,23; 갈라 1,11-12)는 것과 전통을 통해서 그리고 전임자를 통해서 전해 받았다(1코린 15,3)는 상반된 입장을 표

명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주도권에 순응하는 그의 신학적 성찰이 가져다 준 결과이다. 특히 그가 ‘계시’를 통해서 받았다고 명시하는 것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자 복음의 내용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느님의 계시로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계시는 그리스도론의 핵심인 성자의 파견에 근원한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로마 8,3; 갈라 4,4) 이는 또한 사도 바오로가 점지되기 전부터 그분의 아드님으로 드러나심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도 바오로는 그의 신원에 있어서만큼은 그리스도적 근원에 확고히 설 수 있었다.

그리고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있어서 스승 예수 영성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교도권에 그 기원을 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교황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있어서 교회와 교황에의 일치는 각별하다. “늘, 오직, 모든 것에서 로마교회에 충실합시다. 이 교회 밖에서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황은 모든 세기의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켜주신 커다란 등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다른 증거는 필요 없습니다. 초창기 회원들은 네 번째 서원 ‘사도직에 관한 교황에의 순명’을 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오로는 그의 신원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고, 복자 알베리오네는 하느님의 아드

님의 대리자인 교도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현실적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부의 고난과 연결된다. 이는 니케아 신경(DH125)의 내용에 의해서 이해 되는데 ‘한 분이신 하느님과 한 분이신 주님(κύριος)’께서 계신다는 니케아 신경의 신앙고백은 이미 사도 바오로에게서 유일신론 맥락 안에 삽입되어 있다. “세상에 우상이란 없다.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1코린 8,4) “우리에게는 하느님 아버지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1코린 8,6) 이를 토대로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도 성자의 현실적 고난을 성부께로 상징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선포의 여정 중에 감내해야 했던 고난에도 그리스도론적 ‘사랑’ 안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복자 알베리오네의 고난은 사도 바오로가 제시했던 것처럼 성부와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의 중개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아직까지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가는 여정 중에서 유일한 길·진리·생명이신 스승

으로서 제시될 뿐이다. 그리고 복자 알베리오네는 성부와 인간 사이에 예수님의 고통에 관하여 말하지 않으며, 또 사도 바오로처럼 삼위일체적이지도 않다. 즉 ‘성부를 닮는 여정’에서 살펴본 대로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있어서는 성부와 인간 사이에 성자의 고난 역할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다. 그래서 인간의 고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연결되거나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성부 하느님께 연결되지 않다.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 인간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고난의 원인이 되었던 반면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있어서 인간은 성부 하느님 앞에서 정화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과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의 그리스도론적 측면에 관하여 우리는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온전한 하느님으로서의 본성과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지니신 동일본체(ὁμοούσιος τῷ Πατρὶ)임을 고백하게 된 신앙정식을 사도 바오로에 기인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는 사도 바오로에게 그의 존재 이유가 있었고 그의 모든 사도직의 근본 동인(動因)이 되었다.

이에 관하여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두 단계로 설명한다. 첫째 단계는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

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라 2,20)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의 정의는 사도 바오로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공했다. 이 믿음은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의 의로움을 위해 살지 않았다. 또한 자신만을 찾거나 자신을 앞세우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중요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오로의 새로운 정의이며 주님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방향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갈라 6,14) 즉 자기 증여의 최고 표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행한 정의와 자신을 위해 행한 정의,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1코린 1,31)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성의 둘째 단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의해 준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두 요소에 의해 확고해지는데 하나는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받은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어 ‘주는 것’에 있다. 사도 바오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와’의 동일화를 이루는 ‘신비’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상호 침투적인 작용은 믿음에 대한 사도 바오로의 정체성 확립에 있다.

그리고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있어서도 믿음으로 확신한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기능적 차원에서의 방법을 ‘스승을 닮는 여정’에서 제시하였다. 복자 알베리오네의 이 방법은 인간이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가능성을 방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죄로 인해 훼손된 인간의 품위를 ‘제자’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넷째, 사도 바오로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탁월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서간이었다. 그의 신학과 그리스도교적 사상이 이 서간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졌다. 그런데 복음선포에 관하여 루카의 시각으로 살펴보았듯이 특히 아테네에서 행한 사도 바오로의 복음선포는 지성인 사회에 통용될 만한 선교 기술을 한데 종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도행전에 수록되어 있는 24편의 복음선포 설교 가운데 이교도 철학자들 대상의 아레오파고 설교는 그 민족의 문화 속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리스도교의 과감한 홍보활동의 표본이 된다. 이

와 비슷하게 복자 알베리오네는 봉헌된 수도자들이 사회홍보수단을 활용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사회홍보물은 세속성과 가장 긴밀히 연관된다. 현대 세계에서 복자 알베리오네가 홍보수단을 통해 벌인 활동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특히 그의 영화 사도직에서의 활동은 종교·사회적 문화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통념을 제공했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사회홍보수단을 활용하는 이는 이수단들이 갖는 봉사적 가치를 평가하고 인류가 처한 새로운 여건 하에서 예언자적 음성이어야 한다는 강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오로와 복자 알베리오네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한 신앙의 인간이요, 사회홍보 사목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라고 하겠다.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수단으로써 '서간을 통한 사목'이 사도 바오로의 사목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복음에 봉사하기 위해 '기술 도구를 통한 사목'을 벌인 복자 알베리오네의 활동도 이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도 바오로와 복자 알베리오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포 활동이 단시일 내에 형성되지 않았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1934년 성바오로수도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보낸 첫 번째 회람에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형성될 때까지'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그 내용은 천상 스승을 닮아야 하는 충실한 의무에 관한 것이었다.

복자 알베리오네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스승 예수님을 닮는 신앙의 정신으로,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충실히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여러 성사들을 통한 모든 은총의 수단들을 선포할 때, 또한 스승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에페 2,21)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마침내 두 인물은 그리스도를 향해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도 바오로는 자신의 모든 신학과 그리스도교적 사상을 그 누구에게도 전해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듯이 복자 알베리오네 또한 성바오로수도회의 창립자를 오직 성 바오로에게 돌리고 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복자 알베리오네는 사도 바오로에게 종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께로 모아진다. 그리하여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은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3장에서는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과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이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전승-고난-그리스도(고백)-선포의 네 가지 측면에서 그 연결점을 찾아보았다. 즉 두 인물의 신학과 영성의 관련성은 첫째 그리스도의 근원에서 시작된다. 사도 바오로는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되고 복자 알베리오네

는 교회 교도권의 지침에 따라 그리스도와 관련된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신학의 ‘원천’과 복자 알베리오네 영성의 ‘기원’은 우리를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독려한다. 둘째 사도 바오로의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찾아오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고난으로 볼 수 있고, 복자 알베리오네의 고난은 길·진리·생명이신 성자를 닮는 데서 발생하는 자기 현신적 수고로움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사도 바오로의 ‘고난’과 복자 알베리오네의 ‘수고로움’은 우리를 ‘참 인간’으로 이끈다. 셋째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론은 신성과 인성이 온전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인간이 구원되리라는 확신을 가져다주었고 복자 알베리오네의 그리스도를 닮음은 죄인인 인간을 ‘제자’로 변화시켜 준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론’과 복자 알베리오네의 ‘그리스도를 닮음’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끈다. 넷째 사도 바오로의 복음선포는 기능적 수단의 사용과 전인적 투신으로 일관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선포였고 복자 알베리오네는 봉헌된 수도자로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되 선한 방식의 복음선포로 모든 이를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독려한다. 그리하여 사도 바오로의 ‘복음선포’와 복자 알베리오네의 ‘복음선포’는 우리를 ‘참 성인’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은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복자 알베

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은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을 이해할 때 더욱 선명해진다. 그래서 결국 복자 알베리오네의 영성은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 속에 녹아 있다.

### Ⅲ. 결론

이 연구에서 우리는 오늘날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은 일상의 신앙생활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기 위하여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을 도출해 내었다. 이에 우리는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에서 전승, 고난, 그리스도, 고백, 선포의 다섯 가지 주제로 살펴보았고,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을 스승 예수, 사도의 모후, 성 바오로 신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에서 회심을 전제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근원을 살펴봄으로써 전통과 전승의 그리스도 관련성을 알게 되었다. 전통과 전승은 먼저는 전임자로부터 받게 되지만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는 ‘계시’를 통해서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인간적인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오로는 삶으로써 증거했다. 그리고 둘째 사도 바오로에게 고난의 의미는 다름 아닌 현실적인 십자가의 길이였다. 사도 바오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고난의 길에만 머물

지 않았다. 그 고난은 성자 그리스도로부터 성부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는 고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죄로 인해 훼손된 인간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로 인해 발생한 인간의 고통이 성부 하나님께 상정되게 하는 중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차원을 융합시켰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라는 점은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참 인간이라는 점은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 하지만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오로가 그의 서간 곳곳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점을 드러내려 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넷째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 고백이 지니는 의미를 알 수 있다. 사도 바오로가 선포여행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향구한 고백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특히 그의 몇몇 서간에서 드러나는 찬가 형식의 그리스도 고백문들을 살펴봄으로써 사도 바오로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수용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선포여행을 통해서 그가 걸었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선포여행이 세 차례로 끝이 날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을 마저도 아깝지 않다(사도 20,24)는 사도 바

오로의 결의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그도 함께 걸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즉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할 때에 세상 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다.

결국 요약하자면 사도 바오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용은 먼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그의 십자가 이해는 이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전임자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해 받았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고난은 모든 인간적 자신감과 자부심을 깨뜨리고 그 고난을 상기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갈라 4,19) 인내와 자기 수용의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고 말할 수 있게 되는 변화의 과정이다. 이 변화의 과정은 단시일 내에 완성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 안에서 형성된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필리 1,21)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사도 바오로는 십자가 신학의 바탕이 있었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복음선포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 신학을 일찍이 간파했던 복자 알베리오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온전히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의 모범이신 분이였다. 다만 복자 알베리오네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 맞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스승이신 예수님’으로 바꿔 적용시켰을 뿐이다. 이 시대 온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를 가져다주고 사랑을 전해 주는 스승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즉 아직 십자가를 지고 갈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듯이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신심의 일차적인 목표는 온 인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복자 알베리오네는 인간의 지성이 가장 먼저 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정화의 과정을 통하여 빛으로 조명될 때 ‘그리스도화’된다고 말하였다. 복자 알베리오네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지 않고는 사도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 이유도 이 ‘지성’의 성화가 가장 시급하고 먼저 실천되어야 할 부분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스승 예수를 닮는 여정은 사도 바오로가 걸었던 십자가의 복음선포 여정에서 드러난 회심-양성-선포의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띤다.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에서 성부를 닮는 여정을 정화의 시기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정화의 시기의 핵심은 곧

회심이라고 살펴본 바 있다. 그리고 복자 알베리오네가 조명의 시기인 성자를 닮는 여정에서 길·진리·생명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지속적인 면학과 신심업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치의 시기인 성령을 닮는 여정에서 복자 알베리오네는 이웃과의 ‘친교’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복자 알베리오네의 스승 예수 영성의 핵심인 스승 예수 신심은 사도 바오로의 십자가의 복음선포 여정인 회심-양성-선포의 구조와 일맥 상통한다. 그래서 복자 알베리오네는 자신이 창립한 여러 수도회의 회원들에게 ‘스승이요 아버지인 사도 바오로’라고 가르쳤다. 이에 더하여 자신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무능한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복음선포 사도직들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오로와 복자 알베리오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지난 세월 속에서 멈춰버린 그분만의 사건이 아니며 끊임없이 인간과 하느님을 이어주고, 세상과 하늘나라를 이어주며, 우리를 지속적으로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라.”(마르 16,15)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실천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교회문헌

Paolo VI, *Evangelii nuntiandi, esortazione apostolica*, 1975년 12월 8일. (교황 바오로 6세, 사도적 권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 ▣ 성경 및 주해서

『성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주석성경(신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BibleWorks』, Version7.0.012g.

그닐카, J., 『필립비서-국제성서주석』, 김경희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1999.

바레트, C. K., 『코린토 전서-국제성서주석』, 한국신학연구소 1990.

제랄드 호든, 『빌립비서-WBC』, 채천석 옮김, 솔로몬출판사 1999.

제임스 던, 『WBC 로마서 1-8(38상)』, 김철·채천석 옮김, 솔로몬출판사 2003.

\_\_\_\_\_, 『WBC 로마서 9-16(38하)』, 김철·채천석 옮김, 솔로몬출판사 2005.

케제만, 『국제성서주석-로마서』, 한국신학연구소 1982.

헨헨, E., 『국제성서주석-사도행전(II)』, 한국신학연구소 1989.

### ▣ 사전류

게르하르트 킷털 외, 『신약성서 신학사전』, 요단출판사 1989.

### ▣ 복자 알베리오네 1차 자료

〈한국어 서적〉

알베리오네,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성바오로딸수도회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1981.

\_\_\_\_\_,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백기태 옮김, 바오로가족 2002.

\_\_\_\_\_,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성바오로편집부 2003.

〈외국 서적〉

Alberione, *Abundantes Divitiae Gratiae Suae*, SocietàSanPaolo, Roma 1998.(AD)

\_\_\_\_\_, *Appunti di teologia pastorale*, pratica del ministero sacerdotale per il giovane clero,

- Torino, Pietro Marietti, 1915,(ATP)
- \_\_\_\_\_, *L'Apostolato dell'Edizione*, Società San Paolo(ed) 1998.
- \_\_\_\_\_, *Carissimi in san Paolo*, Roma 1971,(CISP)
- \_\_\_\_\_, Centro Promozione e Formazione, *Catechesi Paolino*, ssp Roma 1986.
- \_\_\_\_\_,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 ssp Roma 1985,(DF)
- \_\_\_\_\_, *Haec meditare*, serie di dsercizi e ritiri in 8 volumi alle Figlie di san Paolo 성바오로딸에게 피정강론 총8권 중 3권, FSP-SSP, Alba-Roma 1941-1948,(HM III)
- \_\_\_\_\_, *Haec meditare*, serie di dsercizi e ritiri in 8 volumi alle Figlie di san Paolo 성바오로딸에게 피정강론 총8권 중 8권, FSP-SSP, Alba-Roma 1941-1948,(HM VIII)
- \_\_\_\_\_, *Divin Maestro*, Collezione ciclostilata, Raccolta sistematica per argomento della predicazione del Fondatore 창립자 강론 말씀 모음집 중에서, FSP Grottaferrata 1967-1969,(Pr DM)
- \_\_\_\_\_, *Regina Apstolorum*, Collezione ciclostilata, Raccolta sistematica per argomento della predicazione del Fondatore 창립자 강론 말씀 모음집 중에서, FSP Grottaferrata 1967-1969,(Pr RA)
- \_\_\_\_\_, *SanPaolo*, Collezione ciclostilata, Roccolta sistematica per argomento della predicazione del Fondatore 창립자 강론 말씀 모음집 중에서, FSP Grottaferrata 1967-1969,(Pr SP)
- \_\_\_\_\_, *Voto Verginità*, Collezione ciclostilata, Raccolta sistematica per argomento della predicazione del Fondatore 창립자 강론 말씀 모음집 중에서, FSP Grottaferrata 1967-1969,(Pr VV)
- \_\_\_\_\_, *Ut perfectus sit homo Dei*.(UPS II) 제2권, Albano-Ostia 1960-1962.
- \_\_\_\_\_, *Ut perfectus sit homo Dei*.(UPS III) 제3권, Albano-Ostia 1960-1962.
- \_\_\_\_\_, *Ut perfectus sit homo Dei*.(UPS IV) 제4권, Albano-Ostia 1960-1962.

▣ 단행본 자료

〈한국어 서적〉

『바오로가족 기도서』, 성바오로출판사 2002.

『회헌과 회칙』, 성바오로수도회 2002.

A.F. DA SILVA,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사상 안에서 본 영적 수련의 걸음』, 아리차 이탈리아 1981.

- 구이도, G., 『스승 예수: “Gesù, Maestro” nella spiritualità secondo Don Alberione』, 김영숙 옮김, 성바오로딸수도회 2009.
- 권터 보른캄, 『바울-그의 생애와 사상』, 허혁 옮김, 이화여자대학출판사 1981.
- 라메라, S., 『새 시대의 예언자 복자 알베리오네』, 박동욱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2005.
- 로핑크, G.,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신교선·이석재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2000.
- 롤포, L., 『하느님의 사람 - G. 알베리오네 신부의 생애』, 박청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1985.
- 리날도 파브리시, 박요한 영식, 『바오로의 열정과 복음선포』, 성바오로출판사 2000.
- 마르티니, C.M., 『바오로의 고백』, 서정화·홍순홍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1989.
- 몰트만, J.,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김균진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1992.
- 박영식, 『자유의 대현장』, 분도출판사 1998.
- 박태식, 『타르수스의 바오로』, 바오로딸 2006.
- 슈틀막허, P., 『바울의 기독교론과 화해신학』, 전경연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1989.
- 스힐레백스, E., 『교회직무론』, 정한교 옮김, 분도출판사 1985.
- 아돌프 탕크레, 『수덕·신비 신학 - 제2권 완덕의 삶』, 정대식 옮김, 가톨릭크리스찬 1999.
- \_\_\_\_\_, 『수덕·신비 신학 - 제4권 빛의 길』, 정대식 옮김, 가톨릭크리스찬 1999.
- 요아힘 그닐카, 『바울로』, 이종한 옮김, 분도출판사 2008.
- 요셉 라칭어, 『그리스도 신앙 - 어제와 오늘』, 장익 옮김, 분도출판사 2007.
- 요셉 라칭어,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 성바오로수도회 옮김 2009.
- 위더럽, D., 『바오로에 대한 101가지 질문과 응답』, 임숙희 옮김, 바오로딸 2008.
- 제임스 D. G. 던, 『바울 신학』, 박문재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 조반니 로아타, 『성소와 정신』, 김남수 옮김, 성바오로출판사 1974.
- 케제만, E., 『바울신학의 주제』, 전경연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1992.
- 크리스찬 베커, J., 『사도 바울』, 장상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1998.
- 토마스 R. 슈라이너, 『바울 신학』, 엄성옥 옮김, 은성출판사 2005.
- 한스-R. 웨버, 『십자가형의 전승과 해석』, 전경연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1989.

〈외국 서적〉

- Christoph Schönborn, *Gott sandte seinen Sohn*, Bonifatius, Paderborn 2002.
- Dunn, James D.G.,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Eerdmans Publishing 1998.
- Graham N. Stanton, *Paul's Gospel. St. Paul*, James D. G. Dunn(ed), The Cambridge Companion 2003.

Panimolle, S., *Lettura pastorale del vangelo di Giovanni*, III, EDB, Bologna 1984.

O'Donnell, J., *Hans Urs von Balthasar*, New York 2000.

Roatta, G., *Punti di riferimento della nostra vita spirituale*, (I: Mariologia,; II: Spirito Paolino,; III: Via, Verita, Centro di Spiritualita Paolina), Ariccia 1973.

#### ▣ 정기간행물

Girlanda, A., 『길·진리·생명』, 1982(11-12월호), 성바오로출판사.

김지철, 「한국 문화신학은 십자가의 거침들을 제거했는가 : 바울의 십자가 신학을 통해 본 한국문화신학」, 『복음과 문화』, 대한기독교서회 1991.

김창선, 「바울의 십자가 신학 - 십자가 신학의 중요성과 교회론적 함의」, 『장신논단』 19(2003/9),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노우재,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칼 라너의 구원론적 성찰(1)」, 『신앙과 삶』24(2011), 부산가톨릭대학교출판부.

레옹뒤푸르, X., 「사도」, 『신학전망』 46(1979/9),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몰트만, J., 「십자가에 처형된 하느님 : 하느님과 성삼위」, 성염 옮김, 『신학전망』 22(1973), 광주가톨릭대학교출판부.

염철호, 「자기 비움(Kenosis)과 들어높임」, 『신앙과 삶』 25(2012), 부산가톨릭대학교출판부.

#### ▣ 논문

전화용, 「성바오로팔수도회 창립자 알베리오네와 사도적 영성 연구」, 서강대학교수도자대학원 석사논문 1998.

#### ▣ 미간행 자료

알베리오네, 『그리스도와 바오로의 유사점』, 한국성바오로수도회 옮김.

\_\_\_\_\_, 『바오로 교리』 *Centro Promozione e Formazione*, 백기태 옮김, 성바오로수도회.

#### <인터넷 자료>

베네딕토 16세, 「수요일반알현」, 성베드로대광장 2008년 10월 29일, <[http://cafe.naver.com/panzer3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121&](http://cafe.naver.com/panzer3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121&)>



독후감

「순례자 아브라함2」을 읽고



##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육동현(요한 보스코) · 1학년

**송** 봉모 신부님의 책을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접할 때마다 성서학자로서의 그 해박한 지식과 놀랍도록 깊은 묵상들을 어찌면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 가시는지 늘 고맙게 생각하며 존경해왔습니다. 이번 여름 첫 학기 연수임에도 참석할 형편이 되지 않아 리포트를 쓰기 위해 신부님의 「순례자 아브라함2」를 접하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들어가는 글’에서 신부님께서 “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도움은 각자의 처지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유의해서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몇몇 단어들만 저에게 크게 다가오면서 저의 지나간 과거와 맞물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가슴에 남겨진 응어리가 풀리는 듯하고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저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찌면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것들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하는 확신이 더욱 들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썩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에 조금 욕심을 내어 30대 후반에 지방의 신설대학에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한창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또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다는 안도감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의욕적으로 교수생활을 했습니다. 또 온 가족이 그 지방으로 이사 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재미있게 살려고 했고 본당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생활과 본당 생활 등 모든 것이 잘 적응이 되고 순조로웠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또 성당에서는 전례 없이 젊은 나이에 사목회장에 선출되어 때마침 성당 신축에 앞장서 작지만 아름다운 성당을 지어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의 운영이 점점 비민주적이 되고 가뜩이나 열악한 재단의 자금운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많은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하고 내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학자적 양심과 신앙인의 자세를 내세워 바로잡도록 투쟁해야 하는지, 어설픈게 시작하면 저만 희생되고 찬란 속의 폭풍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저와 제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막상 결정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몇몇 동료, 후배교수들과 토론 끝에 소위 비리재단 축출과 대학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좋고 정의를 위한 투쟁이라고 해도 사학불패라는 사회 분위기, 주변의 무관심, 교육당국과의 견해 차이, 구성원간의 갈등과 분열 등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고 결국 비리재단을 축출하여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를 파견 받는 등 우리의 목적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분규로 학교 이미지는 실추되고 설립자가 거액의 학교 자금을 횡령해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실제 내부 사정은 분규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학교 존립이 위협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 임시이사회는 저를 총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하여 총장 업무를 보도록 결정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처음 분규를 일으키도록 주동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학교를 제대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자신이 없어 몹시 두려웠습니다. 저도 오랜 분규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지쳐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져 패닉 상태로 병원에 의존하였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제 소식을 들은 누님께서서는 하느님께 의지해야지 왜 의사들에게 의지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 뜻을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순례자 아브라함2」 103 쪽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속에는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장을 보고 그때 제가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친 와중에도 무언가 잘해 보려고 혼자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해결 방법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정작 하느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알량한 책임감 때문에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과 관련해 철저히 하느님을 신뢰하지만, 이 세상의 안위와 당장 필요한 하루하루의 양식과 관련해서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다가오면 우리 편에서 그 상황을 통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두려움에 떠다.”(104쪽)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105쪽)를 확신하지 못하니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는 주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더 큰 불행을 자초한 꼴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날들을 지내고 있는데 지방언론을 통하여 무언가 낚새를 췌 어느 교우께서 제 아내에게 다락방 기도모임에서 꽃동네 오웅진 신부님을 뵈러 가는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같이 가서 신부님을 뵈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당신도 학교를 운영해 보셔서 제 상황을 이해하겠노라고 하시면서 ‘당장 그곳을 떠나라. 그곳에 더 있으면 영혼이 상하겠다. 영혼이 상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은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면서 정말 오랜만에 생기가 들었습니다. ‘그래, 떠나자.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미련 없이 떠나자. 떠나야 할 자리는 두 개다. 하나는 학교에서 총장 직무 대행의 직책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도시다.’

그런데 또다시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사표를 내면 학내외 구성원들에게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 뻔하고 또 당장 어느 도시로 가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이번만은 저도 저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결정하자는 생각이 들어 지체 없이 사표를 내고 친척들이 모두 떠나버린 고향 춘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책 50쪽에 보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떠나라’와 ‘가거라’

두 가지다.”, “아브라함이 그것들로부터 온전히 떠나 하느님만을 의지할 것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저는 가족들에게 이후의 모든 일은 하느님께 맡기니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하자고 했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서 솔직히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는 저의 사표를 병가로 처리하여 언젠가 다시 복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쉬면서 저는 새로운 성당에 잘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평소 가지 못한 평일미사도 열심히 다니면서 그간 미루어 왔던 꾸르실료 교육도 받는 등 차츰 안정을 되찾아 갔습니다. 물론 후에 평교수로 다시 학교에 복직을 하게 되었지요.

오랜 기간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하느님께서 늘 저를 기억하시고 제게 꼭 필요한 만큼 마련해 주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께 내맡기는 것이다. 믿음이란 우리가 어디로 인도되는지 모르지만,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기에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53쪽)라는 문장이 새삼스럽게 제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그 당시 저 자신에 대해 절망스런 상황에서 오 신부님의 떠나라는 말씀은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그 뒤의 일들은 하느님께서 맡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에 성당 건축을 할 때 느꼈던 하느님의 신비를 저의 개인사에서 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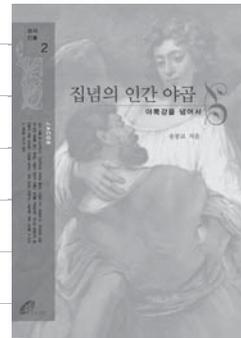
인간은 평생 무수한 떠남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기고 가다보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것인데 그 쓸데없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도 약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것임을 『순례자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년을 조금 앞당겨 학교에서 퇴직해 주어진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독후감이라기보다 제 이야기만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 마치 성사를 본 기분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야뻑강을 넘어서」를 읽고

## 하느님의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정민선(마리아) · 1학년

이 책은 지난해 창세기 그룹성서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의 소개로 처음 읽게 되었다. 너무나 유명한 송봉모 신부님의 책이라서 좋기도 했지만 이 책의 내용 중 내게 와 닿는 것이 많고, 성경에서 알지 못했던 행간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가장 열심히 본 책이다. 리포트를 쓰기 위해 두 번째 읽다보니 처음 읽을 때는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다가왔고, 놀랍게도 내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답을 준 구절도 있어서 참 행복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중에서 크게 와 닿은 두 가지를 적으려고 한다.



첫째, 에사우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약간의 배고픔과 조그만 고통도 참지 못하는 에사우는 급기야 육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영의 축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 역시 눈에 보이는 성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고 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아이들의 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눈에 보이는 학교 성적에 연연하고 있으며 영적 축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욕망 충족을 더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완전하고 성실

한, 그리고 영적으로 잘 준비된 그런 사람들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창조주이자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느님 곁에 꼭 붙어 있고, 야곱이 야벳강에서 끈질긴 씨름 끝에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집념을 가지고 하느님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내게는 절실하다.

둘째로, 라헬과 레아가 서로에게 가졌던 비교의식이 나 자신 안에 어둠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라헬과 레아가 비교의식 때문에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모습에 대단히 공감이 갔다. 쌍둥이로 태어난 나는 어릴 때부터 동생과 비교를 당하면서 성격상 모가 나버렸다. 일란성 쌍둥이인데 외모나 공부 면에서 우리 둘은 늘 경쟁심에 불타 있었던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YMCA 캠프를 갔는데, 캠프에 참석한 모든 남학생들이 동생한테는 지대한 관심을 가진 반면, 똑같이 생긴 나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다. 사춘기 소녀로서 대단히 속이 상했다. 나 자신을 숨기고 싶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왜 동생만 관심을 받고, 나는 왜 인기가 없나? 동생의 볼에 팬 보조개 때문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욕심 많고 예민한 나를 힘들게 했다. 그때 이후로 동생과 같이 다니는 것을 피하고 나름 정체성을 찾으려는 마음에서 개신교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된 것 같다.

하지만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과 좌절은 대학교 때 단짝 친구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자타공인의 단짝인 그 친구와는 우정이 남달랐다. 하지만 우리 둘 사이에 남자 선배나 남자 동기가 끼어들면 문제가 되었다. 나는 항상 내가 더 관심 받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친구와 비교하며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반대로 내가 더 관심 받는다고 생각하면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우월감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4년을 보냈다.

졸업 후 취직과 결혼을 하면서 나의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의 이 고질적인 비교의식이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어둠임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책에서 나를 위로해 주고 치유시켜 준 구절이 있다. “시기심은 궁극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나의 마음과 행동이 결국은 내 동생, 내 친구, 내 아이들, 아이들의 친구 엄마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느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나는 비교의식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나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창조 의식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많은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나는 그걸 보거나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 나의 남편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세상의 잣대로 비교해 가며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지 못했다. 이런 나를 비교의식의 늪에서 꺼내주시고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셔서 참 행복하다.

이 책을 통해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느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정말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적어보며 마무리하려고 한다.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을 걷어차도, 우리가 그분을 무시해도, 우리가 그분을 거절해도, 우리가 그분을 경멸해도, 우리가 그분에게 반항해도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하느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사랑을 감할 수 없고,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우리의 바보스런 행위가 그 사랑을 위태하게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충실함이 그 사랑을 벌어들일 수 없다. 하느님은 우리가 실패했기에 덜 사랑하고 성공했기에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88쪽)

「일상도를 살아가는 인간」을 읽고

## 가까운 사람과 오늘

윤영욱(베드로) · 2학년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왜 나와 가장 가까운 아내, 자녀, 부모님의 관계를 소홀히 했는지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내가 '오늘을 중시'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은 '오늘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매일 만나는 가족들! 나는 그들을 대할 때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하지 않고 대충대충 대했던 것이다. 나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무성의하게 대했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반성 겸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굳이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도 모레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미루고 미루다 그리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족에게 잘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오늘에서 내일로 미루면서 결국 한 달이 가고 일 년, 이 년이 갔던 것이다. 반면에 어쩌다 만나는 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있는 아양 없는 아양 다 떨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것이다. 어쩌다 한 번 만난 나의 이미지가 상대방에게는 거의 평생 동안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가족한테는 언제든지 만회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함부로 했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오늘(현재)이 가장 중요함을 누누이 강조한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생활도 오늘 지금이 가장 중요할 것이 아니겠는가? 가족 구성원 간에 내일은 없고,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정성껏 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치 내가 애인이나 직장의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듯, 나의 가족들한테도 그런 노력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자는 하느님은 당신 속성상 오늘을 살게 하시지만, 마귀는 내일을 살도록 이끈다고 말했다. 마귀는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고 살도록 유혹한다고 했다.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이기도 하다. 그동안 나는 오늘보다도 내일이, 내일보다도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부터는 내일보다는 오늘이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내일 잘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잘하라는 말은, 내가 앞으로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가슴에 새겨놓고 싶은 구절이다.

저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느님은 성전 건축에 종사하는 자들이 한 달 이상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며, 만약 한 달간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으면 다음 두 달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그 다음 다시 한 달간 성전 건축에 종사하도록 지시하였다(1열왕 5,28)는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결코 하느님의 성전 건축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일임을 역설하였다.

이 책이 나에게 두 번째로 강렬하게 던져준 메시지는 ‘선택과 결단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보면, 갖가지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기고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질대로 응수한다고 한다.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환경에 되는 대로 반응하면서 사는 한, 봉헌된 하루를 살아가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자는 리처드 칼슨의 말을 빌려, 누군가가 던진 공을 무조건 잡지는 말라고 권한다. 누군가가 던진 공을 반드시 잡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몰상식한 청을 해올 때, 그 공을 즉시 받아서 화를 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누군가가 반대 의견이나 비평을 해달 때, 그것을 껌싸게 받아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지 않고 하루를 평온하게 보낼 수도 있다. 누군가 문제를 던졌을 때, 그것을 반드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은 평화를 지켜내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일상도를 살아가려면 누군가가 던진 공을 받을 것인지 받지 말아야 할 것인지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과거처럼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받

을 것인지 받지 말아야 할 것인지,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 그때마다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크고 중요한 일만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일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저자는 권하고 있다.

이 책이 나에게 셋째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가상적 걱정’을 멀리 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들을 상상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질 때 좋아하는 것은 마귀뿐이라는 것이다.

어느 성인은 근심 걱정은 마귀의 운동장이라고 했다. 마귀는 가상적인 비극의 씨앗을 우리 안에 뿌리고는, 우리의 평화를 갇아 먹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에 많은 공감이 갔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적 걱정거리만 대면하고 가상적 걱정거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걱정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나도 앞으로는 쓸데없이 걱정을 하며 평화를 깨고, 마귀가 좋아할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본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오늘의 중요성’을 나의 다짐으로 되새겨 본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에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일 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99~100쪽)



## 삶의 기원을 찾아가는 성지순례 3

김인순(가브리엘라) 수녀 · 졸업생

### 성모님 수유동굴과 성 예로니모 동굴

우리는 예수님 탄생 기념성당이 있는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먼저 성모님 수유동굴 성당을 찾아갔다. 정문 위에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젖을 먹이는 성상이 있는 성당으로 들어서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계단 벽에는 성가정이 이집트로 피난하는 모습과 젖을 먹이고 계신 성모님상, 가브리엘 대천사상 등이 놓여 있었다. 전승에 의하면 이곳은 성가정이 이집트로 피난하면서 잠시 머물면서 성모님께서 갓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셨다고 하는 장소이다. 동굴은 전체가 하얀색이었는데 그 이유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에게 젖을 주다가 한 방울이 동굴의 돌 위에 떨어졌는데 그때 갑자기 동굴이 하얗게 변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우유동굴성당'이라고 불린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성가정의 신비를 너무 미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이 성당은 종교를 초월하여 어머니의 모성을 보여주는 장소로 사랑받는다고 한다. 이 동굴을 순례한 많은 불임 여성들이 아기를 낳은 다음 봉헌한 기도문과 예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연세 드신 작은형제회 수사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다양한 봉헌물들을 가리켜 보였다.

수유동굴에서 5분 정도 걸어서 예수님 성탄성당으로 이동했다. 예수님 성탄성당으로 들어간 우리는 성당 옆의 수도원 회랑을 따라 성 가타리나 성당이 있는 곳으로 갔다. 가타리나 성당의 지하에 있는 예로니모 성인(St.Jerome 347-420년)이 사시던 동굴로

간 것이다. 예로니모 성인은 평생을 예수성탄성당 옆에 있는 동굴에 살면서 4세기경까지 히브리어 성경만 있던 <구약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셨고 베들레헴에 수도 공동체를 세우셨다고 한다. 예로니모 성인이 사시던 동굴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주위가 깜깜해졌다. 전기가 나간 것이다. 어둠 속에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 불 켜진 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초를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는 자매들의 움직임이 동굴 벽에 신비스런 그림자로 비쳤다.

오래된 토굴은 안쪽으로 이어졌다. 곳곳에 성모 마리아의 배필인 요셉 성인께 봉헌된 제대와 무죄한 어린이들의 제대, 그 다음으로 예로니모 성인의 무덤 제대가 나타났다. 특히 성인의 무덤 제대 위 벽에 걸린 십자가가 마음을 끌었다. 그 다음 동굴은 예로니모 성인이 성경을 번역하고 기도생활을 하던 서재로 벽에는 천사가 예로니모 성인에게 지혜를 전해 주는 벽화가 있다.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한 작은 창도 있었는데 그 창은 하늘이 보이는 밖으로 통하는지 궁금했다. 그동안 예로니모 성인이 히브리말 성경을 라틴말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을 만드신 분인 것은 알았지만 이곳 예수성탄성당 옆 동굴에서 사신 것은 처음 알았다. 예수님 탄생지 옆, 동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거의 고행에 가까운 삶이 아니었을까. 예수님과 말



---

씀에 대한 예로니모 성인의 단순하고 숭고한 열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이외에 386년부터 베들레헴에 정착하여 예로니모 성인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수도 생활을 했던 바울라 성녀와 바울라의 딸 에우스토키움 동정성녀에게 봉헌된 제대가 있다. 이 바울라 성녀는 우리가 방문한 수유동굴성당을 지은 분이라고 한다. 이 모든 것이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러면 4세기경에는 이 지역이 광야였고 동굴 지역이었을까?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옛 성인들의 흔적을 더듬다가 밝은 지상으로 올라오니 마치도 한순간 꿈을 깬 것 같았다.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가타리나 성당의 경당으로 갔다. 아치형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작은 경당은 우리 일행으로 꼭 찾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순절의 첫 주간미사를 드렸다. 복음은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었다. 유혹은 시련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와 추구해야 할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밝혀주는 시련의 다른 이름. 김영남 신부님은 강론을 통해 '순례의 감동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보느라 예수님의 역사적 현존과 가르침을 잊고 단순한 여행자가 될 위험을 다시 한 번 당겨주셨다. 신부님의 말씀대로 이 은총의 땅에서 걷고 숨 쉬는 복된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추슬렀다.

## **예수성탄성당(CHURCH OF THE NATIVITY)**

미사를 마친 다음 다시 예수성탄성당으로 돌아오기 위해 아르메니아 정교회 수도원 회랑을 지났다. 오래된 전통이 배어나는 수도원의 정취가 깊게 묻어나는 회랑을 걷는 것이 좋았다. 돌로 지은 오래된 건물로 지금도 수도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투박하고 거대한 석조건물인 예수성탄 기념성당의 건물 정면은 3개 수도원의 벽(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작은형제회)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당 정면에 원래 있던 세 개의 문 중 두 개는 막아 버리고 가운데 문만을 남겨놓은 흔적이 보인다. 우리가 드나드는 현재의 문도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두 번이나 크기를 줄였기 때문에 성곽과 같은 거대한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

몸을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낮고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간 성당 안은 운동장만큼이나 넓게 느껴졌다. 높은 천정 양편의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돌기둥에 부딪치며 성당 내부로 쏟아지고 있었다. 여기 저기 여러 나라에서 온 순례자들이 많았지만 성당이 너무 넓어서 그런지 복잡하지 않았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성녀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굴 터에 처음으로 성당을 지은 이래 이곳은 수많은 역사가 덧칠해졌다. 성녀가 324년에 지은 성당은 대지진과 사마리아인들의 폭동 때 불타버리고 우리가 순례하는 현재의 성당은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531년에 지은 것이다.

성당 바닥에는 헬레나 성녀 시대의 모자이크 조각들이 남아 있었다. 성당을 등분하는 40여 개의 돌기둥의 위편에는 동양화 같은 느낌이 드는 십자군 시대의 무채색 모자이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레바논 삼나무를 손으로 깎아 화려하게 장식한 이콘으로 꾸민 중앙제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굴 위에 위치하고 있다. 수많은 향로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향이 제대를 둘러싸고 있었다. 여기저기 걸려 있는 동방교회 특유의 상징이 가득 담긴 화려한 이콘들이 눈을 끌었다. 지하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는 마음속 기도를 담아 초를 봉헌했다.



---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굴로 내려가기 위해 제대 오른편으로 내려갔다. 다른 순례자들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간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은빛의 ‘베들레헴의 별’로 표시되어 있었다. 예수성탄성당은 부분으로 나누어 여러 교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장소를 가리키는 이 베들레헴의 별은 가톨릭교회 소유라고 한다. 1847년 그리스 정교회 쪽에서 이 별을 훔친 사건으로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났고 크림전쟁(1854-1856년)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평화의 왕이 오신 곳에 평화가 없었던 것이다. 라틴어로 “Hit de Maria Virgins Jesus Christus Neats est.”(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라고 새겨진 베들레헴의 별은 14각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십자가의 길 14개 처를 상징하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14대, 그 후부터 예수님까지의 14대를 상징한다고 한다. 예수님이 오신 2천 년 너머의 구약에서 이어지는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신비를 이 은빛별로 상징해 놓은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이신 분이 세상에 오시어 새로운 계약의 시대를 연 거룩한 동굴 바닥에 엎드려 입을 맞추었다.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하느님의 겸손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탄생 동굴을 지나 3~4m 정도 더 내려가면 아기 예수님을 눕혔던 구유가 있던 성탄 동굴 자리가 있다. 모두들 예수님을 받아 안은 복된 구유가 있던 곳을 조배하고 다시 좁은 계단을 통해 성당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야 하는 작은 문을 통해 성당 밖으로 나왔다. 성채 같은 성당을 되돌아보며 거대한 건물 지하에 자리한 아주 작은, 그러나 우주적인 의미를 가진 거룩한 장소,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 깊이 기억했다.

우리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오래된 상가가 늘어선 평화광장까지 걸어갔다. 광장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울광장 같은 곳은 아니고 관공서 앞 적당한 공터에 상가와 식당이 있는 곳이었다. 우리가 들어간 식당은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지만 오래된 중국음식점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였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요리인 양고기꼬치와 튀긴 고기요리를 먹었다. 그런 다음 가이드는 우리를 아랍인 지역에 있는 규모가 큰 기념품 판매소로 안내했다. 자매들이 선물을 고르는 동안 나는 먼저 밖으로 나왔다. 잠깐이라도 아랍인 거리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멀리 갈 수는 없었고 기념품 가

계 앞길을 건너서 주변을 돌아보았다.

낮은 담이 쳐진 집들이 늘어선 거리는 초라하고 조용했다. 오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쓸쓸했다. 다시 차를 타고 차창 밖으로 유대인 지역과 아랍인 지역을 구분하는 장벽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지역이 나뉘고 고립됨으로써 가족이 분열되고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갈 수 없게 되는 등의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 때문에 사람과 생산품들의 이동이 제한되어 경제적 파괴가 심각한 지정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피폐해질 것인가. 사람들의 표정 없는 얼굴과 허름한 차림새, 낮은 주거환경으로 아랍인 지역은 금방 표시가 난다. 팔레스타인 구역 쪽의 분리장벽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아랍인들의 분노를 드러내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나치정권에 의해 잔혹한 인종말살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요즘 팔레스타인에게 하는 가혹행위와 억압정책을 보면 이들이 하느님이 명하신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거룩한 땅을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이기심과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해 본다.

## **아인카렘(EIN KAREM) 그리스도교인들의 마음의 고향**

아인카렘으로 이동하는 버스는 예루살렘 시내의 혼잡한 교통사정으로 자주 멈췄다. 경사진 거리는 도로 확장공사가 한창이었다. 주변에 보이는 건물들은 모두 흰색으로 주택은 층수가 높지 않고 작은 편이었다. 예루살렘 길거리는 넓어야 4차선이였다. 때문에 곳곳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탄 차는 자주 멈추면서 복잡한 시내를 빠져나갔다. 덕분에 시내 풍경과 지나다니는 유대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버스 정거장 근처에 서 있는 여학생들, 꼬불거리는 귀밑수염을 기른 남자가 검은 양복 단추를 목까지 채우고 검은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마리아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를 받고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간’(루카 1,39-46) 아인카렘은 골짜기 사

이로 올리브 나무와 포도밭이 펼쳐지는 산간지방이었다. 북잡한 예루살렘 도심에서 서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인카렘은 ‘포도밭의 샘’이라고도 한다. 것처럼 풍요로운 이름을 가진 아인카렘에 도착하니 공기까지 평온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먼저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과 즈카리야의 집

터 위에 세워진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성당을 찾아갔다. 성당은 양편으로 기념품점이 늘어난 좁은 길 막다른 곳에 있었다. 성당에는 세례자 요한의 일생을 그린 커다란 성화가 그려져 있었다. 중앙 계단 왼쪽의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면 세례자 요한이 탄생한 동굴이 있다. 그곳의 탄생 경당 제대 아래 대리석에는 “HIC PRAECURSOR DOMINI NATUS EST.”(여기서 주님의 선구자가 나셨다.)라고 새겨진 글이 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루카 7,28; 마태 11,11)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은 선구자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장 큰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 하지만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요한 3,30)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늘 뒤로 사라지고자 했다. 그의 겸손은 자신의 탄생지인 아인카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방문한 곳으로 더욱 잘 알려지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다.

성당 마당에는 여러 나라 말로 된 즈카리야의 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봉헌한 기도문도 있었다.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성당을 나오면서 작은 기념품 가게 안에 진열된 다윗의 별 목걸이를 보았다. 그 순간, 또다시 오래전에 이곳에 왔던 느낌이 일어났다. 울퉁불퉁한 좁은 돌길로 이어지는 오래된 골목과 시골풍경이 어찌 이다지도 정겹고 낮익을까. 과거와 현재가 성경의 세계 안에서 하나로 통해서 그런가.

마을은 언덕에 둘러싸인 산간지방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무성했다. 계절로 치면 겨

울이지만 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 우리나라 ‘고향의 봄’ 같은 느낌이었다. 담장에 늘어진 식물과 활짝 핀 꽃들이 흐드러진 오래된 집들이 정감 있었다. 열서너 살쯤 보이는 금발의 유다 소년이 빨간 자전거를 끌고 온통 식물에 싸인 대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한쪽의 영상이었다. 열린 대문 사이로 보이는 집 마당에도 화초가 가득했다.

제법 긴 계단을 올라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 기념성당에 들어갔다. 성당 정면에는 천사의 인도를 따라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마리아의 모습과 함께 ‘여인들 가운데 축복받으신 분’(Benedicta tu in mulieribus)이라는 글이 새겨진 커다란 모자이크화가 우리를 맞이했다. 지하성당과 이층성당으로 이루어진 이 성당은 1955년에 지은 것이지만 원래는 세례자 요한 탄생 기념성당과 같이 비잔틴 시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동굴 터에 자리 잡은 지하성당 중앙 벽에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성화가 있다. 왼쪽 벽에는 예루살렘 성전 주님의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즈카르야,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수 탄생 이후 베들레헴 근처의 두 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살해당할 때에(마태 2:16)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숨겨주었다는 외경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었다. 그림 아래 벽 속에 있는 세례자 요한을 숨겨준 ‘기적의 바위’를 볼 수 있었다.

아치형으로 꾸며진 이층성당은 마리아의 영광을 찬미하는 주제로 꾸며졌다. 성당 중앙의 제대 벽에는 나자렛을 떠나 유다 광야를 걸어오시는 마리아가 천상 성인 성녀들과 세상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의 그림이 있어 순례자들의 눈과 마음을 잡아당긴다. 이 같은 마리아의 여정은 순례의 여정을 걷는 모든 믿는 이들의 표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아인카렘은 나자렛에서 100km나 떨어진 곳으로 버스로 2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2천 년 전에 열서너 살의 소녀였던 마리아가 걷기에는 사나흘은 넘게 걸리는 거리이다. 어린 소녀가 여행 중에 만나는 위험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용기는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하느님의 돌보심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기나긴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하느님의 ‘때’가 왔을 때 ‘네’라는 응답으로 세상에 새로운 희망과 구원을 가져오신 마리아. 성당 안은 교회 안에서 불리는 마리아의 호칭을 보여주는 멋진 그림들로 차 있었다. 로사리오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성모님의 도움으로 터키군을 물리친 레판토 해전), 은총의 중개자(예수님의 첫 기적을 일으키신 카나의 혼인잔치) 하느님의 어머니(마리아를 천주의 모친으로 선포한 431년 에페소 공의회),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그리고 그림 사이에 그려진 천사들의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성당 정원의 벽에는 41개 나라의 말로 쓰인 마리아의 노래가 있는데 한국어판 마리아의 노래는 대구대교구 이문희 대주교님의 아버님이신 한솔 이효상 씨의 친필로 씌어져 있다.

온통 하얀 아몬드 꽃과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골짜기와 그 너머에 있는 세례자 요한 기념성당의 탑과 지붕을 바라보며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 기념성당 계단을 내려오면 ‘마리아의 샘’을 만난다. 그 옛날 성모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이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지금도 돌 틈으로 가느다랗게 물이 흐르고 있었다. 2천 년 전, 이스라엘이 구원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을 때 ‘네’라는 응답으로 이 세상에 하느님의 때가 올 수 있도록 협력하신 마리아와 그의 사촌 엘리사벳. 두 여인의 만남과 기쁨을 아직 잠들어 있는 세상은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온전한 행복이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데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는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의 어머니가 되신 것이다. 마리아의 겸손한 순종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준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 드리는 ‘네’가 되길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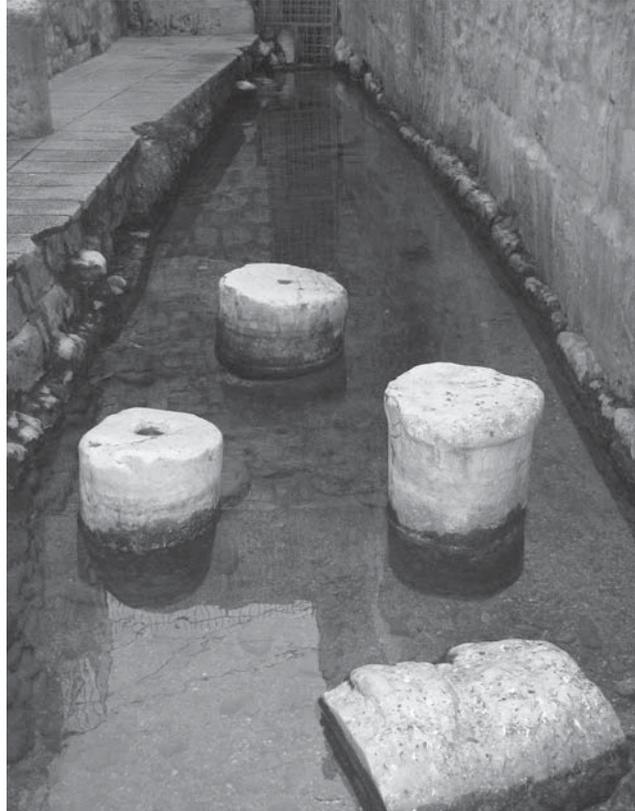


## 실로암 연못(Silviam Pool)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옛날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 산 지역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축제 동안에 태생소경의 눈을 치유해 준 장소인(요한 9,7-11)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길은 옛 다윗 도성이 있던 곳이어서 대대적인 발굴작업을 하고 있었다. 곳곳의 땅이 파헤쳐져 있어서 철제로 된 설치물과 널빤지를 밟고 지나야 했다.

실로암 연못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다윗의 도성을 이어받은 히즈키야 임금의 기원전 7세기경에 만들었다. 히즈키야는 수로와 도시 성벽을 확장 보수하여(2역대 32,1-23) 솔로몬 시대보다 3배 정도의 규모로 예루살렘 성을 확장하였지만 아시리아 제국 산헤립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성이 포위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성 밖에 있던 기혼 샘의 물을 다윗 도성의 바위 아래를 파서 만든 500여 미터 정도의 수로를 통해 성안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들었다고 한다.(2역대 32,30)

자그마한 이슬람 사원 옆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니 커다란 대리석 토막이 잠겨 있는 작은 물길이었다. 예수님 시대 실로암 못은 아주 넓고 큰 못이었다는데 지금은 비잔틴 시대부터 있었다는 성당의 대리석 기둥들이 잠겨 있는 작은 개울이었다. 예수님은 이 못의 물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고(요한 9,1-12), 실로암 탑이 무너져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다.(루카 13,4-5) 실로암은 ‘파견된 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파견되었다.



---

물은 철창문이 달린 킴킴한 히즈키야 터널을 통해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2천 년도 훨씬 먼 옛적부터 흐르던 물은 지금도 깨끗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바위를 파서 만든 수로는 한 사람이 지나갈 만한 폭이었다. 물이 흐르는 바위 속 어둠을 따라가면 지금도 물이 솟는 기혼 샘에 이른다고 한다. 히브리어 '기혼'(gihah)은 '힘차게 분출하는'이라는 뜻으로 지금도 기혼 샘은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어둠을 지나는 물길을 따라가 샘에 이르면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을 몸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 통곡의 벽(WESTERN WALL)

그 다음은 옛날 하느님께서 거쳐하시던 지성소가 자리했던 성전의 일부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귀중한 성역이며 마음의 고향인 통곡의 벽을 보러 갔다. 일반적으로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벽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 서쪽에 있던 벽이다. 기원후 70년 로마인들에게 파괴된 예루살렘 제2성전 가운데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유적지이자 마지막 유적지로 비잔틴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희망과 순례의 중심이 되고 있다. 19세기 말부터는 민족의 단결 및 구원의 상징적인 장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물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곳을 찾아와 기도를 드린다. 이 통곡의 벽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는 들어가는 입구에 검색대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었다. 한 사람씩 검문대를 통과해 커다란 광장으로 들어섰다.

이 광장터는 2천 년 전까지는 성전과 마을을 가르는 깊은 골짜기였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이슬람이 팔레스티나를 정복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 자리 위에 지은 '바위 돔 사원' 혹은 '황금돔 사원'의 지붕이 바라다보였다. 이슬람 전승에 의하면 이곳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한다. 예루살렘 구시가지는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아르메니아 정교회, 유대인들의 중요 성지가 모여 있는 곳이기도 했다. 통곡의 벽 기도처는 남성 구역과 여성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여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벽은 남쪽 방향으로 가야 했는데 남성들의 기도처보다 삼분의 일 정도의 규모였다. 할머니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저마다 간절한 표정으로 벽을 향해 서서 성경을 읽거나 손을 합장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많은 사람 사이를 비집고 다가간 성벽

돌 틈에는 하느님께 바라는 기원을 적은 쪽지들이 빼곡하게 끼워져 있었다.

결혼식을 올리러 가는 웨딩드레스 차림의 여성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벽 쪽으로 다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모두들 열심히 기도하였다. 오늘날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민족주의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끈질긴 신앙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다시 광장에서 만나 예루살렘의 북쪽 성문인 다마스쿠스 성문 안쪽으로 갔다. 그곳에는 70년경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길 '카르도' 유적이 남아 있었다. 그 길이 끝나는 곳에 그려진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예수승천 기념경당(THE CHAPEL OF THE ASCENSION)

올리브 산 정상에 있는 예수승천 기념경당으로 갔다. 산 정상이라고 하지만 평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오래된 돌 벽에 있는 작은 아치형 문으로 들어갔다. 팔각



형의 돌담 한가운데 둥근 돔을 인 오래된 석조건물이 있었다. 아무 장식이 없는 내부는 건조하고 가라앉은 느낌이었다.

원래 예수승천 기념경당은 팔각 모서리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없이 하늘을 향해 열린 모양이었는데 이슬람교도들이 성전으로 사용하면서 돔을 덧씌워 놓았다고 한다. 이곳이 ‘안식일에 걸어도 될 만한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올리브 산(사도 1,1-12)인 예수님의 승천 장소였다. 옛날부터 예수님의 승천 장소로 알려진 올리브 산 정상에 경당이 세워진 것은 비잔틴 시대 때(387년)였다고 한다. 그 뒤로 많은 종교전쟁을 치르면서 경당의 소유는 여러 종파로 이전되었는데 현재는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만은 아닌 것 같았다. 경당 안으로 들어서니 널찍한 공간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남기셨다는 오른쪽 발자국이 찍힌 바윗돌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만진 바위는 반들반들하게 닳아 있었다. 그 바위를 바라보며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그려보았다.

## 주님의 기도 기념성당(THE CHURCH OF THE PATER NOSTER)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에서 남쪽으로 약 5분 정도, 거리로 치면 약 100여 미터쯤 떨어진 곳에 주님의 기도 기념성당이 있었다. 이 성당은 예수무덤-부활 기념성당과 예수탄생 기념성당과 함께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헬레나 성녀가 지은 3대 동굴성당 중 하나이다. 성녀 헬레나는 326년에 이 성당을 지었다. 그 뒤로 예수승천 기념경당처럼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이슬람교도들에게 넘어갔다. 1868년에 프랑스의 공주 오렐리아 드 보씨가 이 성전을 구입해 가르멜수녀회에 관리를 맡겼다고 한다.

널찍한 계단을 통하여 성당으로 올라갔다. 성당과 수녀원은 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백색의 단순한 아치형의 회랑(Chiostrò del Pater)과 수녀원 담 벽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된 주님의 기도문이 전시되어 있는데 부산교구에서 기증한 우리말로 된 주님의 기도문도 있었다. 회랑을 지나 지하 소성당으로 가면 4세기경의 성당 유적이 보존되어 있다. 소박한 제단 옆으로 그 옛날 예수님이 혼자,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머무



시던 동굴 터가 있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청했을 때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마태 6,9-13; 루카 11,1-4) ‘어떤 곳’ 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자주 이곳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기도 하셨다.(마태 24,1-3; 마르 13,1-2; 루카 21,5-6)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동굴을 바라보면서 마을과 떨어진 한적하고 낮은 산언덕인 이곳에 모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던 제자들의 행복한 시간을 상상했다. 아버지께 드리는

커다란 신뢰의 기도를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많이 기뻐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덧붙여 당신 삶의 비법인 기도 방법도 제자들에게 전수하셨다. “끊임없이 간청하여라.” 아버지께만 모든 것을 바라는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한마디씩 새기면서 그 옛날 제자들이 한 것처럼 단순한 마음을 주시길 청했다.

###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가이드를 따라 올리브 산 중턱으로 갔다. 키드론 골짜기 너머로 현대적인 건물과 옛 건물이 어우러진 예루살렘의 모습이 펼쳐졌다.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돔 사원과 다윗의 도성이 보인다. 예루살렘을 대표할 만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돔 사원은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가 승천한 바위가 있는 곳이며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외아들을 바치려 했던 곳이다. 전 세계 그리스도교인·유대인·이슬람교도들의 마음의 고향인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오른쪽으로는 어제 우리가 다녀온 예수성탄 기념성당이 바라다보였다. 우리가 서 있는 올리브 산과 키드론 골짜기 너머의 예루살렘 일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예사롭지 않았다.



황금사원의 문은 예루살렘 대성전으로 직접 통하는 골든게이트로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마르 11,1-11) 통과하신 문이라고 한다. 이 성문은 1530년 터키 군에 의해 폐쇄되었고,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감싸고 있는 성벽의 문들도 모두 막혀 있었다. 우리가 있는 곳 가까이에 유대인들의 공동묘지가 있었다. 유대인들은 올리브 동산을 '여호사밧'(하느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 언덕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 때 무덤에서 부활하여 키드론 계곡 너머에 있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모이기를 희망하며 예루살렘 성이 바라다보이는 이곳에 묻힌다고 한다. 마침 묘지에서는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다. 겻세마니 동산 앞의 키드론 계곡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무덤이 있고, 예루살렘 대성전 옆의 성곽 앞에는 이슬람 신자들의 공동묘지가 있다. 예루살렘 대성전과 올리브 동산에 3대 종교의 공동묘지가 모여 있는 것이다. 영원한 부활의 희망을 지닌 모든 종교가 하느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은 언제일까.

### **사도들의 동굴과 성모님 무덤성당**

고뇌의 대성당 뒤편으로 성모님의 무덤동굴과 사도들의 동굴경당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성모님 무덤동굴 정문 옆으로 담을 따라가면 사도들의 동굴경당이 나온다. 사

도들의 동굴경당은 예수님께서 겿세마니 동산에서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마태 26,36) 하신 장소로 ‘돌을 던지면 땅을 만찬 곳’(루카 22,41)이기도 했다. 전승에 의하면 이곳은 예수님께서 쉬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대화하기 위해 자주 들르시던 장소라고 한다. 동굴은 야산의 추운 밤공기를 피할 수 있을 만큼 아늑했다.

동굴 안 제대 아래 양 옆에는 슬픔과 두려움에 싸여 잠에 빠진(루카 22,45) 제자들을 묘사한 청동상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는 분위기를 제자들도 짐작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면서’ 애써 위험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예수님과 함께 겪어야 할 고통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리라. 그래서 줄음으로 현실을 피하려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하여” 스승과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을 우선해야 할 때에도 핑계와 합리화로 무장하고 귀와 눈을 닫아버리는 내 모습을 보았다.

사도들의 동굴에서 나와 몇 걸음 떨어진 성모님 무덤동굴로 갔다. 그동안 성모님께



서는 터키의 에페소에서 사도 요한과 함께 살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 근처 올리브 산에 성모님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의외였다. 이 장소는 성모님께서 겿세마니 동산 근처에서 돌아가셨다는 전승에 따라 2세기경에 지은 기념성당이라고 한다.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공동 관리하고 있다. 뾰족한 탑 꼭대기에 깃발이 펄럭이는 석조건물 정면에 있는 널찍한 계단은 성모님 무덤동굴 성당으로 이어진다. 무덤동굴은 정교회 특유의 수많은 등과 성모님의 영광과 업적을 기리는 이콘들로 꾸며져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콘은 단연 ‘티히빈의 성모’(The Tichvine Mother of God)다. 러시아 티히빈 지방의 전통적인 성모성화라고 하는데 머리를 약간 왼쪽으로 숙인 성모님은 아기 예수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아기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아기 예수는 지구본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축복을 주고 계신다.

성모 마리아께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승천하셨다는 교리에 따라 지하 오른쪽에 놓인 성모님의 무덤 자리는 빈 석관이 놓여 있었다. 이 지하 성당이 옛모습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1187년에 이곳을 점령했던 이슬람교도들이 성모님을 ‘예언자(예수)의 지극히 복된 어머니’로 공경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성모님 무덤동굴과 제자들의 동굴경당. 이 두 장소는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던 초세기에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교인들의 마지막 신앙의 보루였다고 전해진다.

### 예수님 눈물성당(Dominus Flevit)

우리는 유대인 공동묘지 옆으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갔다. 이름처럼 올리브 나무가 많은 올리브 동산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자주 제자들과 들르신 장소이며 예수님 지상생활의 마지막 때인 수난시기의 추억이 가득한 산이기도 하다. 그곳에 있는 ‘예수님 눈물성당’을 찾아가는 중이다. 왼쪽으로 러시아 정교회 소속의 마리아 막달레나 수도원 담과 오른쪽으로 는 겐세마니 동산 벽을 끼고 걸어가는데 나무 사이로 푸른 빛의 타원형 돔이 보였다. 곧 이어서 마당에 커다란 종려나무가 서 있는 작은 성당에 도착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 모양으로 지었다는 성당이다. 작은 경당은 검소하면서도 오래된 흔적이 배어났다. 경당 안 제대 뒤편에 있는 성배와 가시관의 문양 창살 너머로 예루





살렘의 전경이 바라다보였다.

그 옛날 이곳이 올리브 산 중턱 야산으로 남아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보이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을 묵상한다. 6세기경에 처음 세워진 성당은 사라지고 우리가 순례하는 지금의 성당은 1955년에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루카 19,41-4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루카 13,34) 진정한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동족에 대한 연민과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예수님 시대나 오늘의 세상이나 지나가는 세상 것들에 길들어 살며 진정한 평화와 선의 길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또한 나의 삶으로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기를….

## 겻세마니 동산과 고뇌의 대성당

예수님 눈물 기념경당에서 가까운 곳에 겻세마니 동산이 있었다. 겻세마니라는 지명은 올리브와 관련되는 ‘기름뜰’, ‘착유기’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사실 겻세마니 동산은 올리브 동산이라고 불리기도 했을 만큼 이 장소는 옛날부터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그에 따른 가공업이 발달했을 것이다. 겻세마니 동산의 올리브



정원에는 약 2,000살이 넘는 올리브 나무 몇 그루가 보존되어 있었다. 이 나무들은 예수님의 생존 시대부터 있었던 나무들이거나 적어도 예수님의 수난을 지켜본 원뿌리에서 돌아난 새싹이라고 한다. 말이 2천 년이지 그 긴 세월을 살아온 이 올리브 나무들은 그 옛날 예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오래된 나무들은 죽은 것 같이 딱딱하고 주름이 늘어졌어도 새 잎이 나와 여전히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 마치도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불러일으킨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은 제자들이 머무는 곳으로부터 ‘돌을 던지면 땅을 만만 거리’(루카 22,41)로 사도들의 동굴과 가까운 거리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들었던 시간에도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본 올리브 고목들은 오늘도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그날 밤의 정경을 느끼도록 이끌어 주고 있었다.

## 고뇌의 대성당(the Basilica of the Agony)

올리브 동산을 둘러본 다음 ‘여러 민족의 대성당’이며 고뇌의 성당인 겻세마니 대성당으로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고뇌하시며 온갖 정성을 다

해 성부께 기도드리시던 곳(마르 14,32-42; 마태 26,36-46; 루카 22,39-46)이기에 ‘고뇌의 대성당’이라고 불린다. 성당 정문 입구에는 올리브 고목을 조각해 놓은 커다란 가리개가 순례자들을 압도했다. 성당 안은 컴컴했다.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성당보다 어둡고 무거운 침묵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홀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피땀을 흘리며 아버지께 기도드리던(루카 22,44)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중앙제대 뒷벽에는 올리브 나무 아래 바위에서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는 그림이 있고, 제대 앞으로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앉으려 기도하셨음직한 커다란 바위가 가시덤불 형상의 울타리 안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루카 22,42) 예수님께서 고뇌에 싸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루카 22,44) 모두들 말을 잃은 채 그날 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가 외면하셨을까? 아니, 하느님은 침묵하시면서 아들 예수의 고통에 함께하셨을 것이다. 작고

좁은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아드님 안에서 고통은 구원의 신비가 되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누군가에게서 위로받으셔야 할 순간에 홀로 내쳐짐을 당하신 예수님.(마태 26,39; 마르 14,35; 루카 22,41)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그분은 이미 죽음의 고통으로 들어가셨을 것이다.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나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으신 예수님, 늘 당신을 따르다면서도 다른 곳을 바라보는 나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으신 예수님, 나는 그분의 표현하기 힘든 어리석기조차 한 사랑 앞에서 말을 잃는다.

셋세마니 대성당에서 나와 길 건너편에서 바라본 대성당의 정면 또한 장엄하고 상징적인 그





림으로 꾸며져 있었다. 가운데 십자가 아래로 그리스어의 알파와 오메가 가 쓰인 판을 들고 계신 성부가 계시고 그 아래편으로 세상의 죄악을 고통으로 승화시켜 봉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 양편으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믿는 이들을 대변한다. 거대한 성전을 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 꼭대기에는 네 복음사가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다. 385년 즈음에 지은 원래의 성당은 전쟁과 대지진으로 파괴되었고, 지금의 성전은 작은형제회에서 1924년에 지은 것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한다. 겐세마니 대성당이 ‘고뇌의 대성당’이라는 이름 외에 ‘여러 민족의 성전’(the Church of All Nations)이라고도 불리는 이유는 이 성당이 세계 16개 그리스도교 국가 신자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키드론 골짜기를 지나 기혼 샘으로

우리는 겐세마니 대성당에서 나와 길가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면서 겐세마

니 동산과 깃세마니 대성당을 바라보았다.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더니 키드론 골짜기 너머로 예루살렘 성벽이 보였다. 옛날엔 험한 계곡이었고, 우리나라로 치면 '시구문 밖'쯤 되어 성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었던 키드론 골짜기는 많은 나무와 푸른 풀이 자라는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다. 우리는 기혼 샘으로 가기 위해 키드론 계곡으로 내려갔다. 걷는 것이 힘든 자매는 차를 타고 다른 길을 통해 기혼 샘까지 가기로 했다. 몇 명의 자매와 함께 가이드를 따라 걷는 계곡은 걷기라서 물이 흐르지 않는 넓고 평평한 산책길 같았다. 예루살렘 성벽을 배경으로 언덕에 심어진 올리브 나무와 풀꽃들이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키드론 계곡과 게헨나 힌놈 계곡은 구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계곡이다. 그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이 키드론 계곡은 유대인들에게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구원의 상징이라고 한다. 맞은편에서 아랍인 남자가 어린 소년과 함께 양 떼를 몰고 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사진에서 본 옛날 유목민을 연

상시켰다. 우리는 신기해하면서 양 떼가 우리 앞을 지날 때까지 바라보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오른편으로 삼각형의 돌 지붕을 이고 있는 바위가 보였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묘라고 했다. 잘난 외모와 재능을 지녔던 압살롬, 그는 자신의 그릇에 넘치는 교만으로 아버지 다윗 왕의 속을 무던히도 썩혔다. 하느님을 잊고 아버지를 배척하며 세상의 왕권과 영화를 탐하던 왕자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다. 압살롬의 묘 옆으로 예언자 즈카르야의 묘가 있었다. 도굴꾼들의 짓인지 묘지 윗부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을 제외하면 무덤은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높은 곳의 바위를 뚫어 문을 만든 것과 돌계단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들은 구약시대



사제가문 무덤의 흔적이라고 한다. 골짜기로 올라갈수록 험상궂은 바위들이 보였다. 몇 차례의 지진과 자연재해를 거친 커다란 바위들과 계곡의 흔적은 그 옛날 이곳이 외지고 경외심을 일으키는 계곡이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우리는 계곡을 벗어나 차도로 올라가서 차를 타고 온 자매들과 합쳤다. 구약시대의 히즈키야 왕은 다윗 성 밖에 있는 기혼 샘의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바위를 파서 수로를 만들었다. 발굴을 위해 파헤쳐진 곳 근처의 오래된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기혼 샘 표지판이 있었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기혼 샘은 에덴 정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창세 2,13)의 하나이다. 척박한 토지에 마르지 않는 기혼 샘의 물을 하느님이 보내주시는 생명의 물로 받아들인 이스라엘인들의 오랜 신앙이 살아 있는 곳이었다. 계단 아래로 보이는 닫힌 철창문 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기혼 샘 주변을 돌아본 우리는 어제 가기로 했다가 미루어둔 시온 산 성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 닭울음 성당(베드로 회개 기념성당)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시온 산은 ‘모든 거룩한 장소들의 요약’(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인 예루살렘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성지이다. 다윗의 도성의 다른 명칭인 시온은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도들에게도 중요한 성지로 ‘거룩한 시온’(하기아 시온)이라고 불린다. 시온 산에 있는 그리스도교 성지는 갈리칸투(닭울음 성당-베드로 회개 기념성당), 최후의 만찬 기념성당 그리고 마리아 영면 기념성당이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 회개 기념성당(Church of St. Peter in Gallicantu)을 찾아갔다. 차에서 내려 걷는 동안 성당 꼭대기에 있는 베드로의 회개를 상징하는 닭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닭울음 성당이라고도 부르는 베드로 회개 기념성당은 예수님을 심문했던 대사제인 카야파의 집터로 알려진 곳에 지은 건물이다. 예수님은 겹세마니에서 이곳까지 끌려와 지하 감옥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첫 번째 심문을 받으셨다. 우리는 먼저 닭울음 성당 옆 전망대에 올라가 시온 산 남동쪽에 있는 키드론 계곡과 게헨나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계곡 건너편으로 촘촘하게 들어선 집들과 우리가 다녀온 예수님 눈물성당, 겹세마니 동산이 보였다. 오른쪽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다. 그 아래로

보이는 건물은 ‘하켈드마’, ‘피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이었다. 그곳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받은 돈으로 산 밭터라고 한다. 유다는 그곳에서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조리 쏟아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사도 1,18-19)

팔각형 지붕 아래로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후 그리스도교 기념성당이 있었던 비잔틴 시대의 예루살렘 모형도가 있었다. 지금은 이슬람교도들의 성전이 된 실로암 연못 위에 있었던 성당, 골고타와 예수님 무덤 위에 지었던 예수님 무덤성당(부활성당), 그리고 베짜다 연못터에 있던 기념성당 등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에 예루살렘 성지에 세운 기념성당터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주요 건물들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움직이신 거리와 장소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사제 카야파의 집터와 안토니오 요새 등.

비잔틴 시대 때 처음으로 이곳에 베드로 회개 기념성당이 세워졌다. 그 후 12세기에 새로 교회가 지어지면서 ‘닭울음 성당’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성당 외벽에는 예수님을 줄에 묶어 감옥으로 내려 보내는 그림이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다. 성당

앞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는 입구에는 ‘고난 받는 주님의 종’ 조각상이 놓여 있다. 손을 묶인 채 고통스런 표정을 한 주님의 종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마치도 아버지를 찾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들릴 것 같다. 성당 안 중앙제대 벽에 그려진 모자이크화는 최고 의회에서 예수님이 심문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 성당의 주제를 설명해 준다.

제대와 신자석 사이에 둥근 구멍이 나 있었다. 이곳으로 예수님을 밧줄에 묶어 지하 물 저장소였던 구덩이로 내려 보냈다고 한다. 성당 앞에 있는 나선형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니 예수님 시대의 주거지역인 동굴과 물 저장시설, 감옥이 나타났다. 이 지하 동굴 감옥에 예수님이 카야파에게 재판 받으러 가기 전에 갇혀 계셨던 것이다. 감옥에는 죄인들을 묶어 놓았던 돌기둥이 서 있었다.





이곳을 거쳐 간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기라도 하듯 누군가 꽃 한 송이를 갖다놓았다. 그 작은 꽃은 삭막한 지하 감옥에 한줄기 바람 같은 위로를 전하고 있었다.

성당 밖 계단 옆으로 베드로와 대사제의 집 하녀의 모습을 새긴 조각상이 있다. 병사 옆에 서 있는 하녀의 거둬지는 질문에 당황한 베드로가 점진적으로 더욱 더 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모습이 실감나 보였다. 자매들은 그 조각상을 보면서 저마다 생각에 잠겼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마르 14,30-31)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하찮은 이기심으로 쉽게 그 믿음을 저버리는 불쌍한 나. 주님의 자비 없이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이나 거둬진 베드로의 부인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세 번의 질문으로 되돌려주셨다. 베드로와 하녀의 조각상 뒤편으로 윗도시인 예루살렘과 아랫도시인 키드론 계곡으로 이어지는 로마시대의 돌계단이 남아 있었다.



예수님은 ‘성목요일’에 시온 산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이 길을 통해 겟세마니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에게 체포되어 다시 이 길을 통해 카야파의 집으로 끌려가셨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안에 위치했던 이 돌계단은 겟세마니 동산과 예루살렘을 잇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다는데 계단 옆으로는 당시의 주거지터가 남아 있었다. 지금은 돌계단으로 바뀌었지만 2천 년 전 그 밤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을 이 길, 슬한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 죄인이 되어 걸었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받아안

은 길. 사랑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신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주고 있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진리를...

## 최후의 만찬 기념성당, 다윗의 무덤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최후의 만찬 기념성당으로 걸음을 옮겼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강림을 체험한 거룩한 장소. 그때부터 이곳은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최후의 만찬 기념성당은 또 그리스도교 최초의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곳(사도 15,1-35)이기도 하다. 원래는 십자군 시대 때 지은 건물이지만 예루살렘의 다른 성지들처럼 수많은 종교전쟁으로 주인이 몇 차례 바뀌어 지금은 유다교의 소유가 되어 있다. 순례자들에게는 건물의 일부분만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돌로 지은 오래된 이층 건물로 올라갔다. 우리가 들어선 곳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한 ‘큰 이층 방’(루카 22,12)이었다. 아치식 돌기둥이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넓은 장소는 비어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에서

---

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요한 13장),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이다. 빈 방에 2천 년 전 예수님의 흔적을 기억할 만한 것은 없었다. 이 성당을 점령한 이슬람교과 유다교에 의해 그리스도교의 흔적은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치식 기둥 중간쯤에 전설의 새 펠리컨의 조각이 남아 있었다. 자신의 몸을 쪼아 낸 피로 자식을 살린다는 전설의 새 펠리컨은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구한 예수님의 상징적 이미지로 이 성당 안에 남은 유일한 그리스도교 상징이었다.

정사각형의 넓은 빈 방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최후의 만찬 모습을 그려보았다.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신 예수님, 나는 언제나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지. 방 안쪽에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곳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성모님과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장소라고 한다.(사도 1,12-14) 오늘날 그리스도교 순례자들은 작은형제회에서 원래의 기념성당터 바로 옆에 지은 최후만찬 기념성당과 수도원에서 최후의 만찬미사와 성령강림 미사를 봉헌한다.

1층으로 내려와 ‘다윗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설교에서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사도 2,29)라고 했다. 그때부터 최후의 만찬 경당이 있는 시온 산에 다윗의 무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전승이 생겨났다고 한다. 역사적이나 고고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공경하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유대인들에게는 통곡의 벽 다음으로 중요한 성지라고 했다. 다윗의 무덤도 남녀의 출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다. 여성이 들어가는 문 위편으로 율법을 담은 메주자가 달려 있었다. 물론 남자들이 출입하는 문 위에도 달려 있을 것이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정면에 검은 벨벳 천으로 싸인 큰 관의 일부가 놓여 있었다. 관의 나머지는 무거운 휘장으로 가려진 반대편에 있는 남성들의 예배장소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관 가운데에 휘장을 쳐 남성들과 여성들의 기도장소를 나누어 놓은 것이다. 실내의 규모는 남성들의 예배장소가 여성들이 들어가는 곳보다 3분의 2쯤 더 넓다고 한다. 마침 다윗의 무덤 안에는 우리밖에 없었다. 호기심이

---

발동하여 휘장을 살짝 들치고 반대편 예배소를 들여다보았다. 검은 모자를 쓰고 흰 수염을 기른 유대인들 몇이 의자에 앉아 성경을 읽거나 다윗의 관을 만지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검은 의상과 귀밑으로 곱슬머리를 늘어뜨리고 검은 모자를 쓴 남성들의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이색적이고 신기하다.

### **복되신 동정 마리아 영면 기념성당(Dormitio Beatæ Mariæ Virginis)**

시온 산에 있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교 성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성모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지상 생애를 마치고 하늘에 오르셨음을 기념하는 성전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영면 기념성당은 작은형제회의 최후의 만찬 기념수도원 옆 성 베네딕토수도원 안에 있었다. 성모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시온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십자군 시대 때 지은 성모영면 기념성당은 12세기에 이슬람 군에 의해 파괴되었다. 지금의 기념성당은 독일의 베네딕토수도회에서 1910년에 지은 것이다.

기념성당은 1층의 대성당과 지하성당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지하성당으로 들어갔다. 차분하고 낮은 빛이 감도는 성당 중간에 여섯 개의 기둥 가운데 임종하신 성모님의 모습을 재현한 석상이 놓여 있었다. 사람의 실물보다 조금 크게 만들어진 성모님 상에서 남성다운 위엄이 느껴졌다. 성모님상을 모신 곳 천장 가운데로 어머니 마리아를 하늘에서 맞아들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 주변은 구원역사에 참여한 구약의 여인들인 하와·유딧·에스테르·룻·미리암 등이 그려져 있었다. 이곳에 온 순례자들은 먼저 성모님께 초를 봉헌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 성당 안을 둘러보아야 한다. 성모님 곁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를 하기 전에 성당을 둘러보거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순례자들을 혼내시기 때문이다. 기념성당 벽에는 여러 나라에서 봉헌한 성모님 성화가 있었다. 그리고 성당 오른쪽과 왼쪽으로는 성모님 기념성당과 관련된 성인과 왕족들에게 바쳐진 작지만 아름다운 경당들이 있다.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마음과 몸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모으고 예수님이 남기신 가르침을 되새기며 기도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예수님의 구원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모님의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 신자들은 그리스도

---

교 신앙이 태동한 시온 산 성지에 성모님의 영면 기념성당을 마련했을 것이다. 대성당의 높은 돔과 이층 창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성소피아 대성당과 같은 구조로 지어졌다고 한다. 성당을 지은 이의 정성이 느껴지는 우아하고 화려한 성당 내부에는 제대를 중심으로 구약의 예언자들, 베네딕토수도회와 관련된 성인들과 왕족들의 기념 경당이 있었다.

성모님이 진정 복된 분인 것은 예수님 곁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루카 11,28)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둘러본 성모님의 성지는 신앙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아름다움으로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기념성당의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보고 간다면 성모님이 받으시는 찬미와 영광의 바탕이 되는 죽음의 고통을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다. 성모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아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걸으신 십자가의 길과 죽음을 함께 받아들이셨고 그 고통을 믿음 안에서 승화시키셨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은총을 빌어본다.

## 성 안나 기념성당(THE CHURCH OF ST. ANNE)

시온 산에 있는 성지를 둘러본 우리는 스테파노 성문(사자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갔다. 성안의 좁은 길 양편으로는 고만고만한 기념품 가게들이 이어졌다. 좁은 시장터 같은 거리는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로 가득했다. 복잡한 거리를 두리번거리면서 일행의 뒤를 따라가기 바쁘게 갑자기 자매들이 시장거리의 혼잡함을 뒤로 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문 안으로 들어섰다. 잎사귀가 무성한 열대 식물들과 나무 사이로 단아한 석조건물이 보였다. 이곳은 아프리카 선교사 목을 하는 파드레 비안키(Padre Bianchi) 수도회라고 했다. 우리는 정원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성모님의 어머니 성 안나께 봉헌된 성당이 있었다. 투박할 정도로 단순한 성당은 회색빛 돌로 만들어져 있었다.

환하고 밝은 곳에 있다가 성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의 주변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다. 점차로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아담하고 천장이 높은 성당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장식이 극히 절제된 초세기 풍의 건축양식으로 단순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이 성당은 요아킴과 안나가 마리아를 낳은 집터인 지하 동굴 위에 세워진 성당이라고

한다. 천정이 높은 중앙제대 뒤로 예수님의 유년기를 전하는 마태오와 루카복음 성경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다.

바오로딸 수녀들이 부른 노래를 좋아한다는 가이드가 우리를 제대 앞으로 데려가더니 성가를 불러주기를 청했다. 우리가 부르는 성가는 성당을 가득 채웠다. 노래를 그다지 잘하지 못해 평소에 '음가대'라 자칭하는 나는 곁에 선 자매의 아름다운 음성이 내 소리인 양 착각하며 소리 높여 성가를 불렀다. 합창을 마치고 성가대 솔리스타인 크리스티나 수녀가 몇 곡의 노래를 더 불렀다. 조용하게 신자석에 앉아 있던 외국인 순례자들이 우리의 노래가 끝나자 화답하듯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부를 때는 몰랐는데 남녀혼성의 화음이 수준 이상인 그들의 찬양은 높은 천장을 돌아 내려오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들이 성가를 끝냈을 때 우리는 그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조용히 성당을 빠져 나왔다. 처음 보는 외국인들과 예수님 안에 한 가족으로 주님의 묘하신 일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이 마음에 남는다.

성당 우측 중간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 경당이 나온다. 성모님의 부모인 성녀 안나와 요아킴 성인이 살았던 동굴에 지은 기념경당이다. 동굴 옆 중앙제대는 아기 마리아에게 봉헌된 것이다. 성 안나 성당은 11세기 십자군 시대의 대표적인 건물로 비잔틴 건축양식이 잘 보존된 유일한 성전으로 특히 고딕식 둥근 지붕의 아름다움이 유명하다고 한다. 음치가 노래를 해도 천상의 소리로 들릴 정도로 완벽한 내부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성 안나 성당이 지금까지 이렇게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슬람의 살라딘 장군이 건물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이슬람교 신학교 사용했기 때문이다. 성전 출입문 위쪽에는 아랍어로 쓰인 신학교 현판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우리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축일로 지내는 9월 8일이 바로 성 안나 성당의 축복일이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 벳자타 연못

성 안나 성당에서 나와 정원 안쪽으로 들어갔더니 오래된 연못터가 있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서른여덟 해 동안 누워 있던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요한 5,1-9)을 베푸신 벳자타 연못터였다. 원래의 벳자타 못터는 땅 밑에 있었다고 한다. 그럴 것이 원

래는 빗물을 받는 저수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저수지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위, 아래 저수지로 나뉘게 되었다고 한다. 연못은 네 개의 주랑이 모서리에 있고 다섯 번째 주랑이 연못을 돌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연못에 다섯 개의 주랑이 있다고 요한복음서의 말을 확인해 주었다. 이 연못 중의 하나는 성전의 제물로 바칠 양을 씻는 곳이었기 때문에 ‘양의 우물’이라고도 불리었다.

옛날 십자군들은 이 벳자타 연못 위에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작은 경당과 기념 성당, 그리고 거대한 수도원을 지었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아마도 여러 시대 유적들의 복합이 아닐까 싶다. 그래도 고풍스런 기둥과 돌의 모형을 보면 벳자타 못은 멋지고 큰 연못이었을 것 같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벳자타 못 가에 있던 눈 먼 이, 다리 저는 이, 팔다리가 비틀어진 이 같은 많은 병자들 중에서 서른여덟 해 동안 누워 지낸 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다. 예수님은 그의 무기력함 안에서 치유 받고자 하는 열망이 살아 있는 것을 보셨던 것이다. 나는 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영적 게으름과 좋지 않은 습성을 떨치지 못하는 약한 의지를 지닌 내 모습을 보곤 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총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심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끼가 끼고 오래된 건물의 흔적을 내려다보니 그 옛날 넓은 주랑에 앉아 물에 몸을 담그려는 많은 병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던 광경이 그려졌다. 커다란 주랑이 이어지던 이 연못은 현대식으로 하면 자선병원의 대기실 같은 풍경이 아니었을까. 2천 년 전 사람을 고치는 의사 예수님은 마음을 고쳐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이 오늘의 의사와 달



---

랐던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메마른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 받는 이들을 어루만져 마음을 치유해 주는 영적 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연못 유적지 아래로 내려가면 아직도 물이 고여 있고 예수님께서 서른여덟 해 동안 누워 있던 병자를 치유하신 주랑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번 순례지로 이동해야 하는 관계로 아래까지 내려갈 시간이 없어 세월이 만들어 낸 돌벽의 운치와 이끼 낀 주랑의 흔적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다음의 순례지는 예수님 구원사업의 정점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다. 초세기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체포되신 겟세마니 동산에서 키드론 계곡을 지나 대사제 카야파의 집을 거쳐 골고타 언덕까지 걸으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렸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오늘날 순례자들이 걷는 십자가의 길은 16세기경에 확정된 것으로 빌라도 총독 관저가 있던 아랍인 초등학교 마당에서 예수님 무덤성당까지 약 1.5km 정도의 거리이다. 비탄의 길, 슬픔의 길(Via dolorosa)로도 불리는 십자가의 길은 좁은 아랍인 시장 골목을 지나 무덤 성당으로 이어진다.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기 위해 빌라도 총독 관저가 있던 아랍인 초등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시간은 우연인지 계획된 것이었는지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시간과 맞춤하게 된 것이다. 운동장 계단에서 우리를 바라보던 한 청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길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다.

제1처 :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이곳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빌라도 법정이 있던 자리로 안토니오 요새의 남쪽 부분인데 대성전 뜰에 붙어 있었다.(요한 19,4-16) 네모나게 깎은 돌들을 세워 박아놓고 포장한 마당이 예수께서 재판받기 위해 서 계셨던 장소라고 한다.

---

## 제2처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아랍인 학교 맞은편에는 채찍질 교회라는 이름의 작은 성당이 있었다. 이곳은 예수님 당시 안토니오 요새의 북쪽 부분으로 동쪽에서부터 채찍성당, 사형선고성당, 에체호모 시온수녀회와 왕의 놀이 장소가 함께 있다. '왕의 놀이'(The King's Play)라고 불리는 곳은 로마 군인들이 모여서 쉬고 놀던 곳으로 돌바닥에는 우리나라의 사방치기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고, 매를 맞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마태 27,26)

우리는 예수님의 매 맞으심을 묵상하고 다음 처로 향했다. 채찍성당에서 이어진 회랑을 조금 걷다보면 왼쪽에 사형선고성당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리토스트로토스'(돌 깔아 놓은 자리) 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셨다. 채찍성당 옆으로는 작은형제회가 운영하는 성서대학이 있다고 한다.

## 제3처 :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쓰러지시다

3처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랍인의 시장터로 들어섰다.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며 지나가는 길은 폭이 2미터쯤 되는 작은 골목길이다. 길 양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기념품 가게들은 우리나라 재래시장과 비슷했다. 아르메니안 가톨릭 소유의 작은 경당 제대에는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술한 매질과 모욕으로 지치셨다.

## 제4처 :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시다

이곳에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한쪽은 통곡의 벽 쪽으로 가는 길이며, 오른쪽의 길가로 난 문 위에 예수님과 성모님이 만나는 장면의 조각이 골고타 언덕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 제5처 :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지다

1895년에 지은 작은형제회 소속의 작은 경당을 밖에서 경배하고 지나쳤다. 점점 언덕으로 올라가는지 길은 낮은 계단으로 바뀌었다.

---

제6처 :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다

이곳에는 예수의 작은자매회에서 운영하는 이콘 판매점과 경당이 있었다. 오늘은 순례자들이 많지 않아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는 일행은 우리뿐이었다.

제7처 :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러지시다

이곳에는 작은형제회가 관리하는 조그만 경당이 있었다.

제8처 :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뒤를 따르며 슬피 울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고 말씀하셨다.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자신보다 다른 이의 선을 생각하는 이 무한한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쓰러지시다

무덤성당의 탑이 보이기 시작했다. 골고타 언덕이 가까운 것 같다. 이곳에는 콥트 교회가 있었다. 콥트 교회를 지나 고풍스런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뜰 안에 제10처의 표지가 서 있었다.

제10처 :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시다

우리는 좁은 통로를 올라가 골고타 언덕의 정상인 예수님 무덤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골고타는 예수님 당시 사용하던 아람어로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죄인들 앞에서 당신의 몸을 드러내야 하는 치욕까지 당하셨다. 십자가의 길 10처에서 13처까지는 골고타 언덕에 한데 모여 있다. 이곳에서는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따라 하기보다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수난을 생각하며 움직였다.

제11처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창에 찢린 가슴을 움켜진 아름다운 성모님의 모습을 보니 시메온의 예언이 떠올랐다.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루카 2,35)

---

### 제12처 :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숨을 거두신 양편으로 성모님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한 사람씩 제대 아래로 보이는 골고타 언덕의 바위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예수님께 인류의 구원, 나의 구원을 이루신 거룩한 십자가가 서 있던 이곳, 해골산의 거친 바위도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해진 것이다.

### 제13처 :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다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누이신 바위.(루카 23,53)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받아안은 돌에 손을 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던 자리 옆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부활한 첫사람인 '아담의 경당'이 있었다. 인류의 첫 창조물인 아담은 또한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첫사람이기 때문이다.

## 예수님 무덤성당(예수부활 기념성당)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모신 바위를 지나 십자가의 길 14처로 갔다. 그곳은 예수님 무덤이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순례자들 뒤에 줄을 서서 이곳저곳 성당 안을 둘러보았다. 침침하고 거대한 성당 내부 이곳저곳으로 길이 나 있었다. 수도복이 다른 여러 수도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오늘날 무덤성당은 복잡한 역사와 종교의 문제로 로마 가톨릭과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하여 콥트 교회, 시리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교회 등 모두 여섯 종파가 분할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혼란스런 오늘의 세상과 갈라진 그리스도교의 현실을 상징하는 단편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분열되고 어지러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던 때처럼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뜻밖에 정동 작은형제회에 계시던 수사 신부님을 만났다. 테오필로 수사님은 종신 서원을 하시고 예수님이 사시던 땅에서 살고 싶어서 성지 관구로 옮겼다고 한다. 그분은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오는 순례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셨다. 무덤성당 안에는 작은형제회 수사님들의 공동체가 있다고 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의 어머니인 헬레나 성녀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왔었던 324년경 이곳에는 주피터와 비너스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헬레나 성녀는 아들인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326년에 이교도의 신전을 헐고 이곳에 있던 예수님의 무덤을 발굴한 다음 기념 성당을 세웠다. 로마를 그리스도교화시킨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구세주의 구원사업이 완성된 거룩한 이곳을 지구의 중심으로 선포했다.

예수님께서 묻히신 곳은 골고타 근처에 있는 새 무덤(요한 19,41-42)으로 원 무덤 주인은 당시 유대 최고의회의 의원인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었다.(마르 15,43; 루카 23,50) 그는 예수님을 몰래 따르던 자(마태 27,57; 요한 29,38)라고 전해진다. 그는 동료 니코데

모와 함께(요한 19,39)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모셨다.(마태 27,58-60; 마르 15,46; 요한 19,38-40) 예수님의 무덤 입구는 정교회 특유의 화려한 등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입구 양편으로 세 개씩 커다란 촛대가 서 있었는데 그 촛대는 예수님의 무덤을 공동 관리하는 교파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스 정교회 수사가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 입구는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했다. 첫 번째 방은 비어 있었는데 그곳을 ‘천사들의 경당’이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천사들의 경당’ 안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빈 돌관이 놓여 있었다. 요한과 베드로가 천사를 만난 곳은 무덤의 첫 번째 방인 천사들의 경당이고 그 안쪽에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져 있었던 것이다. 비



록 상징적인 빈 무덤이기는 하지만 이곳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모두들 예수님이 계셨던 빈 무덤 돌을 쓰다듬으며 그분이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렸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 동굴 옆에 있는 발현경당에서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다. 2천



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장소에서 그 구원을 오늘 우리 안에 되살리는 미사를 드리는 것이다. 테오필로 수사님과 김영남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해 주셨다. 발현경당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사흘째 되는 날,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러 갔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 무덤을 보고 놀랍고 슬픈 마음에 주님을 찾아 헤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요한복음 20장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아담한 경당이다. 제대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묶여서 매를 맞았다는 쇠기둥이 서 있었다. 작은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에는 우리 일행 외에 서너 명의 외국인이 함께했다. 그들의 경건함에서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느껴졌다.

미사를 봉헌하고 난 우리는 성채같이 거대한 성당을 나와 아랍인 상가로 들어섰다. 날이 저문 시간이라서 좁은 시장 길에는 여행자들보다는 현지인들이 많았다. 빵 굽는 냄새, 생선, 야채가게, 과일가게들이 늘어진 좁은 시장에서 가난한 아랍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터널 같은 시장을 벗어나 어두워진 성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나온 다마스쿠스 성문에 조명등이 켜졌다. 이스라엘에서의 순례가 끝났다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피곤이 몰려왔다. 시간은 오후 여섯 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 성지순례기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 가브리엘라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수회 참가 소감]

## 길을 찾았습니다

임미애(마리아) · 1학년

지구 반대편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는 저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어 연수회에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입문 1차와 2차 연수회 중 몇 차에 참석할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2차 연수회는 숙식을 할 수 있어 좋은 조건이었으나 혹시 휴가철이라 가족과 친지들과의 만남이 있을 경우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 1차 연수회에 신청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지방에 살다가 조용한 나라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기에 북적대고 바쁘고 편리한 도시 서울은 처음부터 나에게 친근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공문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버스를 타고 내리라고 한 곳에서 내렸으나 약도를 가져오지 않아 30분 이상 주변을 맴돌다 겨우 오패산로를 찾아 목적지인 알베리오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수녀님

들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곳에는 수녀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수녀님들을 가까이에서 뵈는 것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것은 강의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10년을 마룻바닥과 카펫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강의실 마룻바닥은 새로운 곳에서 느끼는 긴장된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번 연수회에는 수도생활의 새내기 지원자부터 수도생활을 오래 하신 수녀님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수녀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평신도와 수도자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라 어떤 형제님은 1:1 교육인가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북적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는 연수회 참석자가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아 오붓하니 좋았습니다. 새내기 지원자는 그렇다손 치고 연세 많으신 수녀님들이 성경 공부 그것도 입문이라니 납득이 되지 않아 여쭙어 보았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 같은데, 지루하지 않으세요?”

“항상 새롭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수녀님의 검손과 항상 처음과 같이 돌

아가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연수회 전날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느라 새벽 3시가 지나 잠들었기에 첫째 날 수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을 조금 했는데, 송창현 신부님의 강의는 오는 잠도 쫓아낼 정도로 재미있고 독특했습니다. 그동안 숙제하느라 읽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정리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모세오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였습니다. 이제 첫걸음마를 뗀 저는 뿌연 안개 속에서 방향을 몰라 여기저기 부딪히고 있었는데 이 연수회를 통하여 어렵פות이 길의 윤곽이 보임을 느꼈습니다.

더운 여름날 참석자들을 위하여 재미있는 게임과 율동을 준비해 주신 수녀님들, 섬세하게 배려해 주신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장 수녀님과 여러 수녀님들 그리고 20년 전에 이 강의를 들었으면 나의 진로가 바뀌었을 정도로 재미있고 쉽게 강의해 주신 송창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 더워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양재옥(수산나) · 1학년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여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구약입문 연수회에 다녀왔습니다. 뿌듯함과 자부심으로 마음이 충만해져 더위마저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연수회에 참석하신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활기차고 진지한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연수회를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신 수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9번에 걸친 신부님의 주제 강의는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있고 잘 알아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파스카의 신비로운 예식을 체험함으로써 이집트 탈출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모임방에 조별로 모여서 생활 나눔을 할 때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에서 뜨거운 형제애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눔 후 모두가 하나 되어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짧은 시간에 어찌 그리도 기막힌

작품들을 준비해 발표하는지 모두들 놀라고 감탄하였습니다.

파란 물결 파도치는 해변으로 가고 싶을 정도로 무더운 날씨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해변으로 가요’라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춤추던 종달새같은 수녀님들의 귀여운 재롱(?)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고 나니 더위가 싹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일간의 연수에서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감동받고, 주님 말씀 안에 열심히 살아가리라는 다짐도 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재미있게 열강을 해주신 신부님, 연수회를 준비해 주신 수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같은 길을 걸어가는 형제자매님들! 모쪼록 건강하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서 겨울 연수회 때 반가운 얼굴로 만나도록 합시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내리시길 기도드립니다. 🍃

## 연수회 예찬

김경화(프리스카) · 성바오로 신학영성 1학년

내가 시청각통신성서를 처음 소개받은 것은 세례를 받고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그 당시 나는 은총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실천하고 있었다. 매일미사 참례, 성경 필사, 성체조배, 묵주기도 등등. 그러던 중 내가 이렇게 은총받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 은총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고 싶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바오로딸 서원에서 수녀님이 “자매님, 이 성경 공부가 8년 정도 걸리는데, 정말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요. 자매님은 젊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은총을 많이 받는다는 말에 솔깃했지만 기간이 너무 길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오랜 고민을 접고, 드디어 등록을 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을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기쁨은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집을 작성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사실 이러한 감동은 내가 학구적이라거나 신앙심이 깊어서 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그만큼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상식

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날 받은 연수회 초청장, 참석하지 않으면 엄청난(?) 과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강의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집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참석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첫 연수회는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통학을 하기로 했다. 강의는 한 시간 한 시간 끝나는 것이 무척 아쉬울 정도였다.

그룹 나눔이나 그룹 발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그룹원들의 기지는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하였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툭툭 튀는 아이디어와 신선함은 젊은 나로서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고 그 발표 내용들은 가슴 깊숙이 묵직한 감동을 주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좋았던 것은 나는 손도 대지 않고 정갈하게 마련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장마철이라 파견 미사 때는 굵은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다. 영성체 후 수녀님들께서 하나하나 나눠주신 말씀 사탕, 그 말씀을 읽고 나는 평평 울었다.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두려웠던 시기에 있었는데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거기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그 위로 말씀이 나를 매번 연수회로 이끄셨던 것 같다. 그곳에 가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나에게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말이다.

난 그 다음 연수회부터는 가족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숙식을 선택하였다. 나의 주님을 그 기간 동안 온전히 만나고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정은 여유로웠고, 한층 충만함을 주는 시간이었다. 통학생들이 돌아가면 남은 숙식생들은 영화도 보고, 자유롭게 기도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혼자 성체 조배실에서 하는 기도는 정말 특별하였고, 수녀님들이 엄선하신 영화는 매번 큰 감동을 받기에 충분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항상 그 영화들을 빌려 가족들과 함께 다시 보곤 하였다. 또한 연수회 일정에 있는 그룹 나눔 외에 방을 함께 사용하는 자매님들과의 또 다른 나눔은 그 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하였는데,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다양한 환경에서 고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안에서 우리들은 자신의 체험담을 나누면서 한 분

당에서 오래 알고 지낸 교우들보다 더 끈  
끈한 정을 느끼게 되었고,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보고 싶고, 기다려  
지게 되었다. 과제물 제출은 못해도 연수  
회는 꼭 참석하자고 약속 아닌 약속도 한  
다.

이제 성바로 신학영성 과정이 되었  
다. 늘 2박 3일로 진행되던 연수회가 이  
번에는 하루였다. 대전교구에서 오신 자  
매님, 마산교구에서 오신 자매님과 서로  
손 잡고 안부 물을 시간도 넉넉지 않았  
다. 얼마나 섭섭하던지... 지난 번 졸업연  
수회 때 이제는 친구약 중급 연수회에 다  
시 참가하자고 했던 것이 생각났다. 정말  
그래야 할까 보다. 내년이면 성바로 신  
학영성 과정을 마치게 되는 내 동기들은  
이번 연수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이  
거 끝나면 뭐하지? 뭔가 후속 프로그램  
을 마련해 주겠지?”

시청각통신성서 과정이 너무 길고, 힘  
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한번 연수회에 참석해 보라고. 예  
상치 못했던 진한 감동과 행복을 선물  
로 받을 수 있다. 하나 더! 덤으로 졸업장  
도... 🍃

[성서사도직위원회 제21차 총회·세미나를 다녀와서]

## 성경과 영성

신숙영(아네스)·2회 졸업생

2012년 성서사도직위원회 제21차 총  
회·세미나가 8월 16~18일까지 대전교구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전국 15개  
교구 대표와 6개 성서사도직 단체 대표들  
150여 명이 참가하였는데, 우리 시청각통  
신성서교육원에서는 수녀님 네 분과 평신  
도 두 명이 참가하였다.

올해도 우리 팀이 접수 봉사를 맡게 되  
었는데, 다른 팀보다 일찌감치 도착해서  
현관에 접수대를 차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많은  
비가 내리는 중이라 오는 동안 힘들었을  
텐데도 모두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다.

첫째 날 오후 5시 말씀의 전례로 시작  
하였다. 위원장이신 이형우 아빠스께서  
'성서사도직에 봉사하는 말씀 봉사자들  
은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실천하는 복된 사  
도직에 불리움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강  
론으로 우리들을 격려해 주셨다. 저녁식  
사 후 대전교구 김종수(아우구스티노) 주교  
님께서 '성경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셨다. 주교님께서 짧은 시절,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당신 체험담을 먼저 들려주셨다. 여러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하던 중 성경을 읽다가 바짝 마른 해면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참으로 시원하고 맛있게 느껴지셨다고 한다. 그래서 ‘한백년 이 말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길을 찾다가 신학교에 입학하셨다. 신학생이 된 후 언제부터인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기도하게 되었고, 말씀이 자신 안에 들어와 완전히 삶의 목표가 되는 체험을 하셨는데, 이것이 곧 ‘영성’이라고 하셨다. 성경 공부의 목표는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므로 그 방법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먹는 것이라고 하셨다. 잘 먹는 방법은 감사하며 꼭꼭 씹어 먹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사람 몸 안에 들어간 음식물이 분해되어 우리에게 필요한 각종 영양분이 되듯이 말씀이 스스로 활동하여 우리 영혼에 필요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다.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것’의 완전한 표본은 성모님이신데, 성모님은 처녀가 잉태하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으신 결과 실제로 말씀을 당신 몸 안에서 키워낸 분이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육화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따끔한 충

고 말씀도 해주셨다. 결국 성경 말씀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이 영성이라는 말씀이셨다.

주교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리에 목말라하던 한 지식인이 ‘말씀’을 만나서 그 영혼의 그릇을 채워온 결과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어 그 존재 자체로 말씀을 전파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교님은 우리 성서사도직 말씀 봉사자들에게 다른 길과 방법이 없고 오직 말씀을 각자의 삶 안에서 살려내어 그 삶으로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것이 말씀 봉사자의 소명이라는 확실한 가르침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다. 말씀의 봉사자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마음 깊숙이 감동을 주신 주교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날은 ‘코린토 교회에서의 분열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성서사도직위원회 총무이시며 서울 가톨릭대학교 영성신학 교수이신 전영준(바오로) 신부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가톨릭교회 역사에서 각 시대별로 발전해 온 여러 영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현 시대에 이르러 심리주의적이거나 혼합주의적 경향, 더 나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영성을 경계할 것을 지적해 주셨다. 이런 경우 식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가톨릭 영성이란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이며 성성(聖

性)으로의 거룩한 성소(聖召)라는 것이다. 때문에 중간에 여러 도전과 어려움, 포기하고 싶은 과정이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기에 일부 마음의 평화만을 강조하는 심리주의적 영성과는 다른 것이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다. 두 번째 강의 시간에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3장을 중심으로, 전날 있었던 김중수 주교님의 기조강연과 연계선상에서 믿음·소망·사랑을 실천하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으며,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도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하고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묵상할 때 비로소 성경 말씀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하셨다.

강의에 이어 오전과 오후 그룹 토의 시간이 있었다. 첫 번째 토의 주제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는 영성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어려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주제는 우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도직을 아시아와 세계 교회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는 것이었다. 내가 속한 그룹에서는 주로 첫 번째 주제로 나눔을 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총회에 참석하신 한 봉사자는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성서사도직 단체가 있다는 것에 놀랐고, 하느님께 가는 길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

다. 나눔을 종합하면 말씀 봉사자로서 우리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은총을 받게 됨으로써 충만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각기 외형상으로는 다른 성서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큰 숲속에 함께 있는 나무들이라는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봉사직을 깨달음으로써 연대성과 정체성을 다시 확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첫째 날 밤에는 각 단체별로 오붓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고, 둘째 날 밤에는 외부에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해 전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닌 가위 바위 보 게임 등 우리가 잘 아는 게임을 하면서도 강사의 탁월한 진행으로 배꼽이 빠지게 웃을 수 있었다. 아빠스님과 신부님들, 수녀님들과 평신들 모두 웃음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성서사도직 근황 발표 시간에는 매년 보고식으로 진행되던 방식과 달리 자유롭게 발표를 하였다. 처음 발표하신 제주교구에서 오신 자매님이 '이번 세미나는 아버지 집에 온 느낌이다.'고 하여서 약간 의외였다. 왜냐하면 개인적 소감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사도직 활동 보고를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러나 이어진 자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숙연해졌다. 오랫동안 제주교구에서 말씀 봉사직을 수행했는데, 2년 전에 20세의 아들을 잃었다고 하셨다. 그 후 봉사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이번 세미나에 오게 되었는데, 자신도 뇌종양을 앓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계신 중환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 길을 가겠노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아빠스님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같아서 예전에 아버지께 불러드린 가곡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하셨다. 자매님의 증언을 들으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우리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어서 각 교구별, 단체별 발표가 간략히 있었다. 각자 고유한 처지에서 오직

말씀을 전하겠다는 소명을 살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년처럼 전체적인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성서사도직 단체에서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들을 시간이 없어진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파견미사 강론에서 이형우 아빠스께서는 우리들이 지난 일 년간의 모든 활동을 예수님께 보고하였으며, 이제 파견미사를 통해 다시 파견되어 나가는 제자들이라고 하셨다. '선교란 당신이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이다.'라는 문구를 인용하시면서 보람되고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일꾼이 되라고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덧붙여 주셨다. 2박 3일간의 총회 및 세미나에서 모든 이가 하나였고, 같은 영적 여정을 가는 형제자매임을 체험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

##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

김순이(캐롤린) · 성바오로 신학영성 2학년

새벽 5시 알람 소리와 함께 아침을 열었습니다. 아침식사를 못하고 오실 분들을 위해 김치 불고기 주먹밥을 만들고, 큰 보온병에 커피를 끓여 담고, 커피를 드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는 며칠 전에 담긴 생강차를 끓여 작은 보온병에 담고 나서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어’ 카페에서만 만나고 얼굴은 본 적이 없는 ‘장미한송이’님과 서로 문자로 위치를 확인하며 마치 영화에서 접선하는 것처럼 다가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하자, “통서? 아! 네~” 더 이상 자기 소개가 필요 없었어요. 오랫동안 알았던 것처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어색함 없이 주먹밥으로 아침을 먹고 천안으로 출발했습니다.

천안 터미널에는 ‘달빛소리’님과 ‘사벳’님 그리고 다른 자매님이 전국에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 새벽부터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오가는 거리에서 서로 넉네임을 확인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자니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지만 반가운 마음에 서로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오시는 ‘레사’님을 태우고 성지로 출발~!!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어찌나 밝고 말씀을 잘하시는지 스스로 우러나오지 않으면, 또 가족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새벽에 출발하면서 쌓였던 피로가 확 녹아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성지에 도착하니 운영진들과 임원진들 그리고 새벽 5시 40분에 서울에서 출발하신 수녀님들께서 저희를 맞이해주셨습니다. 숲 속에서의 미사는 참으로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성거산 성지신부님께서 “이곳은 무명 순교자가 소리 없이 순교한 곳이기에 길가에 피어 있는 이름 없는 야생화가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저는 자그만 일을 해놓고도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얼마나 잘난 체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순교자들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게 살아야 할지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사 후 자연을 벗 삼아 돛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생과 만나 안부를 묻는 듯한 분위기에 흐뭇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전혀 낯설지 않은 느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겠지요. 한 곳을 향해 함께 걸어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하모니카’님의 진행으로 예수님과 순교자들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모니카’님의 우렁찬 목소리에 야생화들도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치고 오니 운영진에서 다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세피나’님께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오셨고, 천안 자매님들께서 천안의 명물 호도과자를 준비해 주셔서 다과상이 더욱더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9주년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주신 교육원 수녀님들께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친교의 시간은 카페지기 ‘안드레아’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각자 교구와 이름, 닉네임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자니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제주·부산·진주·광주·속초·서울·구리·수원·인천·대전·무주·청주·금산·대전·천안... 특히 불편하신 몸으로 부산에서 직접 운전해 오신 ‘알렉산델’님, 15개월 된 아들을 안고 초등학교 3학년 레지나와 함께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오신 ‘레사’님, 생일을 맞으신 ‘다리아’님... 몇 달 전부터 미국에 계시는 ‘폴잎사랑’님이 매일 눈 빠지게 바느질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셔서 몸도 불편하신데 무슨 바느질인가 했더니, 카페 정모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주기 위해 목주기도를 하면서 목주 주머니를 만드셨던 것이었어요. 아픈 몸으로 준비하신 목주 주머니를 받으면서 가슴이 울컥!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은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카페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 카페지기 ‘안드레아’님의 안내와 앞으로 통서 가족 모임에 대한 방향과 교구 회장단 모임에 대한 안내를 ‘가마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과를 나누는 동안 ‘하모니카’님의 하모니카 연주가 있었는데, 무명 순교자의 넋을 위로하지 않았나 합니다.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 아쉬움을 뒤로 하고 헤어지면서 내년 모임에는 더 많은 이들이 합

깨하는 자리가 되기를 빌었습니다.

카페 정모를 위해 고생하신 임원진,  
운영진 그리고 통서가족님들, 남들이 계  
셔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고 사랑스러우셨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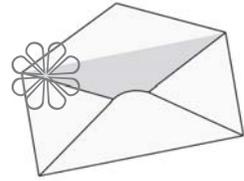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남들, 사랑합니다. 🍃



플잎사랑 님



알렉산델 님



### 학생이 평가자에게

평가자님, 벌써 3월이네요. 추워서 웅크리며 지냈던 날들이 어느덧 지나가고 파릇한 새싹이 피어나는 봄이 왔습니다. 거리의 아가씨들도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은 걸 보면서 봄이 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2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니 새 희망을 품고 열심히 성경 공부에 매진해 보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앞으로 일 년간 평가자님의 수고가 많으시겠네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나날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 평가자가 학생에게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자매님!

1년 동안 자매님의 성경 공부를 도와드릴 베네딕토입니다. 평가자라기보다 벗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공부는 세상의 지식 공부와 다른 하느님의 영성을 깨달아 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지혜를 갖추신 그분께 다가가 길어요 진리요 생명을 배우는 공부이기에 ‘거룩한 순례의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시련을 보는 관점과 고통 속에서도 남을 용서하는 방법, 슬픔 속에서도 우러나오는 찬양의 기도,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가 추구하는 정확와 조명과 성숙입니다. 시작은 자매님이 하셨지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의 영이십니다. 그분 복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느님 사랑’에 푹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입혀주시는 날개 달린 옷을 입고 천상을 날아다닐 것입니다.



### 학생이 평가자에게

안녕하세요? 연필로 써서 죄송합니다.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아서 저 편한 대로만 주님께 보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구요. 제 말과 행동이 선교라고 생각하여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너무 경직된 신앙인보다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신앙인이고자 합니다. 너무 느슨한지 모르겠지만 천성이 그래선지 답 쓰는 것도 신앙적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도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 평가자가 학생에게

자매님,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개나리가 핀 걸 보니 봄이 왔나 보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많은 것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알아보고 느끼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말이죠. 자연스러운 신앙인,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잘 나아갈 때도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향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느껴질 거예요.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과 더욱더 친숙한 관계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중에 많은 은총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리 부활 축하드려요!

## 학생이 평가자에게

찬미예수님!

3월부터 편안해지려니 했는데 열흘도 채 지나기도 전에 편찮으신 시아버지께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한 달째인 지금 매일 사랑과 미움이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려니 하다가도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면 ‘왜 내가 감당해야 하나?’라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분한테서 “자네 복이네.”라는 말씀을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이 대가 없는 사랑으로 잘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자식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버님께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읽는 성경은 얼마나 맛있는지 주님이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꽃 피는 4월을 기대하며 봉사자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 평가자가 학생에게

갑작스러운 일로 당황스럽고 힘드시겠어요. 불만, 미운 감정, 억울한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받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느껴지네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마냥 기쁜 마음을 지닐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려는 자매님의 모습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주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듯하네요. 말씀에서 큰 힘을 얻으시길 바라며 저도 기도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 학생이 평가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3-16)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새롭게 그 감미로운 사랑에 빠져 오래 머무르게 되었답니다. ‘~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그냥 ‘나’로서 귀한 소금, 그것도 세상의 소금이라 불러주신 분, 이미 당신의 선성이 제 안에 있기에 그 맛을 잃지 말라 알려주시는 분. ‘무익한 종’에 대한 목상이 저를 덮치고 있을 때였는데, 주님께서 저를 빛이라 부르셨죠. “숨지 말아라. 등불이 있을 자리는 등경 위다.” 하느님·예수님·성령의 눈이 저를 보시고 지지해 주고 사랑해 주심을 느꼈던 여름밤의 사랑을 나누어 드립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이었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신 예수님의 그 물이 청명함으로 목상되었던 괜찮은 여름이었습니다.



### 평가자가 학생에게

먼저 좋은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수녀님의 그 마음이 늘 한결같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녀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 내심 좋습니다. 저 역시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해 마흔 살에 사제가 되었으니 그 첫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지금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주님의 향기, 그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큰 도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수녀님께서도 그 마음을 잘 보존하여 주님의 품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주님의 꽃 내음을 잘 느끼시길 기도하며….

### 학생이 평가자에게

집 정리를 했습니다. 9년 동안 계속 지니고 있던 것들을 확 뒤집어서 정리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재활용품으로, 쓰레기통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집이 가벼워진 것 같고 덩달아 제 마음도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불만·시기·질투·욕심·자만·이기심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힌 것 같아 마음 정리도 조금씩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공부 1학기가 끝났습니다. 구약입문 과정보다는 쉬울 것 같았는데 저의 오만이었다는 걸 공부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낸 저에게 기특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엄마 공부하라고 잘 지내준 세 명의 예쁜 천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해야겠어요.

신부님! 한 학기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학기 때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평가자가 학생에게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비우는 연습이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자매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히, 마음의 선물을 나누려 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자매님! 하느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커가는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 좋은 뜻을 택했다

정규갑(시메온) · 이러닝학습 1학년

이러닝학습 등록 후 설레임과 두려움(?)과 호기심이 겹쳐지면서 궁금증도 해소할 겸, 더 많은 정보를 귀동냥하려고 울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 대청동에 있는 바오로딸 서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여행 겸 부산교구 통서가족 2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마침 그날 6년 졸업식이 있어서 선배님들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마치고 나니 통서가족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화기에 애한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교육원 홈페이지에 들락거리면서 항목별로 클릭해 가며 새로운 공지사항은 없는지 여기저기 둘러보았지요. 대부분의 공지사항은 문자나 메일을 통해 알려주시더군요. 3월 5일이 1학기 개강일이라네요. 여러 날 남은 줄 알았는데 바로 오늘이네요.

저녁을 먹고 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 비번을 넣고 드디어 <온라인학습>에 입성, 시작기도를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공지사항 '이러닝학습에 관한 안내'를 쭉 훑어보고 강의실로 들어가 1차시 강의 <성경의 의미와 지리적·문화적 배경>의 강의 자료를 먼저 다운받았습니다. 복습하기 좋은 자료라서 나중에 아들 내외에게 주려고 말입니다. 이제 기다렸던 동영상 클릭했습니다. 김계홍(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의 모습이 화면 좌측에 나타났고, 그 밑으로는 필요한 부분을 다시 검색할 수 있도록 목차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신부님의 찬찬한 말씀이 정겨웠습니다. 신부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질 무렵, 슬라이드 30쪽이 지나면서 나의 최대 결점인 졸음이 몰려옵니다. 깜빡 잠에서 깨어나니 이런, 퀴즈 화면이 떠 있더군요. 퀴즈를 풀기 위해 다운받은 자료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1번 문제는 무사히 통과, 2번 문제는 가우뿔, 3번 문제를 겨우 통과하고 나니 오늘 강의를 마쳤다는군요.

이러닝학습은 다운로드한 자료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과 동영상 강의도 다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참 마음에 듭니다. 화면에 있는 성경 구절을 검색할 수도 있

고, 신부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충실한 강의에 매우 만족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스템과 강사, 자료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 참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할 몫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과 신부님께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 가슴이 뻥 뚫렸어요

윤 윌리스(베드로) · 이러닝학습 1학년

+찬미예수님

성경 공부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으나 제가 있는 지역이 공소라서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고 또 읽었으나 무언가 답답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우연히 ‘매일미사’에 소개된 시청각통신성서 안내가 눈에 들어와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강의를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외국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고 막혀 있던 부분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명강의를 해주신 김계홍 신부님, 특강을 해주신 송용민 신부님, 성바오로딸수도회 수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강사 신부님 목소리에 푹 빠져

김태규(베드로) · 이러닝학습 2학년

아나운서 수준의 신부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네요. 어떨 때는 소리만 들곤 합니다. 신부님 목소리에 푹 빠져... 튜터 수녀님! 반갑습니다. 이 과정을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궁금하네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도넛을 만들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도넛 만드는 시간에는 아내와 저만 있거든요. 구약입문 때는 주로 집에서 들었지요. 좀 차분히 복습해야 하는데... 아무튼 모두들 룹런합시다.

## 이제 인사드립니다

이관영(제노) · 이러닝학습 1학년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내는 우편으로, 저는 이러닝으로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벌써 7주가 지나갔습니다. 성경에 대해 몰랐던 부분,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가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강의로 기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처음부터 반복 청취를 하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내 공부방에 들어가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쓰다 보면 평균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공부를 끝내고 나면 후다닥 강의실을 빠져 나가기 바빴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다른 업무 때문에 절반만 수강하고, 오늘 업무 시작 전에 남은 강의를 마무리하고 나니 일단 출석을 했다는 안도감에 보이지 않던 '학생 쉽터'가 눈에 띄어 클릭합니다. 첫 강의부터 매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을 처음부터 하나씩 읽고 나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터에 먼저 오신 분들께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용채(크리스티나) · 이러닝학습 2학년

저는 3학기째 이러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입문 때보다 더 섬세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의 여러 면들이 눈에 띕니다. 모두 수녀님들의 손길이 닿아서 이루어진 작품이겠지요. 지난 구약입문 2학기 연수회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렇게 첫 강의를 듣고 나니 위안이 됩니다.

박기석(요한) 신부님의 47분 강의가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난 것처럼 쉽고 재미있습니다. 첫 강의부터 여유롭게 들었으니 첫 걸음을 잘 디딘 거죠? 다음 시간 강의도 기대해 보며, 새 학기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통신성서교육원 수녀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듣고 새기겠습니다. - 멀리(?) 중국 광저우에서

〈졸업생 평가자 모임〉

통신성서교육원의 가장 큰 협력자인 졸업생 평가자 연수가 3월 17일~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있었다. 입문 평가자 12명, 중급 평가자 17명, 성바오로 신학영성 평가자 8명이 참석한 이번 모임은 '소통'이라는 주제로 성바오로딸수도회 미디어교육팀 수녀님들이 진행했다.



첫날에는 '소통'(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대해 함께 작업하고 나누었다. 장님이 된 짝꿍을 인도해 주는 게임을 하면서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는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고 '경청'이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체험했다. 저녁에는 영화 <Everybody's fine>을 보고 가족 간의 소통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나누었고, 이튿날에는 '나와 하느님의 소통'에 대해서 요한복음 15,1-8의 말씀을 묵상하였다. 다양한 작업을 통해 자신과 가족, 이웃과 하느님과의 진정한 소통에 이르는 길을 재발견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 〈전국 통서가족 임원진 피정〉

전국 통서가족 임원진 피정이 6월 9~10일에 과천 성모영보수녀회 피정의 집에서 있었다. 서울·수원·인천·의정부·원주·춘천·대전·전주·광주·부산·제주교구에서 49명의 임원진이 참석했다. 민남현(엠마) 수녀님의 '주님의 기도' 강의와 각 교구별 모임에 대한 현황 보고, 향후 통서가족 모임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진지한 나눔의 시간, 영상을 이용한 성체조배로 이어졌다. 저녁 친교의 시간을 통해 말씀 안에 하나 되하고자 하는 통서가족의 지향을 다시금 확인하였고, 향후 동문회 성격으로 활동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신학교 평가자 모임〉

우편학습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동반하는 신학생 평가자들의 모임이 3월 23일 인천 신학교를 시작으로 4월 12일 광주, 4월 13일 대구, 4월 17일 서울, 4월 23일 부산 신학교에서 있었다.

신학교 공부와 학교생활 중에도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는 연구과 1학년·2학년·부제님들을 직접 만나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안내와 보다 더 나은 봉사를 위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교육원에서 준비한 간식으로 함께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과의 만남이 앞으로의 사목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부산 신학교〉

### 〈제주교구 연수회〉

2005년 4월 9일 제주교구 통서가족 창립 및 2박 3일 연수회를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가진 이래, 제주 통서가족의 요청에 따라 제주교구 학생들을 위한 연수회를 가졌다.

6월 22~24일 제주교구 동광성당 교육관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주제로 민남현(엠마) 수녀님이 10시간의 강의를 하셨다.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동광성당 신자들을 포함해 37명이 참석해 오붓한 분위기 안에서 3일을 지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연수회 못지않게 진지하였고, 동광성당 고남일(요셉) 주임 신부님의 관대한 배려와 제주 통서가족의 따뜻한 환대에 깊이 감동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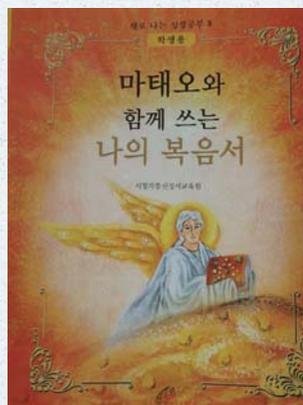


### 〈새로 나는 어르신 성경공부〉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의 세대도 1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른 어르신들에게 더 적합한 교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4복음서를 통하여 성경을 읽고 쓰고 공부하며 인생을 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재를 출간하였다. 2011년에 간행된 「마르코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2012년에 간행된 「마태오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전국 각 교구와 연대하여 전문 봉사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봉사자들을 배출하였고, 교구마다 신명나게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대전교구와 함께했던 봉사자 교육을 소개한다.



### 〈대전교구 노인사목 “어르신 성경학교” 개설〉

대전교구는 2012년을 ‘노인의 해’로 지정하여 가톨릭교회 안에서 특화된 어르신 사목을 찾기 위해 여러모로 고민하던 중, 어르신 사목의 핵심은 어르신들께 하느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방법으로 성경공부를 선택하게 되었다. 대전교구 노인사목 담당 백현(바오로) 신부는 성바오로딸수도회에서 여러 해 동안 어르신 사목으로 주력하고 있는 ‘새로 나는 성경공부’팀과 함께 대대적인 사목의 첫발을 내딛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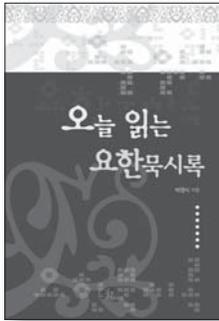
2012년 6월 20일 대전교구 사제연수 때 어르신 성경공부 사목의 필요성과 실행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직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큰 변화와 교회의 변화에 대해 윤영란(일마) 수녀가 강의를 하였다. 이후 많은 본당신부의 적극적인 지지로 ‘어르신 성경공부 전문 봉

사자 교육에 30개 본당 총 90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하여 8주간의 봉사자 교육을 받았다. 봉사자들은 「마르코와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로 성경 읽기와 필사, 말씀 안에서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설계하도록 이끌어 주며, 나눔과 깊이기 작업을 통해 성경 말씀을 실제 나의 삶과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되었다. 또한 봉사자 개인의 영적 성장과 양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꾸준히 실천하도록 교육받았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각 본당에서 어르신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하느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께 한층 더 행복한 삶을 안겨주고 있다.





## 책 소개



### [ 오늘 읽는 요한묵시록 ]

박영식 | 바오로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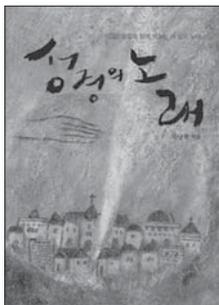
묵시록 원문의 의미를 살려 새로 번역된 본문과 대다수 학자들의 공통된 설명을 토대로 꾸민 요한묵시록 해설서. 본문 해설이 끝날 때마다 요약한 부분이 있어 오늘 우리 현실에서 묵시록의 말씀이 어떻게 되살아나는지 깨닫게 하며 묵시록을 통해 구세사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말씀의 힘을 느끼게 한다.



### [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과 함께하는 성경 묵상 ]

김정훈 | 바오로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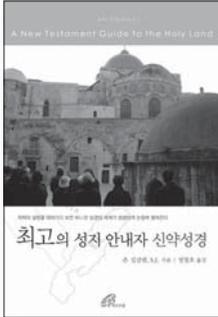
‘거룩한 독서 길잡이’ 시리즈 다섯 번째 책.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 각 권의 저술 목적, 내용, 구성, 주요 가르침을 소개한 다음 각 권의 중심 메시지가 부각된 본문을 선별하여 거룩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준다.



### [ 성경의 노래 ]

민남현 | 바오로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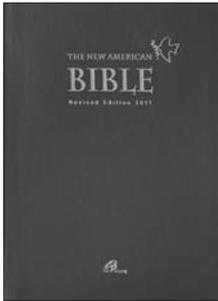
성경에 들어 있는 28편의 노래가 쓰인 배경과 본문의 구조, 의미를 소개하여 성경 본문에 담긴 깊은 속뜻을 이해하게 한다. 각 노래의 시작과 마무리에 저자가 일상에서 관찰한 성찰을 곁들여 삶의 지평을 여러 측면에서 넓고 깊게 보도록 하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이뤄지는 신앙의 눈으로 해석했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찬미와 감사의 생활을 살아가도록 이끈다.



### [ 최고의 성지 안내자 신약성경 ]

존 킬갈렌, S.J. | 염철호 | 바오로딸

나자렛·아인카렘·카파르나움·예리코·베들레헴 등 이스라엘 각 성지와 관련된 대표적 성경 구절을 묵상함으로써 복음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한 각 성지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한다.



### [ THE NEW AMERICAN BIBLE ]

미국 가톨릭 주교 위원회(USCCB) | 바오로딸

전 세계 신학자와 성경학자, 언어학자 등 50여 명이 17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결실로, 성경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살리면서도 가장 현대적 영어로 번역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성경 각 권에 대한 입문, 병행구절, 주석은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행적을 표시한 지도를 수록해 성경을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 비참과 자비의 만남-요한복음산책2 ]

송봉모 | 바오로딸

「삶의 우물가에 오신 말씀」에 이은 요한복음 묵상서. 요한복음 5~8장에 나오는 병자의 치유기적, 빵의 기적으로 오천 명을 배불리신 기적과 당신을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로 계시하시고, 안식일과 유대인의 모든 축제들을 완성하시는 분, 간음한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 [ 구약성경과 신들 ]

주원준 | 한님성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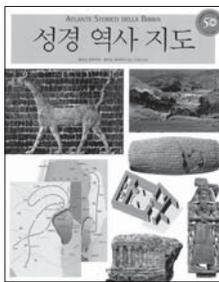
구약성경은 고대 근동의 작은 나라였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탄생했으므로 고대 근동에 대한 선지식이 있어야 구약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늘·달·바람·강·피·가시나무의 표상이 고대 근동 종교에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쓰였고, 고대 이스라엘 신학자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그들의 영성을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 [ 구약성경개론 ]

에리히 쉐어 | 이종한 | 분도

그리스도교 정체성에서 이스라엘 성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구약성경 각 책들의 구조와 형성 과정, 역사적 맥락과 신학적 의미를 공시적·통시적 관점에서 풍부한 도표와 함께 서술한 책이다. 부록으로 성경을 통해 본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도, 성서학 전문 용어 해설 등이 실려 있다.



### [ 성경 역사 지도 ]

엔리코 갈비아티, 필리포 세라피니 | 이성근 | 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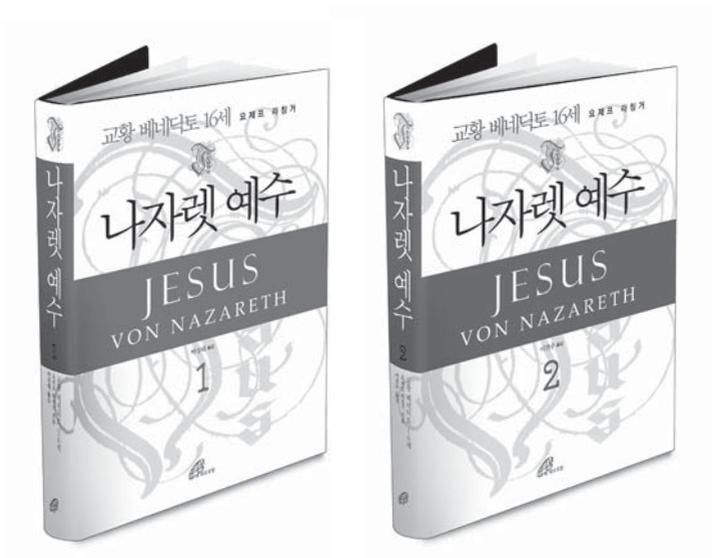
성경 역사와 문명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문명의 기원부터 예루살렘 성전 파괴까지 성경 역사와 그 배경을 함께 싣고 있다. 지도뿐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사진·그림·도표는 당시 이스라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 성경을 재미있고 실감나게 읽도록 이끈다.

신앙의 해 (2012.10.11. - 2013.11.24.) 기념

교황 베네딕토 16세 요제프 라칭거

# 나자렛 예수 1·2

「나자렛 예수」 1·2는 일생 동안 '주님의 얼굴'을 찾아온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노력의 결실이다. 이 시대 대표적 신학자이기도 한 교황은 역사적 근거 위에 복음서를 예리하게 짚어가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북돋운다.



1권 : 예수의 세례부터 거룩한 변모까지 | 박상래 신부 옮김

2권 :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까지 | 이진수 신부 옮김

“이 신앙의 해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랍니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신앙의 해' 제정 자의 교서 '믿음의 문' 중 -

발행 : 2012년 11월 30일  
펴낸데 : 성바로팔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142-704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184  
등록 제7-123호 1994. 3. 30  
전화 : 02)944-0819~0824 FAX 987-5275  
이메일 : uus@pauline.or.kr  
홈페이지 : <http://uus.pauline.or.kr>  
카페 : <http://cafe.daum.net/junim510>

이 책은 성바로팔수도회 시청각 통신성서교육원 회지이며 비매품입니다.



시 청 각  
통신성서  
입문과정  
입학안내

- 구비서류      입학원서
- 원서 교부처    교육원 홈페이지, 전국 바오로딸, 성바오로 서원
- 접수 마감      매년 1월 25일까지
- 자    격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소유자
- 접    수      142-704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184  
                 성바오로딸수도회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 문의 전화      02) 944-0819~0824
- 홈페이지      <http://uus.pauline.or.kr>

우편학습 각 과정 소개 

**〈신구약성경 입문 과정〉**

구약과 신약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성경신학적인 차원에서 신구약성경 전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신구약 2년 과정.

이 기간 동안 성경 본문에 친숙해지는 것과 성경 전반에 관한 역사·지리·환경을 배우고 성경이 어떻게 씌어졌는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인지를 배우게 된다.

**〈신구약성경 중급 과정〉**

성경입문의 토대 위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성경말씀을 해독하도록 이끌어 주는 4년 과정.

**〈성바오로 신학영성 과정〉**

성바오로 시대의 문화와 종교상황, 각 서간의 중요내용을 공부하며 기도와 삶의 통합을 이루는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2년 과정.

**〈공부 방법〉**

매월 해당되는 교재와 성경본문을 읽고 문제집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교육원에 제출한다. 제출된 문제집은 평가자의 평가가 끝나면 다시 받아볼 수 있으며 이때 평가자의 평가 및 보충 설명을 통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